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1 Vol. 217

부록 | 2010년 탁상용 카렌다



빈소년합창단,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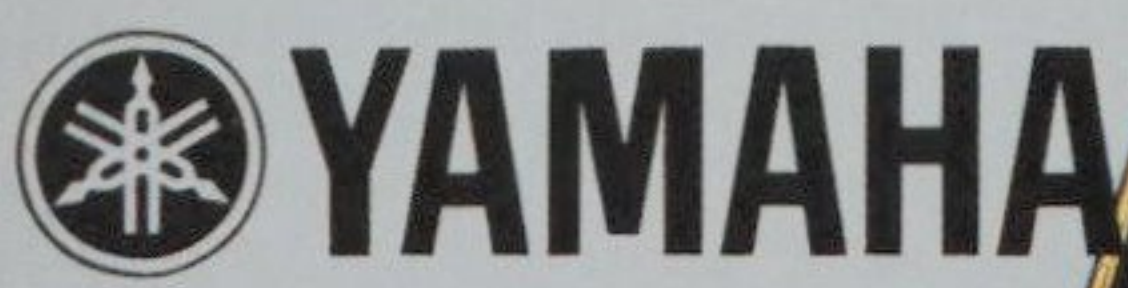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부산시민의
문화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산문화회관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8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816-0089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동백섬)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5층	051-266-4747

Beyond Chopin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2010 Dong-hyek Lim PIANO RECITAL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2010. **2.25** | 목 |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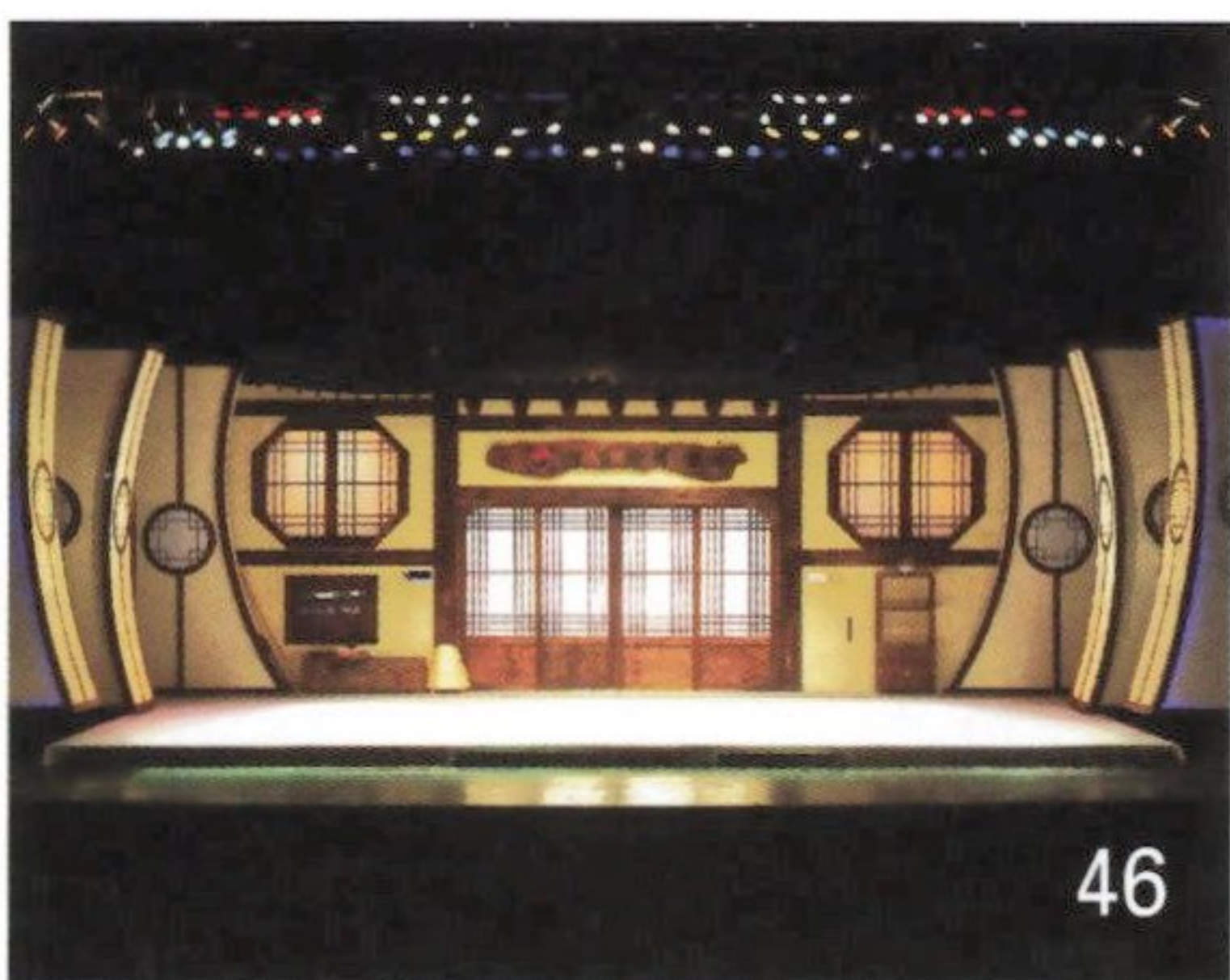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CREZIA** PRESENTS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홍보마케팅부(607-3100)
입장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1588-789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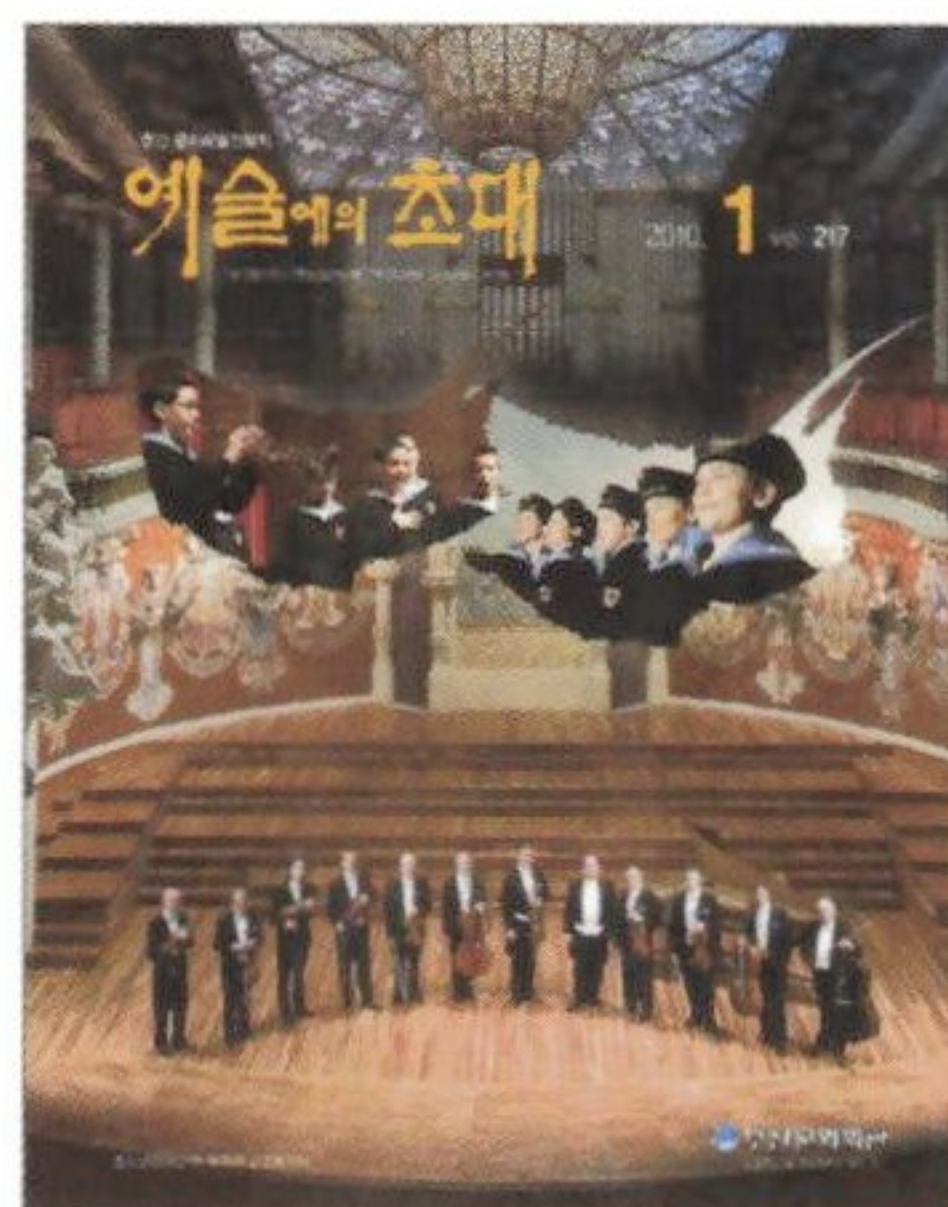


38



46

- 8 신년사 _ 시민들을 위한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 최성달
- 10 신년시 _ 먼 바다로 나아가는 은빛 파도를 보라 · 최영철
- 12 부산문화회관 2010 신년설계
- 14 부산시립예술단 2010 신년설계
- 24 커버스토리 _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이 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 28 프리뷰
- 31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의 음악은 정말 난해한가? · 김문경
- 32 반갑습니다 _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 35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고대 켈트족의 신비, 켈트 음악 · 황윤기
- 36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_ 첫눈이 다녀가신 이유 · 정일근
- 3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관광객 되다 · 이재걸
- 42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_ 아마데우스 · 이동신
- 44 리뷰 _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년음악회 · 신설령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 김문홍
- 46 그곳에 가면 _ 공연예술의 상설전용관 시대 열리다
- 49 우리는 문화가족 _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음악봉사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음악세상
- 50 프로그램 가이드
- 60 나의 애청음반 _ KBS-FM '한국의 전통음악 명반 시리즈' · 이정필
-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새로 나온 음반 · 책
- 64 100자 토크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2010. 1 Vol.217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최성달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12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래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2010년 새해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빈소년합창단과 사계의 신화를 이룩한 이 무지치 실내악단이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찬 신년의 메시지를 전한다.

2010.

1

JANUARY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1/31


소 | 예병현 타악기독주회 18:00
예병현(011-9505-066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신데렐라

2.19(금) 오후 7:30, 2.20(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3만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8, 홍보마케팅부 607-3100



03

04

05

10

11

12

소 | 우미혜 제자발표회 19:30
우미혜(010-3120-9528)

17

18

19

대 | 2010년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 블랙홀 20주년 Tribut 전국 순회공연 18:00
최지훈(010-2586-1490)

24

대 | 연극 '베니스의 상인' 15:00, 19:30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가마골소극장(1588-9155)

25

26

소 | 정신혜 무용단 홀춤 19:30
균일 1만 5천원/구성심(010-2572-9102)

국제회의장

▶ 제3기 시민클래식교실 '걸작 교향곡 순례'

1월 6일(수) - 국제회의장
기악음악 최고의 승리
모차르트 교향곡 제 41번 '주피터'

1월 13일(수) - 소극장
교향곡, 클래식 왕이 되다
베토벤 교향곡 제 3번 '영웅'

1월 20일(수) - 국제회의장
어느 청년 예술가의 기괴한 꿈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1월 27일(수) - 국제회의장
교향곡 재기에 성공하다
브람스 교향곡 제 1번

2월 3일(수) - 국제회의장
민요, 예술로 승화되다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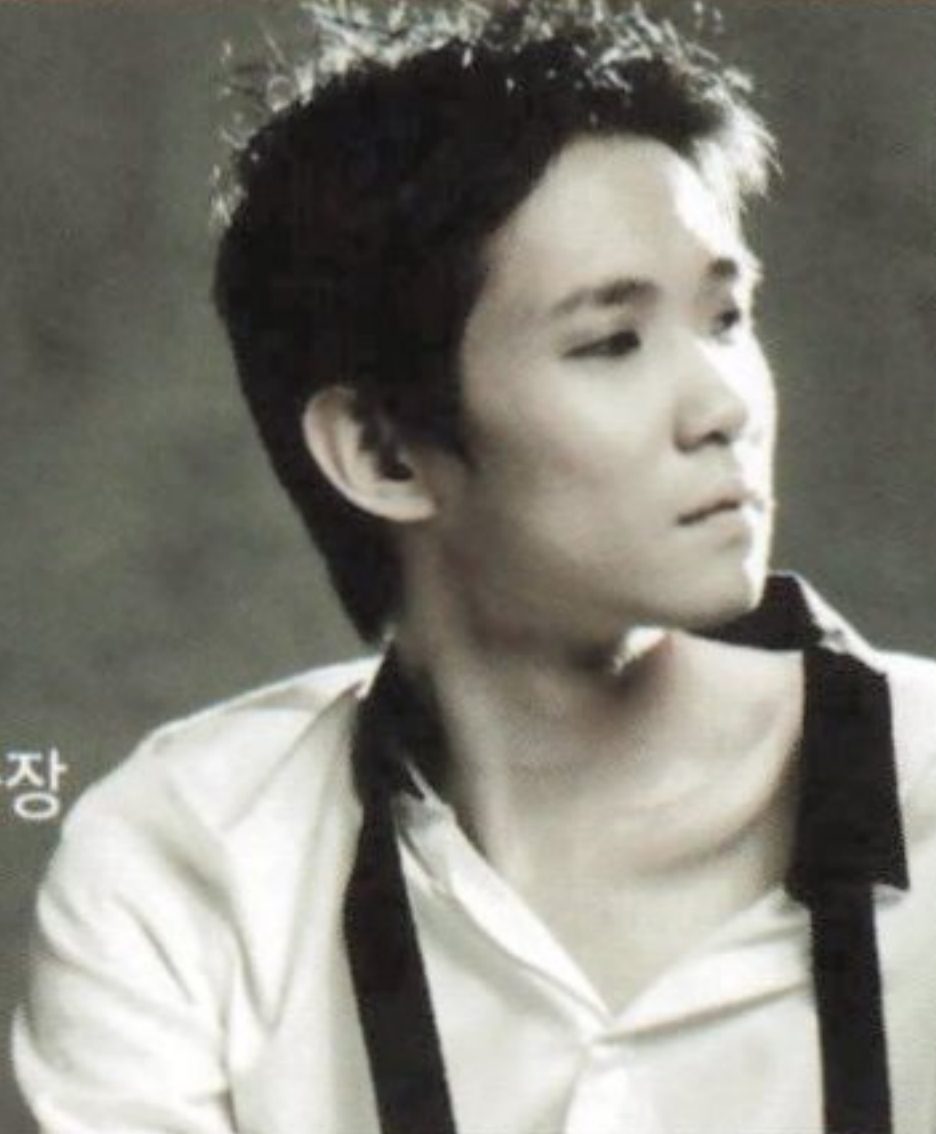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2010 Dong-hyek Lim PIANO RECITAL

Beyond Chopin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2.25(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7, 홍보마케팅부 607-3100



01

02

06

07

08

09

소 | 토요일상설무대-효원국악연주단
'감미로운 우리 음악'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5051~6)

13

14

15

16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6회 정기연주회
2010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하늘 아래 그 콘서트
'킹스톤 루디스카'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5058)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페스티벌 기타 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5051~6)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호산나 제 1회 정기연주회 19:30
이정현(632-3488, 010-3151-3694)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하늘 아래 그 콘서트
'킹스톤 루디스카'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5058)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페스티벌 기타 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5051~6)

20

21

22

23

대 | 제 1105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 메트로폴리
탄 팝스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부산 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010-3881-3753)

중 | 김연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예은예술기획(632-6904, 010-3556-6943)

소 | 부산시립무용단 2010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이야기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5)

부산시립무용단 2010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대 | 연극 '베니스의 상인' 15:00, 19:30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가마골소극장(1588-9155)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5051~6)

27

28

29

30

중 | 부산광역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19:00
남구소년소녀합창단(607-4372)

소 | 정신혜 무용단 홀출 19:30
균일 1만 5천원/구성심(010-2572-9102)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0 신년음악회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소 | 시향 바이올린 제자음악회 19:30
한행래(612-0203, 016-555-0368)

대 | 솔로페라단 2010 새해를 여는 부산성악가
페스티벌-우리가곡의 밤 '사계' 19:00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로페라단(740-5749)

중 | 신년맞이 공재민의 가야금병창이야기 19:00
허봉수(070-7717-3715, 010-4911-3715)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이야기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5)

대 | 유니세프 기금 마련 2010 나눔 콘서트 17:00
유니세프(501-0087)

중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윈드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5051~6)

소 | 이수 제 3회 정기연주회 17:00
김양하(624-3883, 010-7179-8149)

시민들을 위한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인년은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호랑이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을 성원해주시고 공연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새해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울리는 수준높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품공연, 라이브공연, 체험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7080 합창콘서트', '팔빙수 같은 시원한 음악회' 등 기존에 사랑받았던 관객맞춤형 프로그램들과 찾아가는 예술단공연 등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여 시민여러분들에게 꿈과 낭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예술단의 전국 교류 및 순회공연과 해외공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0년은 개관 20년이 넘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극장 로비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확장하고 객석바닥과 의자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무대를 높이고 설비 등을 교체하여 대형공연 유치에 가능하도록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됩니다.

부족한 부산지역의 공연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부산문화회관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더라



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중극장과 지역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들이 투영된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부산문화회관은 우리 부산의 문화 텃밭을 가꾼 많은 예술가들의 열정, 땀방울, 시민들의 성원으로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문화 관광 도시 부산' 을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우리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아 주셔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여 즐거워하신다면 문화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수준높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새해 아침에
부산문화회관장 **최성달**

먼바다로 나아가는 은빛 파도를 보라

최영철 _ 시인

막이 올랐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광활한 무대

동에서 떠오른 해는

서에서 달려온 해

남에서 떠오른 해는

북에서 달려온 해

천지간 어둠이란 어둠

그늘이란 그늘 다 빨아들였다

천지간 미망(迷妄)이란 미망

무명(無明)이란 무명

다 거두어들였다

지난밤의 든든한 기다림

지난밤의 씩씩한 달음박질



둥둥 북이 울린다

동녘의 해가 우렁찬 구령으로
남녘의 해가 싱싱한 웃음으로
서녘 북녘의 해가 바지런한 박수갈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 왔다
먼바다의 은빛 파도를 따라

막이 올랐다
새날이 열렸다

최영철 /1956년 경남 창녕 생. 1986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2000년 백석문학상 수상. 시집 '일광욕하는 가구' '그림자 호수' '호루라기' 외.
산문집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외.
블로그 <http://blog.daum.net/jms5244>

세계적인 연주가들과 만나는 행복

- 4월-9월, 대극장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 진행 -



빈소년합창단

2010년 경인년 새해 부산문화회관은 1월 15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부산문화회관은 2010년 수준 높은 공연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공연과 예술단공연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부산공연과 시립예술단이 공연하지 않

는 장르인 뮤지컬, 발레, 젊은 관객층을 위한 소극장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1월에는 빈소년합창단과 이 무지치실내악단이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부산에서 희망찬 신년음악회를 갖는다. 19일 부산을 찾는 빈소년합창단은 1498년 창단되어 오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이다.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 백여 명으로 구성된 빈소년합창단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부르크너 등 총 4개팀으로 나뉘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고 있다. 최근에는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빈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피에르 블레즈,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마리스 안손스, 주빈 메타, 세이지 오자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객원지휘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작곡가 하이든, 슈베르트 등도 빈 소년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모차르트팀이 노래한다.



이 무지치 실내악단

28일 부산을 찾는 이 무지치는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음악인들로 창단된 세계적인 실내악단이다.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신화', 비발디 <사계> 연주의 최고 권위자들인 이 무지치 실내악단은 창단 이래 화려하고 따뜻하며 원숙한 연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1978년 첫 한국연주를 가진 이 무지치는 한국을 찾을 때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다.

2월에는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 초청 공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초청공연, 3월에는 지난해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 감미로운 비올라 선율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난해 미취학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기가족 이야기'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지난해 7월 동화구연과 연주, 악기 체험으로 구성된 쇼케이스 공연의 성공으로 2010년부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악기가족이야기는 1월과 2월 8회 공연을, 7월과 8월 4회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러와 오페라 음악을 들려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는 2010년 테마를 '댄스클래식'으로 정하고 4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10년 한 해 동안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 지역 구문화회관에서 91건 129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을 더욱 확대해 100회 이상 방문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



임동혁



리처드 용재 오닐

안 매월 2, 4째 주 수요일 12:30부터 시청, 교육청에서 열리는 로비콘서트에 출연해온 부산시립예술단은 2010년에도 부산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의 향연을 선사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관객을 흡수하기 위해 '추억의 7080', '가요합창콘서트' 등 계층에 맞는 공연을 추진하고 미래관객 개발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극단의 시민예능교실과 부산문화대학으로 문화 향유 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기획공연 추진과 함께 2010년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1988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대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로비확장, 내부인테리어, 객석바닥·의자 교체, 무대설비 교체 등과 음향반사판, 조명, 샹데리아, 엘리베이터 등 무대설비, 기계설비, 전기통신분야 등의 교체가 진행된다. 공사 기간 동안 시립예술단은 중극장과 지역 구 문화회관을 적극 활용하여 공연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극장 시설의 노화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10월 대극장 재개관 후에는 더욱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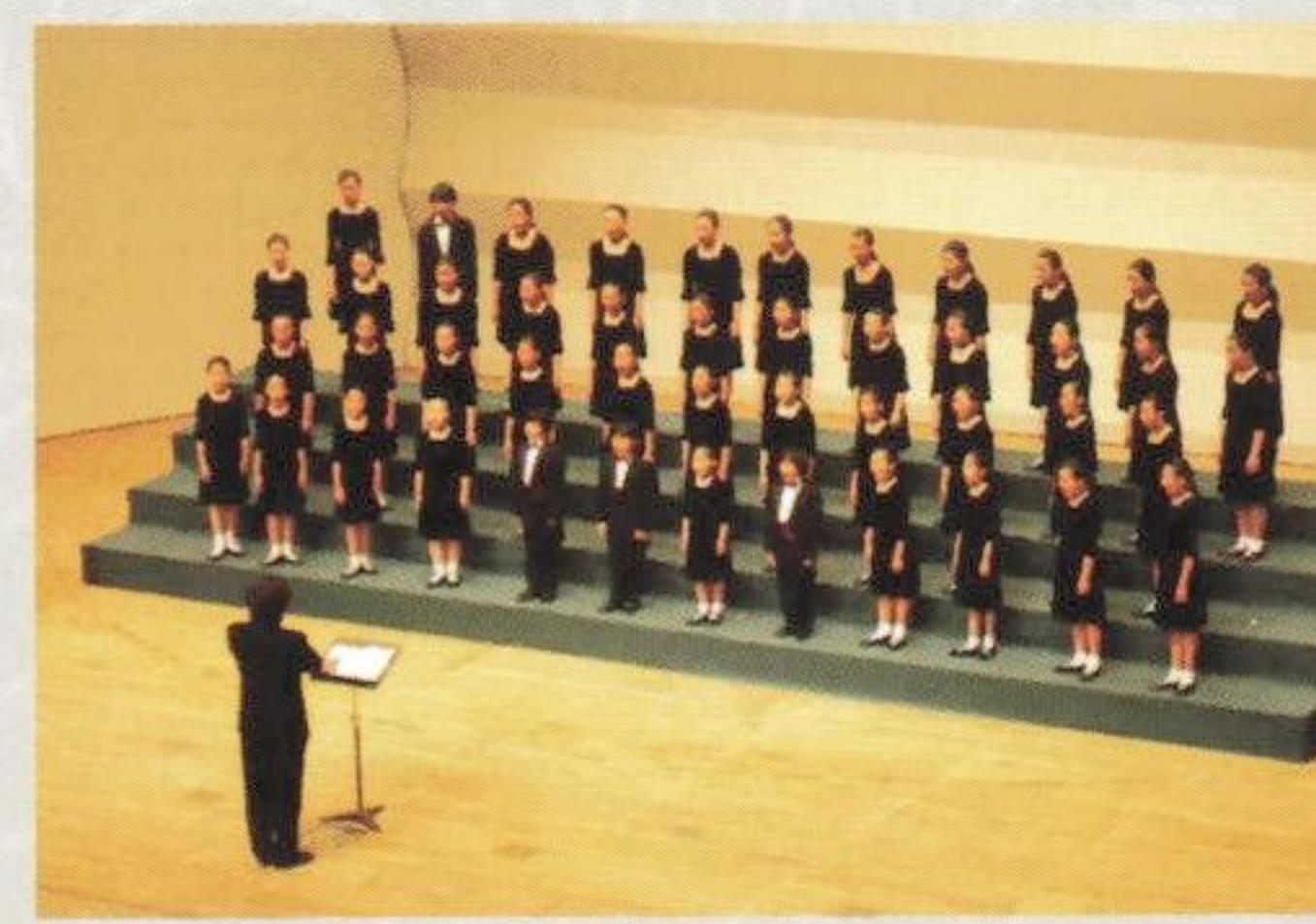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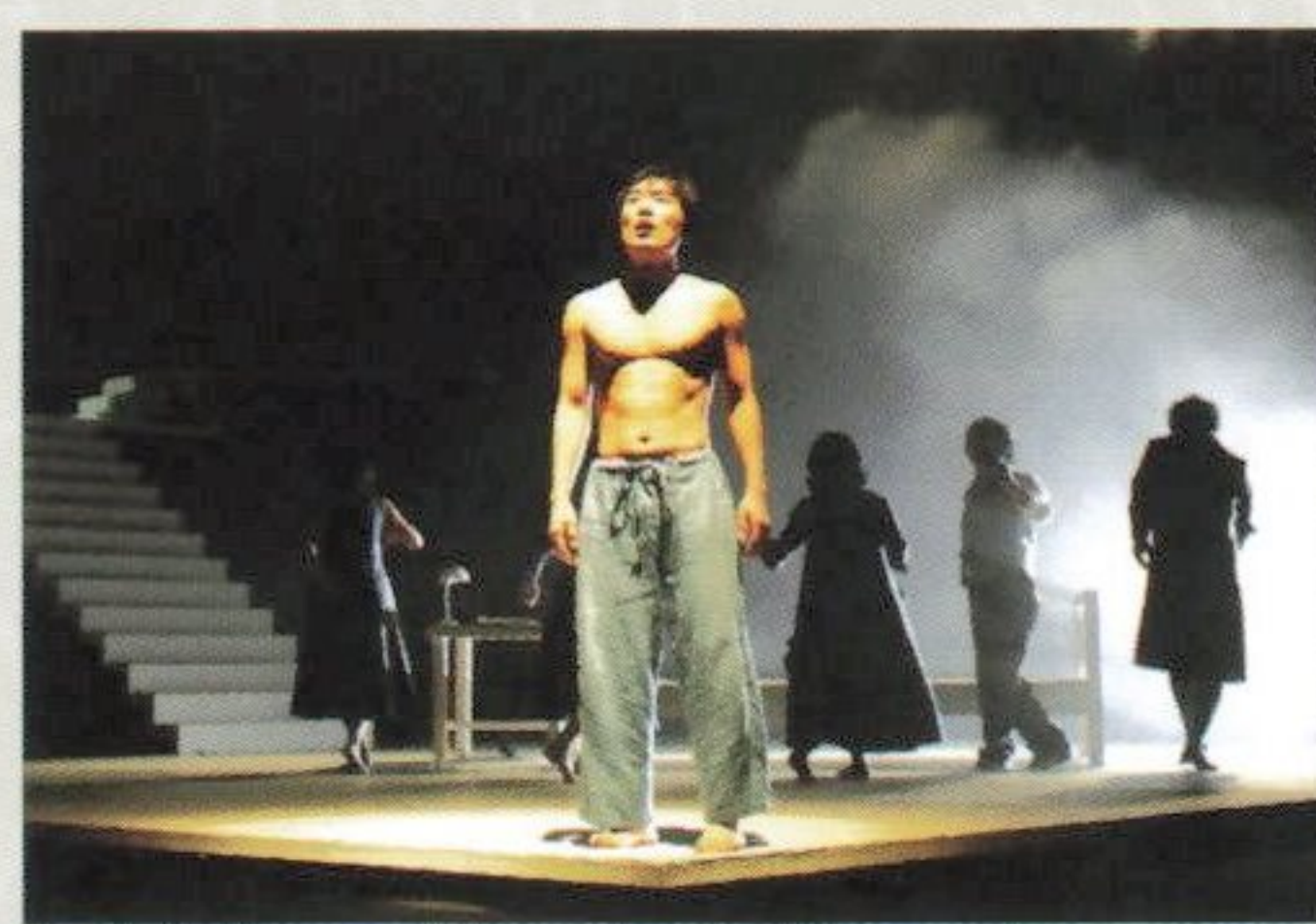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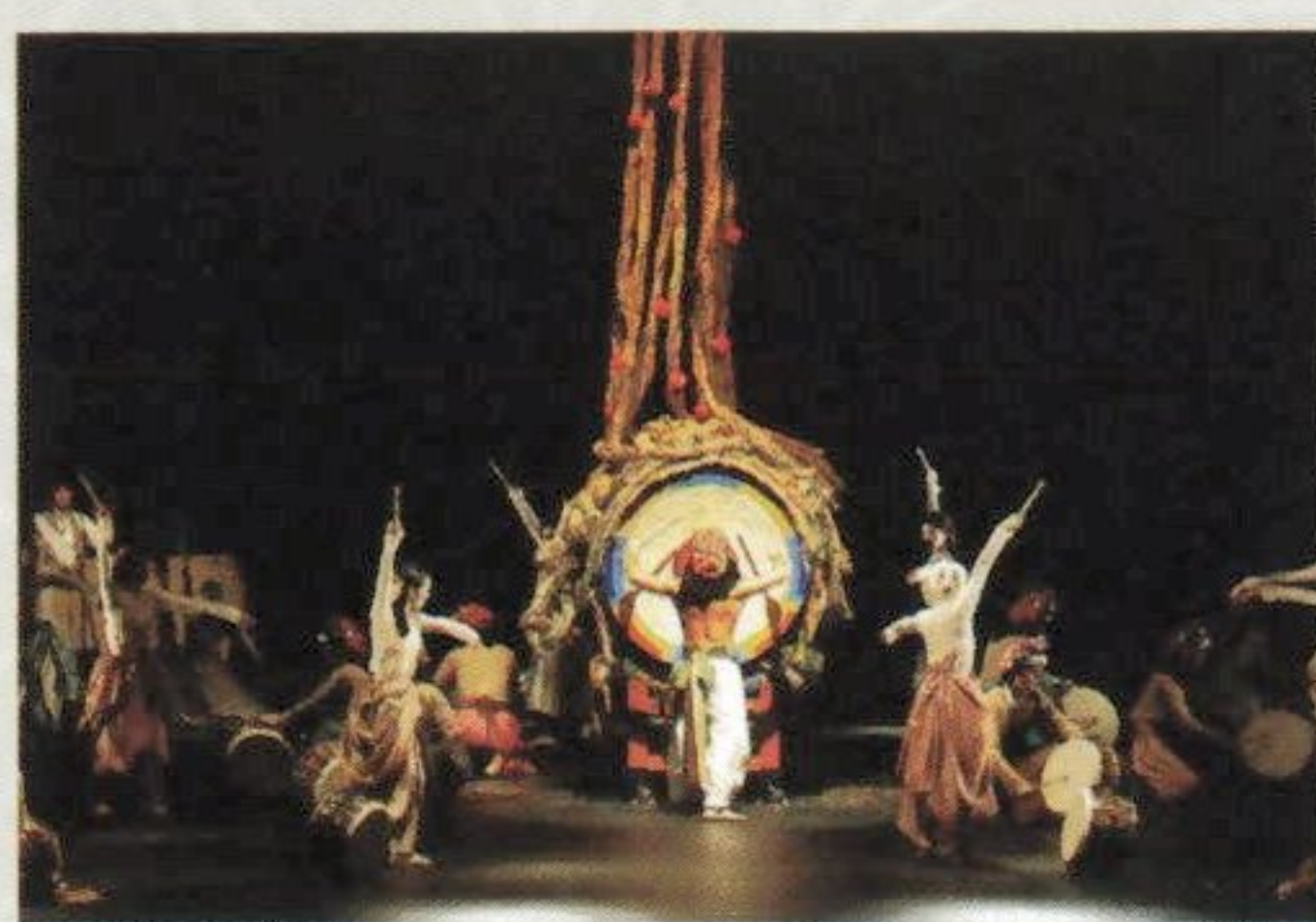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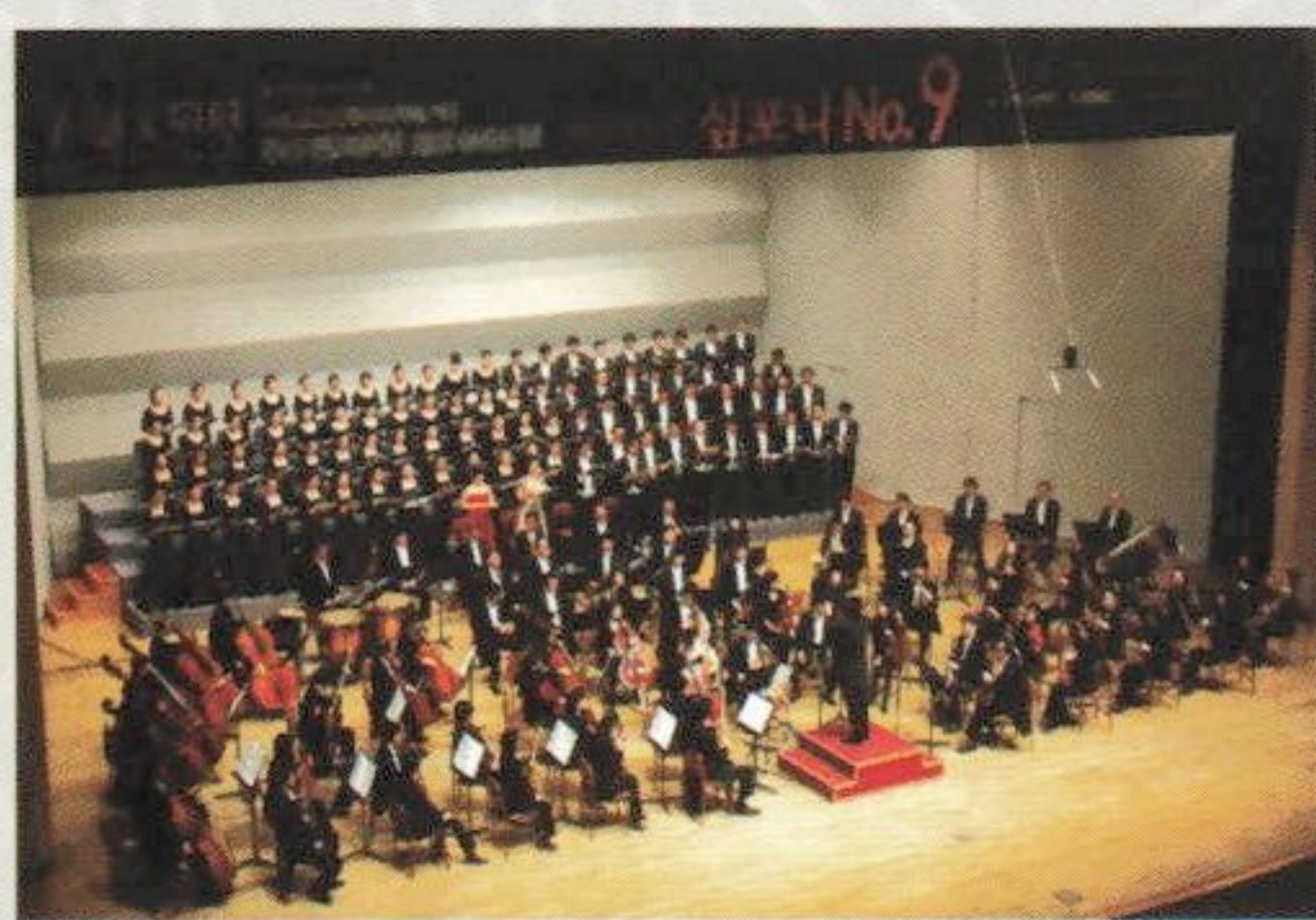
2010 庚寅年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감동의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심을 담은 클래식 음악의 정수

2009년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201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리신차오와 함께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들려주기 위해 의욕이 넘친다.

1월 15일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곽승이 객원 지휘하는 '신년음악회' 를 시작으로 2010년 연주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0년 주요 레퍼토리는 BMW(Beethoven & Brahms, Mahler, Wagner). 지난해 6월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리신차오의 지휘자로서 면모를 담은 연주가 한 해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리신차오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음악의 기초를 다시 확립하고 부산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들려주기 위해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BBB 프로젝트의 전주로 2009년 11월과 12월 베토벤 교향곡 7번과 9번을 연주한 바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0년 한 해 동안 2009년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2곡을 제외한 7곡의 교향곡과 1번부터 4번까지 브람스 교향곡 전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BBB 프로젝트는 베토벤과 브람스 스페셜 리스트를 객원 지휘자로 초빙,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과 브람스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선택한 세 번째 작곡가는 말러. 2010년 말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3월 19일 말러 교향곡 5번과 12월 17일 말러 교향곡 2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4월 전국의 교향악단이 펼치는 2010 교향악축제(예술의 전당)에서도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네 번째 작곡가로는 바그너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오페라 콘서트' 의 두 번째 무대로 10월 22일 바그너 오페라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이 무대에 오른다. 8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는 오페라 '방황하는 네델란드인' 은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가 주를 이루는 부산에서 오랜만에 독일 오페라의 정수인 바그너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부산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외에도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에서는 음악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전하기 위해 '댄스 클래식' 을 테마로 정하고 바로크 댄스(3월 24일),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댄스(5월 20일), 미뉴에트와 스케르초(9월 30일), 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11월 4일)로 흥겨운 무대를 열어줄 계획이다. 10월에는 고양,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켜 기존 시민클래식 교실 외에 미취학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기 위해 악기 체험 프로그램 '악기 가족 이야기' 를 새롭게 기획, 1월과 2월 8회의 공연, 7월과 8월에 4회의 공연을 펼친다. 또 부지휘자 이동신의 해설로 1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 진행되는 '제 3기 시민클래식 교실' 에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 4번 '주피터', 베토벤 교향곡 제 3번 '영웅' 등 8곡의 '결작교향곡' 을 순례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교향곡 9번으로 2009년을 마무리 했다.

향토문화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 선사

201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전 국립국악원장을 지낸 김철호 지휘자를 영입, 의욕적인 신년을 맞는다.

수석지휘자의 공석으로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객원 지휘체제로 운영되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2010년 김철호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신년 활동에 기대가 더욱 크다.

지난 6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7회 정기연주회를 객원지휘하며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진 김철호 지휘자는 연주자와 지휘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우리 음악의 현대화 작업에 열정을 쏟아왔다. 김철호 지휘자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와 러시아 페트로자보스크 국립음악원의 지휘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대금연주자를 거쳐 국립국악원 정악단, 청주시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를 지내고 2003년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립국악원 제 14, 15대 원장으로 재임했다. 국립국악원장 재임 중 정악단과 민속악단에 이어 창작국악단을 창단한 그는 특히 재임 중 국립부산국악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이후 부산시민들이 우리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저변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기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행해온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산국악애호가들에게 더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1월 신년의 기쁨을 연주한 신년음악회, 3월 새봄의 환희를 국악선율로 담아낸 신춘음악회, 4월 북한의 개량악기를 비롯한 특수악기를 소개한 '동행', 시원한 여름밤의 음악선물 '팔빙수같이 시원한 음악회' 등으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2010년은 1월 28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김철호 지휘자는 지난 해 공연들을 바탕으로 2010년 공연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빨리 시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는 지난해 6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객원지휘하면서 받았던 좋은 느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좋은 음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부산만의 매력이 담긴 고유한 향토문화와 국악이 어우러지는 친자연적인 우리 전통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4월부터 9월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구 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펼치고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연주도 2010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본분에 충실하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 국악의 향유층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김철호 지휘자. 그는 단원들의 능력을 믿고 젊고 패기만만한 젊은 연주자와 경륜 많은 연주자들의 조화를 이끌어내 호흡을 맞춰나간다면 침체된 국악관현악단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립국악원장을 지낸 김철호 지휘자와 새롭게 시작한다.

합창이 가진 최고의 매력 선사



“2009년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부산시민과 단원들의 성원으로 2009년 한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12월 23일 수석지휘자 김강규와 함께 송년음악회 ‘나홀로 집에 & Merry Christmas’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부산시립합창단은 2009년 오페라 음악극 ‘운동주’와 ‘엘리아’ 부산 초연 무대로 부산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오페라 음악극 ‘운동주’는 운동주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음악극으로 작곡가 이용주 자신이 서울에서 한차례 발표한 이후 지난 4월 부산시립합창단에 의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오페라 음악극은 음악으로 진행되는 오페라와 대사와 음악이 극의 진행을 이끄는 뮤지컬과 구성면에서 유사하지만 합창의 아름다움을 살린 합창 중심의 음악극이다. 부산 초연당시 오페라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모험과 출연진의 작품 이해도, 소화 능력에 합격점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은 민족시인 운동주의 삶을 되돌아보는 ‘운동주’를 새로운 레퍼토리로 정착시켜 2010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로 4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진 ‘운동주’ 공연을 위해 직접 부산을 찾은 작곡가 이용주는 오페라 음악극 ‘운동주’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부산시립합창단의 공연에 감동해 2010년 일본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음악극 ‘이화이야기’를 작곡, 부산시립합창단에 헌정하고 싶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이용주가 준비하고 있는 ‘이화(梨花)이야기’는 오는 3월 부산 초연을 목표로 대본과 작곡작업이 한창이다. 이화이야기는 그 음악적 아름다움은 차치하더라도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는 교육적인 음악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3월 ‘이화이야기’에 이어 매월 다양한 기획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기연주회에서는 정통 합창음악을, 특별연주회에서는 합창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일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선정하여 합창음악의 매력을 전해준다는 생각이다. 4월에는 합창으로 편곡한 예술가곡, 5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인기 프로그램인 ‘7080 합창콘서트’를 펼치고 6월에는 부산국제합창제에서 2년 연속 그랑프리를 수상한 필리핀의 여성 지휘자 ‘안나 타비타, 피케로’의 객원지휘로 다양한 합창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안나 타비타, 피케로’는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세계합창 축제 대상팀인 마드리갈 싱어즈 등을 배출하며 영국과 미국의 합창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필리핀 합창의 선두주자이다.

하반기 무대는 부산, 울산, 경남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3개 시 도립합창단의 연합무대, 9월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민요를 합창 선율로 만날 수 있는 ‘영국의 합창음악’, 10월에는 부산지역 합창단이 펼치는 부산최고의 합창 축제인 부산합창제, 11월에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 ‘아카펠라’ 무대, 12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 합창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송년무대는 300여명이 넘는 연합합창단을 구성 베토벤 합창교향곡 9번 4악장의 웅장한 선율을 들려줄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오페라 음악극 ‘운동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 호평을 받았다.





시립무용단 고유의 색깔을 담아낸 창작무대 선사

2009년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들 곁으로 가깝게 다가갔던 부산시립무용단이 2010년에도 부산 전역에 흥겨운 우리 춤사위를 알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신년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0년에는 2회의 정기공연과 3회의 특별공연, 구문화회관 순회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2010년 첫 무대는 1월 1일 새벽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맞이 공연. 매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춤사위로 신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그 공연준비로 2009년 마지막날까지 연습에 한창이다.

1월에는 전국의 전통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춤 산책' 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월 20일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우리춤 산책' 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춤 전승에 힘써온 단원들이 매년 익혀왔던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로 승무, 살풀이춤 등 중요무형문화재 춤 뿐만 아니라 산조춤, 설장고춤, 장고춤 등 다채로운 우리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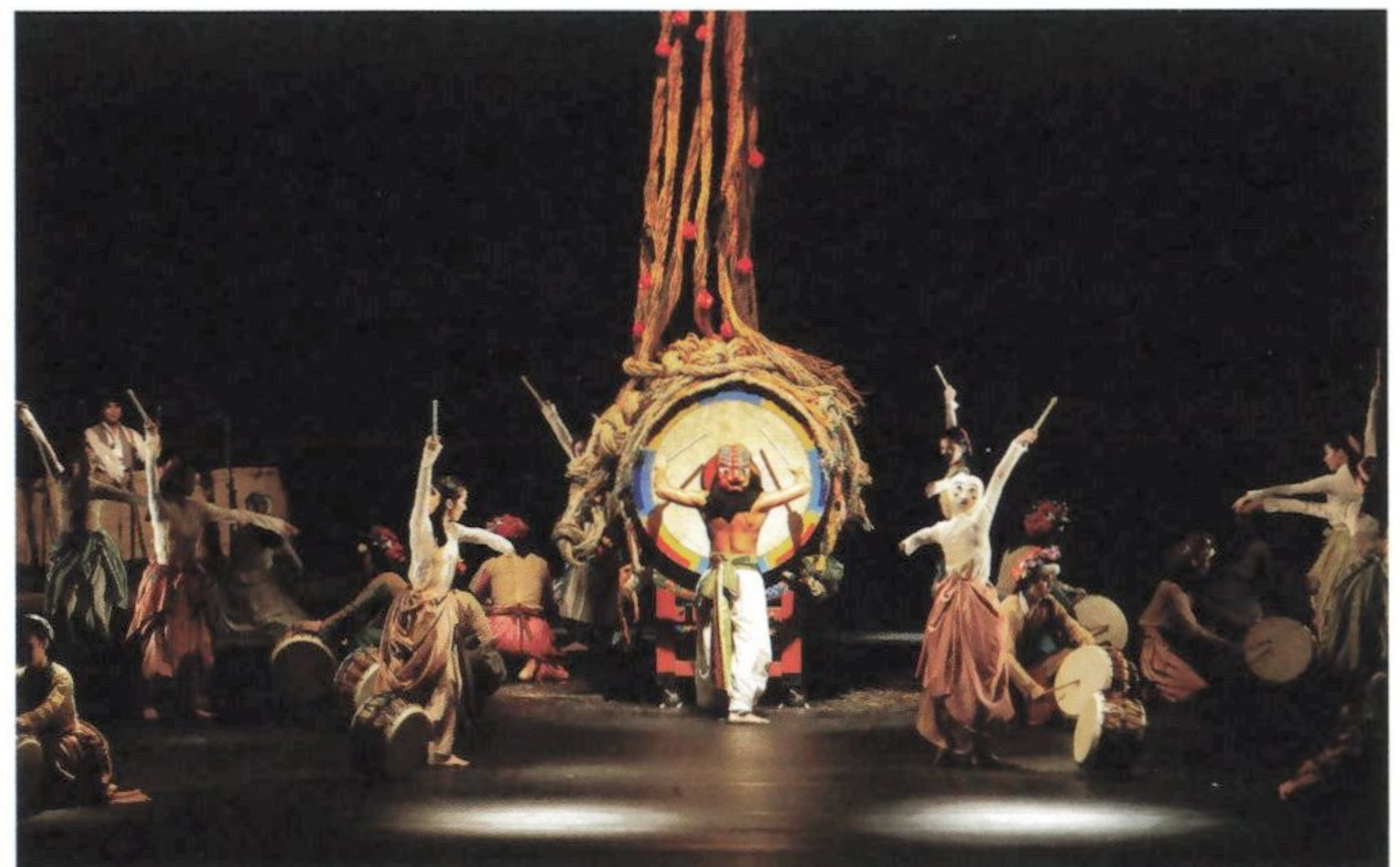
5월과 11월 열리는 정기공연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춤사위를 바탕으로 한 창작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5월 정기공연(5월 27일~28일)은 4월부터 무대공사에 들어가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대신해 장소를 국립국악원 연악당으로 옮겨 작품을 올릴 예정이다. 내용과 함께 극장 규모에 맞는 창작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홍기태 수석안무자는 특히 지난해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 소속 무용단과 차별화되는 시립무용단만의 색깔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고심중이다.

6월에는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지역 구 문화회관 3곳에서 순회공연을 갖는다. 이번 순회공연에서는 지난해 7월 2009 여름마당춤판 무대에 올려져 많은 박수를 받았던 '별주부전' 을 선보인다. 6월 11일은 금정문화회관, 18일, 25일은 동래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칠 예정이다.

2010년 여름마당춤판은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우리의 전통을 해학과 신명으로 풀어내는 마당춤판은 기존 무대에서는 볼 수 없는 단원들의 끼가 어우러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인기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안무한 창작춤을 선보이는 창작무대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8월 20일)' 이 열리며 12월에는 청소년, 장애우를 위한 송년무대를 통해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2010년 올해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겠다는 부산시립무용단은 복지관, 학교, 구 문화회관 등 흥겨운 우리 춤사위를 펼쳐보일 수 있는 장소라면 언제 어디서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열리는 시민교실은 1월(1월 11일~15일)과 7월(7월 26일~30일) 두차례 열린다. 무용교실을 거쳐가는 수료생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찾으면서 우리춤의 후원자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런 수료생들이 무용교실을 통해 배운 춤 실력을 계속 익혀나갈 수 있도록 실제 공연무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천지현황'

재미있는 고전 명작무대 첫선

2009년 12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연출가 김광보를 수석 연출가로 영입한 부산시립극단은 지난 한 해 수석연출가 부재로 침체되었던 극단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의욕적인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신임 연출가 김광보는 대학로를 움직이는 연출가 중 한 사람으로 연극 '종로고양이' '오이디푸스-그것은 인간' '인류최초의 키스' '산소' '프루프' '에쿠우스' '피약별', 뮤지컬 '바람의 나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화제작을 발표했다. 1998년 김광보 연출로 극단 미추가 무대에 올린 '피약별'은 1998년 한국대표희곡 선정, 1998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5 신인연출상 수상, 1998년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수상, 1999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 수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입증 받은 수작이다.

김광보 연출가는 2010년 한 해 동안 정기, 특별공연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의 신진 극작가 발굴을 위한 희곡 공모와 한, 일 연극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교류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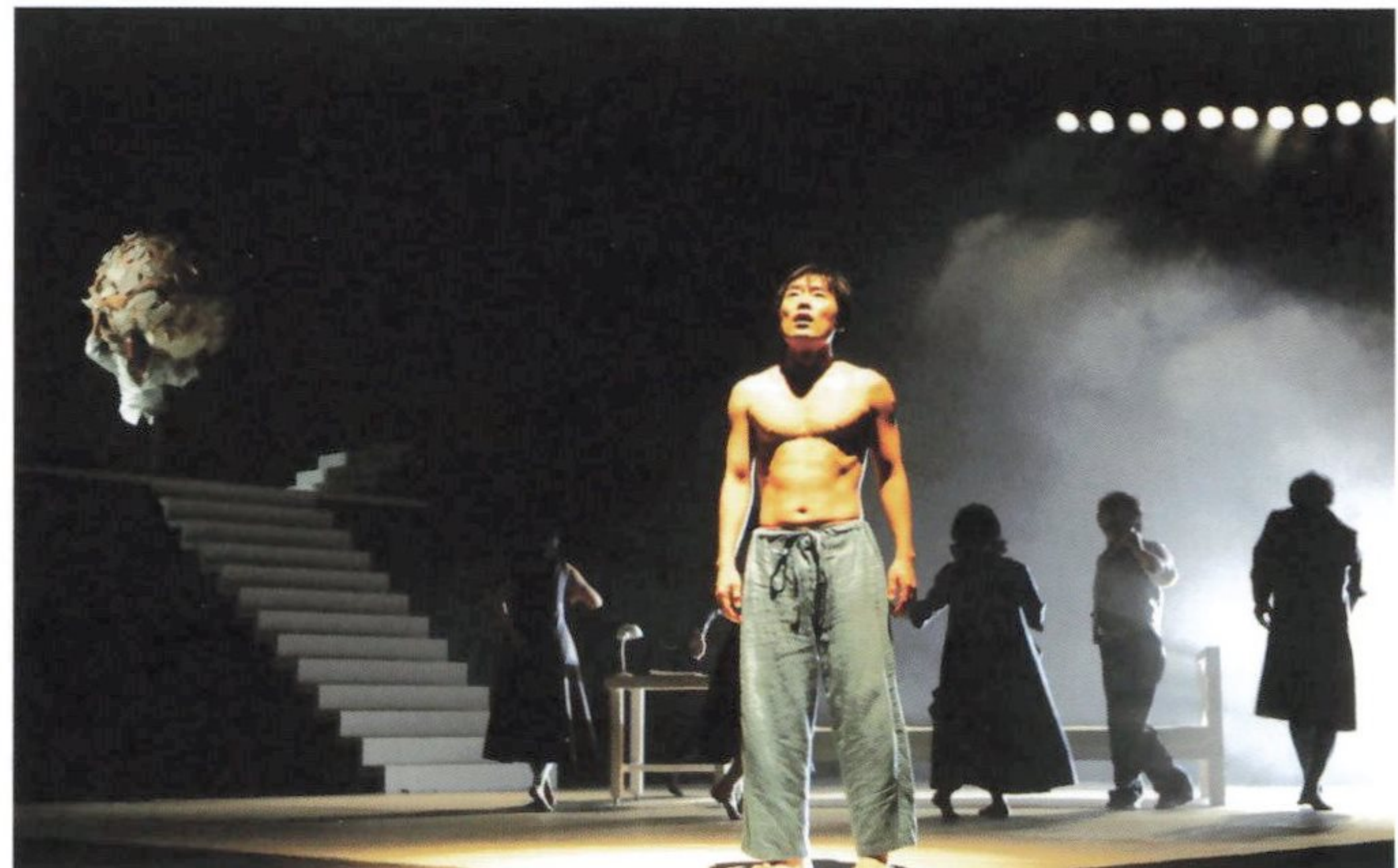
3월 11일부터 3일간 무대에 오를 상반기 정기공연에서는 정통연극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재미있는 고전' 명작 무대를 기획, 그 첫 번째 무대로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를 선보인다.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서도 언어의 화려함이 특히 빼어난 수작으로 꼽히는 '헨리 4세'는 약 100년에 걸친 장미전쟁 시기, 리처드 2세를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헨리 4세가 주인공이다. 탕아처럼 술집을 전전하며 저속한 패거리들과 어울려 부왕이 거의 포기했던 왕자 할. 그가 극적으로 변신해 반란군을 진압하고 프랑스 정벌에 나서는 강력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재미있는 고전 명작무대는 2011년에는 안톤 체홉 '봐냐 아저씨'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0월 7일에는 일본에서 발표된 사카테 요지의 최신희곡 '공연되지 않은 세 자매'로 '동시대 동아시아연극'을 만나본다. 12월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기존 공연 외에 부산 연극발전을 위해 6월경에 희곡을 공모, 5편의 작품을 선정한다. 5작품 중 리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연 가능성을 진단하고 2011년에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2010년에는 부산시립극단이 창단이후 처음으로 '국제 교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로 무대에서 사카테 요지의 작품을 연출, 호평을 받은 김광보는 그 연장선에서 4월과 7월, 10월 3차례 '국제 교류 세미나-한, 일 연극의 새로운 만남'을 개최한다.

4월에는 지역연극의 활로모색에 대해 '삿포로에서 작업하는 이유'의 연출가 사이토 아유무와 3년간 한국과의 교류 활동을 이어온 히라타 슈지가 발제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7월에는 극작가, 연출가인 정의신, 일본 신 국립극장 프로듀스인 이자와 마사코가 '한·일 공공 단체의 교류'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고 10월에는 극작가, 연출가인 사카테 요지, 일본 연극평론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평론가 니시도 고진이 '한·일 40대 연극의 교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추진 중이다.



카프카의 변신을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 '변신, 꿈의 기록'

작품성이 뛰어난 숨은 명곡 선사

“지난 2009년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있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이룬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0년에는 외적으로 성장한 청소년교향악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월 송년음악회를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2009년을 마감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와 단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2010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9년은 청소년교향악단에게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 10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아크로스 후쿠오카홀’ 초청으로 5차례 공연을 가지면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전체가 참여하는 해외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0년 3회의 정기공연과 3회의 특별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연주회에서 프랑스 근대 음악과 근대 낭만음악의 흐름을 되짚어보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 ‘국민주의 음악’과 ‘우리시대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우선 4월 13일 열리는 첫 정기연주회에서는 체코와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적 소재로 작곡된 작품을 통해 19세기 후반 등장한 ‘국민주의 음악’을 살펴보고, 이어서 5월 26일 열리는 제 3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20세기에 작곡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음악사적으로 의미있는 작품들을 선정, ‘우리시대의 음악’을 들려준다. 지난 2006년 지휘자 이동신 씨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맡으면서 시작된 ‘세계음악기행’은 나라별 음악적 특성과 음악사적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래의 음악계를 짚어지고 나갈 주역들로서 무엇보다 진보적이면서도 폭넓은 음악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동신 수석지휘자. 2010년에도 자주 연주되지 않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숨은 명곡들을 선정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동신 지휘자는 연주회장을 자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클래식음악에 입문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온만큼 올해도 초심자들을 위한 편안한 레퍼토리 구상에도 고심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한 해 한 해 연주회를 가지면서 달라지는 단원들의 기량과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 협연무대를 통해 교향악단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우수 단원들이 들려주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7월)’와 송년의 아쉬움을 담은 ‘송년음악회(12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특별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학생으로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단원들이 무엇보다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이동신 지휘자는 단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겁게 연주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작품성이 뛰어난 숨은 명곡들을 선정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오페라 선사

헨델 서거 250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송년무대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헨델 '메시아' 영어 원곡무대를 선보여 2009년 무대를 화려하게 마감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에도 보다 다양하면서도 알찬 무대를 선보인다는 각오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2010년 한해 3회의 정기연주회와 3회의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해외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연주회 '우리들, 작은 이야기' 로 2010년 첫 무대를 연다.

2010년 첫 정기연주회는 3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제 129회 정기연주회 '봄의 소리와 춤' 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과 우리민요, 전통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2010년 새봄의 설렘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다.

또, 여름방학기간인 8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가 수석지휘자 전상철 씨의 해설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음악과 함께 우리국악을 소개, 서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특히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공연에 앞서 8월 17일과 19일 북구문화회관과 영도어울림문화공원에서 두차례 더 공연을 갖는다.

9월 17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제 130회 정기연주회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가장 역점을 두는 공연으로, 창작가족오페라 '콩쥐 팥쥐' 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의 대표적인 연출가 오정국 씨와 부산시립합창단 편곡담당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곡가 최석태 씨가 우리의 고전 '콩쥐 팥쥐' 를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현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임명운 씨를 객원지휘자로 초청, 특별연주회를 가지며, 12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 131회 정기연주회 '다함께 참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로 관객과 함께 201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무대를 갖는다. 이밖에도 2008년 부산을 방문했던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음악회를 위해 3월 성남아트센터에서 순회연주회를 가지며, 10월 30일에는 부산지역 소년소녀합창단과 중고등학교 합창단이 참가하는 제 24회 청소년합창제도 마련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5월 독일음악협회 초청으로 독일 5개 도시 순회연주회길에 오를 예정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독일 라이프찌히 드레스덴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음악회를 통해 국경을 넘은 우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2010년에는 보다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방학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계캠프를 갖는다. 동계 캠프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한국합창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0년 한국 합창심포지엄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시범연주를 갖는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9년 우리나라 최초로 헨델 '메시아' 영어 원곡 무대를 선보였다.

2010년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장 소		1월	2월	3월	4월	5월
대극장	기획	▶ 1/19(화)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 1/28(목) 이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 2/19(금)-20(토)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 '신데렐라' ▶ 2/25(목) 임동혁리사이틀	▶ 3/9(화) 리처드용재오닐 리사이틀		
	예술단	▶ 1/15(금) 교향 신년음악회		▶ 3/5(금) 교향 특별연주회 ▶ 3/17(수) 국악 정기연주회 ▶ 3/19(금) 교향 정기연주회		
중극장	기획			▶ 3/24(수)11:00 웰빙콘서트(교향)		▶ 5/20(목)11:00 웰빙콘서트(교향)
	예술단	▶ 1/28(목) 국악 신년음악회		▶ 3/11(금)-13(토) 극단 정기공연 ▶ 3/17(수)-3/18(목) 합창 정기연주회 ▶ 3/20(토) 소년소녀 정기연주회 ▶ 3/21(일) 외국인을 위한 공연	▶ 4/13(화) 청교 정기연주회 ▶ 4/16(금) 교향 정기연주회 ▶ 4/16(금) 외국인을 위한 공연 ▶ 4/22(목) 합창 특별연주회	▶ 5/13(목)기획공연 7080 합창 특별연주회 ▶ 5/14(금) 교향 정기연주회 ▶ 5/26(수) 청교 정기연주회
소극장	기획	▶ 1/15(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킹스턴 루디스카'	▶ 2/19(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세렝게티'	▶ 3/19(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아시아밴드'	▶ 4/16(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오지은'	▶ 5/14(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이상은'
	예술단	▶ 1/13(클래식교실) ▶ 1/20(수)-22(금) 무용 '우리춤 산책' ▶ 1/22, 1/29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2/5, 2/12, 2/18, 2/26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2/24, 2/25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5/25(화)-29(토) 극단 특별공연
국제회의장		▶ 1/11(월)-15(금) 무용교실(강습) ▶ 1/6, 1/20, 1/27 클래식교실	▶ 2/3, 10, 17, 24 클래식교실			
지역(區)문화회관		▶ 1/21(목) 북구문화빙상센터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2/25(목) 영도어울림문화공원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4/22(목) 금정문화회관 국악 정기연주회 ▶ 4/9(금) 을숙도문화회관 외국인을 위한 공연	▶ 5/27(목) 북구문화빙상센터 합창 특별연주회
순회공연					▶ 4/20(화) 서울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시민회관						
부산국립국악원						▶ 5/27(목)-28(금) 무용 정기공연

※이 공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7/22-23 무용마당출판(야외무대)			▶ 10/1(금)~7(목) 기획공연 ▶ 10/18(월)~24(일) 기획공연	▶ 11/1(월)~7(일) 기획공연 ▶ 11/22(월)~28(일) 기획공연	▶ 12/10(금)~12(일) 기획공연 ▶ 12/24(금)~27(월) 기획공연 ▶ 12/31(토) 제야음악회
				▶ 10/8(금) 교향 정기연주회 ▶ 10/21(목)~22(금) 교향 '오페라인 콘서트' ▶ 10/28(목)~29(금) 합창 '부산합창제' ▶ 10/30(토)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11/20(토) 교향 정기연주회 ▶ 11/18(목)~19(금) 무용 정기공연	▶ 12/2(목)~3(금) 교향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 12/6(월)~7(화) 국악(청소년) ▶ 12/8(수)~9(목) 합창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 12/14(화)~16(목) 무용 특별공연 ▶ 12/17(금) 교향 송년음악회 ▶ 12/18(토) 소년소녀 정기연주회 ▶ 12/21(화) 합창 송년음악회 ▶ 12/22(수) 청교 특별연주회 ▶ 12/23(목) 국악 송년음악회
▶ 6/10(목) 하늘아래 그 콘서트			▶ 9/23(목)11:00 웰빙콘서트(교향)		▶ 11/4(목)11:00 웰빙콘서트(교향)	
▶ 6/3(목) 교향 정기연주회 ▶ 6/3(목) 외국인을 위한 공연	▶ 7/2(금) 외국인을 위한 공연 ▶ 7/8(목) 교향 정기연주회 ▶ 7/9(금) 청교 특별연주회 ▶ 7/9(금) 외국인을 위한 공연 ▶ 7/10(토) 합창 특별연주회 ▶ 7/23(금) 교향 부산음악콩쿠르 축하연주	▶ 8/12(목) 외국인을 위한 공연 ▶ 8/17(화)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8/20(금) 무용 기획공연 ▶ 8/21(토)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8/24(화),25(수) 교향 특별공연	▶ 9/2(목) 외국인을 위한 공연 ▶ 9/9(목)~12(일) 소년소녀 정기연주회 ▶ 9/16(목) 교향 특별연주회 ▶ 9/17(금) 합창 특별연주회 ▶ 9/29(수) 청교 정기연주회	▶ 10/5(화) 외국인을 위한 공연 ▶ 10/7(목)~9(토) 극단 정기공연 ▶ 10/28(목) 청교 특별연주회	▶ 11/13(토)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11/18(목) 국악 정기연주회 ▶ 11/23(화) 합창 특별연주회 ▶ 11/26(금) 극단 특별공연	▶ 12/1(수)~3(금) 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 7/16(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8/13(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9/10(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10/8(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11/12(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12/10(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 6/1(화)~6(토) 극단 특별공연	▶ 7/15(목), 7/21(수)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7/30(금) 무용교실 강습발표회 ▶ 7/26(월)~31(토) 연극교실(강습)					
	▶ 7/26(월)~29(목) 무용교실(강습)			▶ 10/6(수)~11/24(수) 문화대학(매주 수요일)		
▶ 6/11(금)금정문화회관 무용 마당출판 ▶ 6/18(금)동래문화회관 무용 마당출판 ▶ 6/25(금)을숙도문화회관 무용 마당출판 ▶ 6/24(목)을숙도문화회관 국악 정기연주회	▶ 7/22(목) 해운대문화회관 교향 '악기가족 이야기'	▶ 8/13(금)금정문화회관 극단 특별공연 ▶ 8/17(화)북구문화빙상센터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8/19(목)영도어울림문화공원 소년소녀 특별연주회	▶ 9/28(화) 영도어울림문화공원 합창 특별연주회	▶ 10/21(목) 동래문화회관 국악 특별연주회		
▶ 6/8(화) 동래문화회관 외국인을 위한 공연			▶ 고양합창축제 (9월중-미정)			
▶ 6/17(목) 합창 정기연주회		▶ 8/19(목) 합창 '3개 시도 교류음악회' ▶ 8/27(금) 기획 국악 '팔방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 9/8(수) 교향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빈소년합창단
이 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 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세계 최고의 선율을 들려주는 '빈소년합창단(ViennaBoys Choir)' 과 '이 무지치(I Musici di Roma)' 가 2010년 새해, 한국인의 감성을 울리는 따뜻하고 희망찬 선율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498년 창단되어 50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인 '빈소년합창단'은 1978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든, 슈베르트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빈소년합창단단원으로 활동했고, 모차르트는 이 유서 깊은 합창단을 위해 직접 합창곡을 작곡해주기도 했다. 하이든의 오페레타 '악제

“신이 선사한 천상의 목소리 빈소년합창단”

- 20세기의 전설적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

“이 무지치는 [완벽]이라는 두 글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 음악평론가 버질 톰슨 -

시가라면 쿠바의 코히바 시가를, 적포도주라면
역시 샤토 라피드 로슈르드(Ch. Lafite Rothschild)를

최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비발리 <사계> 연주라면 뭉니뭉니 해도 이 무지치가 최고이다”

- 팜비치포스트 -

사’와 모차르트 오페레타 ‘바스티안과 바스티안느’는 당시 합창단의 고정레퍼토리로 연주되기도 했다.

빈소년합창단이 최초로 순회연주를 떠난 것은 지난 1926년. 인스부르크, 잘츠부르크, 라이헨할을 거쳐 스위스로 순회여행을 떠난 빈소년합창단은 한해 뒤인 1927년에는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1930년에는 스웨덴, 이후에는 프랑스, 미국 등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갔다.

이후 오스트리아 황실의 보호아래 성장해온 빈소년합창단은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빈 국립오페라합창단과 함께 황실 음악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1498년 창단 이래 시작된 전통에 따라 매주 일요일 빈 황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 백여명으로 구성된 빈소년합창단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부르크너 등 총 4개팀으로 나뉘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고 있다.

최근에는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빈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피에르 블레즈,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마리스 얀손스, 주빈 메타, 세이지 오자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객원지휘자로 초청되기도 했다.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는 오랜 전통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레퍼토리 발굴에 노력해온 빈소년합창단은 중세부터 동시대 실험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빈소년합창단은 세계 순회연주회를 통해 그 국가의 다양한 음악을 수집, 새롭게 해석한 ‘월드뮤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2003년 초연된 월드뮤직 프로젝트 ‘실크무대’를 통해서도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 백여명으로 구성된 빈소년합창단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부르크너 등 총 4개팀으로 나뉘어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서고 있다.

즈베키스탄과 중국에서 전래된 ‘과알리’, ‘카잘’과 같은 노동요들을 원어가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 2004년 초연된 ‘해적이다!’에서는 가장 진귀한 보물을 찾아다닌다는 줄거리 속에 예맨, 영국, 자마이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다.

빈소년합창단은 2002년에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팝음악을 녹음하기도 했다. 마돈나, 셀린 디옹, 로빈 윌리엄스의 노래들이 수록된 이 음반은 2003년 베스트셀링 음반으로, 오스트리아 음악상인 아마데우스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또, 각종 영화음악에도



이 무지치 실내악단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영화 ‘프리미얼 피어(미국, 1996)’ ‘13번째 계단(미국, 1999)’,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일본, 2000)’, L.I.E(미국, 2001) 등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담당하기도 했다.

올해 내한 무대는 지난해 슈베르트팀에 이어 모차르트팀이 무대에 선다. 이번 무대에서 빈소년합창단은 그레고리안성가 등 중세 교회음악에서부터 슈트라우스 폴카, 세계 각국의 민요, 최신 팝음악을 비롯해 국내팬들을 위한 우리가곡과 민요, 가요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28일 부산무대를 갖는 이 무지치 실내악단은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신화’, 비발디 〈사계〉 연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실내악단이다. 특히 이 무지치는 한국을 찾을 때마다 화려하고 따뜻한 원숙한 연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다.

‘이 무지치’는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음악인들로 창단되었다. 실내악단 명칭인 ‘이 무

지치’는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이라는 뜻. 당시 로마합주단이라는 바로크 음악 전문연주 단체가 활동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나, 이 무지치의 출현과 함께 그 빛이 퇴색하고 말았다. 이들의 등장은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실내악단으로서 단 한 순간도 정상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

1952년 창단 이래 베니스 음악제, 영국의 에딘버러 음악제 등 유럽의 저명한 음악제에 참가하여 그 연주 실력을 인정받은 이 무지치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추앙받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로부터는 ‘세계 최고의 실내합주단’이라는 격찬을, 미국 음악비평의 태두로 불리는 버질 톰슨으로부터는 ‘세계가 지금까지 들어온 연주 중에서 가장 최고이며, 완벽이라는 두 글자로 밖에 표현 수 없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로버트 셔먼 기자는 이 악단을 두고 ‘완벽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며 완벽한 음향을 내는 그



빈소년합창단

들의 역량에 항상 감탄하고 있다. 또 이 악단은 표현, 균형감각, 섬세한 명암의 대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리듬의 절제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조화된 선율감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6명, 비올리스트 2명, 첼리스트 2명, 더블베이스와 첼발로 주자 각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 무지치는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추고, 이탈리아 사람다운 밝고 쾌활한 기질과 최고급의 실크처럼 윤택하고 유려한 선율미로 오늘날 까지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휘자를 따로 두지 않고 리더인 콘서트마스터를 중심으로 평등한 민주주의식 의사결정 체제로 운영되는 이 무지치는 그동안 펠릭스 아요, 로베르토 미켈루치, 피나 카르미렐리, 페데리코 아고스티니, 마리아나 시르부 등 전설적인 리더들을 계속 배출해 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나폴리 태생의 안토니오 살바토레가 리더를 맡아 왔다.

이 무지치가 연주한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는 일본에서만도 3백여만장의 디스크가 팔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 세인들을 놀라게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판매된 이 무지치의 <사계> 음반은 8,000만장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클래식 음악의 황제'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제 5번에 비견되는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사계> 음반과 함께 이 무지치가 발표한 30여종의 음반은 지금까지 1억 500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자신들의 대표 레퍼토리아자 관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비발디의 '사계(四季)'를 비롯해 퍼셀의 '사콘느', 할보르센이 편곡한 헨델의 '파사칼리아', 프랑크 마르탱의 '피치카토를 위하여'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윤극영의 동요 '까치까지 설날은'이 현악합주 편곡버전으로 연주되어 새해를 맞은 관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6회 정기연주회 2010 신년음악회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곽승



플루티스트 강은정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김성진



발레리나 김희쟁



발레리노 김태운



발레리나 오정은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5일 '2010 신년음악회'로 2010년 첫 무대를 연다.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곽승의 객원 지휘로 신년을 맞은 기쁨과 환희의 무대를 열어 줄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음악처럼 감미롭고 즐거운 한해를 기원하며 플루트 선율, 오페라 아리아, 왈츠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1부 무대는 러시아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동명 소설을 시로프스키가 각색한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와 차이코프스키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회상하면서 쓴 '이탈리아 기상곡',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부에서는 아르디테 '입맞춤',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레하르 오페라 '메리 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과 '봄의 소리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등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왈츠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티스트 강은정,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김성진, 발레리나 김희쟁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플루티스트 강은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블, Lyon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과 Perpignan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루마니아 Black Sea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소프라노 이윤경은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에서 1위없는 2

위 입상, 일본-이탈리아 성악콩쿠르 요미우리 신문사상,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고 '돈카를로' '라트라비아타' '투란도트' '라보엠'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 서왔다.

테너 김성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 한 후 이태리로 유학,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국립음악원,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 전문연주자 과정을 수석졸업하고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콩쿠르 1위, 파리 국제콩쿠르 2위, 이탈리아 엔리코 카루소 콩쿠르 3위,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콩쿠르 2위, 벨기에 베르비에 콩쿠르, 알프레도 크라우스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극장에서 로시니의 오페라 '씨뇨르 부르스키노'의 플로빌레 역으로 데뷔한 김성진은 국내는 물론 이태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콜롬비아에서 다수의 오라토리오 협연 및 독창회 무대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신년음악회 마지막 무대는 발레와 함께 꾸며진다. 부산무용콩쿠르 은상을 수상하고 발레 대중화를 위해 발레 꿈나무를 양성해온 김희쟁과 발레리노 김태운, 발레리나 오정은이 출연하여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발레를 선보인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이전가입자는 회원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예약해 주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0 우리 춤 산책



●1월 20일-22일 수요일-금요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이 경인년 새해 우리춤 산책으로 무용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우리 춤 산책’은 평소 우리춤 전수 교육을 틈틈이 받아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와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승무, 살풀이춤 등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 춤 뿐 아니라 산조춤, 설장고춤, 장고춤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이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이현숙 단원이 들려주는 우리 춤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정, 중, 동의 미가 살아있는 우리 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1월 20일 첫 무대는 부수석 단원 김동숙의 지전춤으로 연다. 지전춤은 망자의 넋을 불러 원한을 풀어주고 극락으로 보내는 춤으로 널리 공연되고 있다. 그 외 수석단원 장래훈은 짜임새 있는 가락을 몸 동작인 춤으로만 표현하는 ‘이척류 산조춤’을,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은 민요에 맞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흐름과 고색적인 멋으로 구성된 ‘장고춤’을 선보이고 서정숙은 전통춤 움직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춤인 ‘입춤’을, 이화성 단원은 도당굿 일곱 거리를 끝내놓고 모든 조상과 신을 만나 척과 한을 풀어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마무리 춤 ‘김숙자류 도살풀이’를, 허태성, 강모세 단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문둥북춤을 신명나게 풀어낸다.

1월 21일 둘째 마당에서는 윤은하 단원이 불교 의식 춤의 개념과 복식을 바탕으로 세속에 전해진 중요무형문화재 제 26호 ‘한영숙류 승무’를, 황대현 단원이 학의 고고하고 우아하며 여유롭게 노니는 형상을 모방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을 선보이고 부수석 단원 김진영은 1950년대 이매방 선생이 경기도 당굿과 전라도당굿의 무당춤을 기본 춤사위로 무대화한 ‘대감놀이’를, 수석단원 권봉정, 단원 오수연은 즉흥성과 신명이 돋보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진도북춤’을, 오숙례 단원은 흥과 멋이

살아 있는 섬세하고 독창적인 ‘산조춤’을, 김주연 단원은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춤사위와 발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 있게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낸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김공주, 김윤호 단원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무용적인 요소가 듬뿍 담긴 ‘김병섭류 설장고’를 선보인다.



설장고춤

1월 22일 셋째 마당에서는 서현미 단원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이매방류 승무’, 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단원은 연주가락에 맞추어 소고를 들고 애절하게 한을 달래다가도 흥겹게 몰아치는 ‘최종실류 소고춤’, 수석단원 정진희는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화시켜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멋이 살아있는 ‘산조춤’, 류권홍, 조은미 단원은 두 개의 북채로 흥겹게 북을 치며 추는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그외 이성원 단원은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 ‘한량무’를, 박창희 단원은 음악적인 요소와 몸동작이 어우러지는 무용적 요소가 뛰어난 ‘설장고춤’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둘째마당과 셋째마당에서 선보이는 산조춤, 진도북춤, 이매방류 승무와 한영숙류 승무 등을 비교 감상하며 우리 춤의 다양성을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_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9월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연극 '베니스의 상인'

● 1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3:00,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샤일록 오현경



포샤 윤석화



안토니오 정호빈



बाट사니오 한명구

지난 해 가을 부산귀향을 선언한 연출가 이윤택이 1월, 신작 '베니스의 상인' 으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명동예술극장 개관기념 작품으로 초연된 '베니스의 상인' 은 이윤택의 서울 체류 마지막 연출 작품으로 정통과 리얼리즘 연극배우 오현경(73)이 샤일록 역을,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여배우 윤석화가 남장 여인 포오샤역을 맡아 연기 앙상블을 펼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동안 고전극에서 현대극, 정통극에서 창극, 뮤지컬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이윤택은 16세기 셰익스피어 극의 양식을 되살려 그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표현력이 살아있는 '베니스의 상인' 을 재창조해냈다. 인간 군상에 대한 통찰

과 그 삶이 가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대와 지역을 넘어 현재의 관객들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베니스의 상인' 통해 연출가 이윤택은 21세기 현대의 관객들에게 진정한 사회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셰익스피어 극의 원형으로 돌아가기 위해 뮤지컬 '레미제라블' 초연에서 안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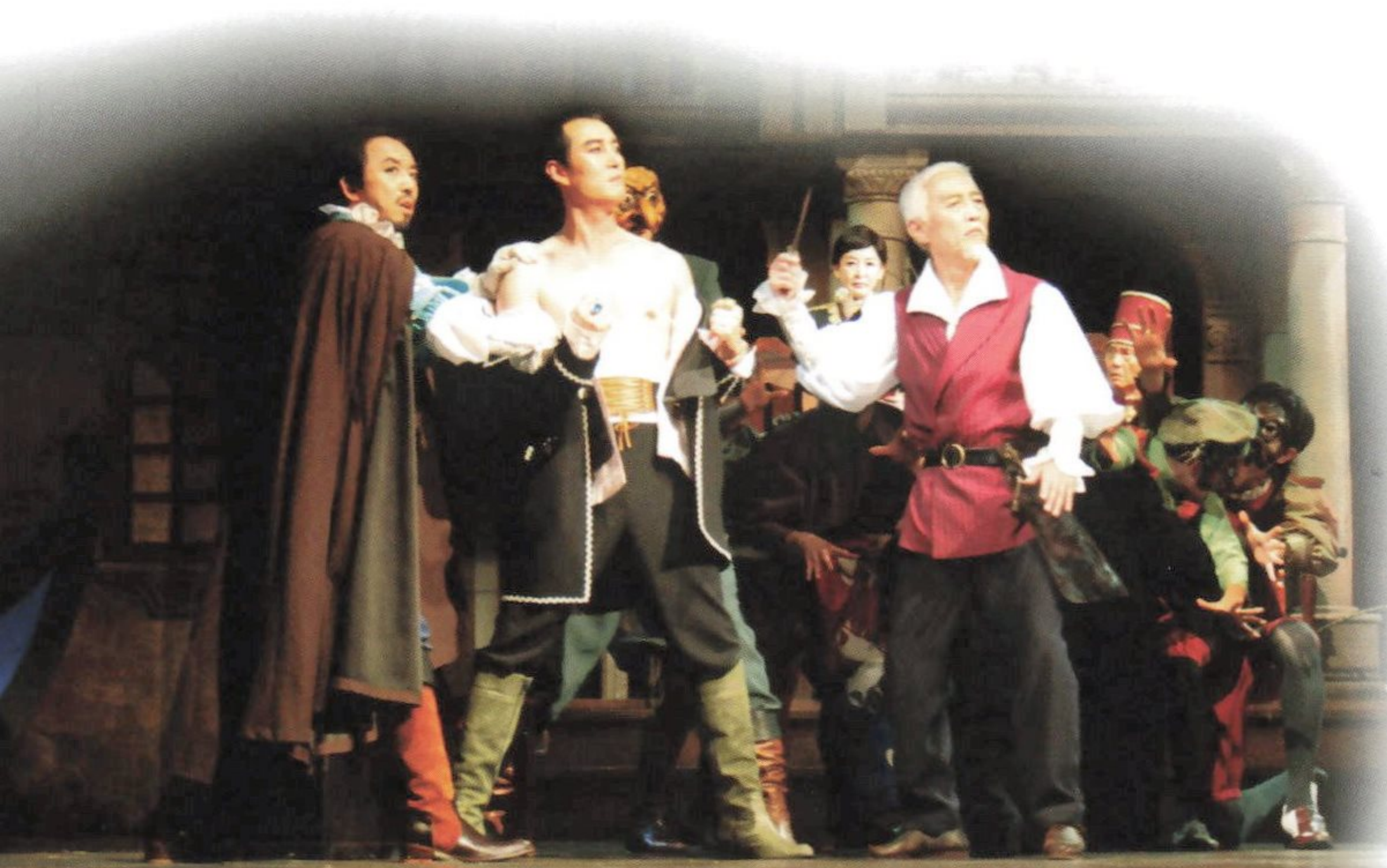
맡았던 영국의 케이트 플랫(Kate Platt)이 안무에 참여, 비언어적 묘미를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끌어내면서 셰익스피어 극에서 두드러졌던 익살을 살려냈다. 그 외에도 '21세기' 라는 현대성을 가미하여 랩과 비트박스를 곁들인 대사로 극 중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16세기 극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

샤일록에게 살 1파운드를 내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안토니오역에는 드라마 '선덕여왕' 에서 국선 문노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인 정호빈이 캐스팅 되었고, 바사오니 역에는 극단 목화 출신의 중견배우 한명구(극동대 연기예술과 교수), 샤일록의 딸 제시카 역에는 극단 골목길의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에서 열연을 보인 주인공, 연인 로렌조역에는 연희단거리패 출신 지현준이 맡는 등 국내 명문극단 주연 배우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외 김미숙, 이승현, 한상민, 염순식, 이정육 등 부산 가마골소극장무대에서 자주 만나는 연희단거리패 대표 배우들이 출연한다.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명례 교수가 의상디자인을 맡아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의상 40여벌을 제작,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 관람료 _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_ 가마골소극장(1588-9155)



말러의 음악은 정말 난해한가?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웹서핑을 하다보면 말러의 음악이 감상에 있어 어렵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복잡하다, 난해하다, 들을수록 모르겠다, 산만하다, 윤곽을 잡기 힘들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과장이 섞여 있기도 하다. 도대체 음악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일



말러의 음악은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색채와 형태가 주는 추상적 아름다움에 눈뜨게 한다.

까? 음악은 연산과정을 통해 답을 내는 수학기제처럼 난이도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음악이 감정이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대체로 난해하다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경향이 있다. 즉 음악 자체는 난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향곡 초심자들이 말러의 음악에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말러의 어법이 통상적인 고전음악의 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러의 음악은 베토벤이나 브람스처럼 적은 소재를 통해서 경제성 있게 꾸려나가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엄청난 길이를 채워야 하는 만큼 그 음악의 소재도 다양할 뿐더러 음악을 전개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방만한 편에 속한다. 예측할 수 없이 음악이 흘러가는 '의외성'이 높고 디테일이 전체의 윤곽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말러를 감상할 때에는 일본의 음악평론가 와타나베 히로시의 저서 '청중의 탄생'에 소개된 것처럼 실시간으로 세부를 음미하는 전혀 새로운 청취 유형이 필요하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음악을 오래 들은 애호가일수록 말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러와 친해질 수 있을까? 말러의 음악이

전혀 와 닿지 않는다면 잠시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저 가끔씩 들어보는데 이때 한 자리에서 1악장부터 종악장까지 모두 들으려 하지 말고 한 악장씩 따로 떼어 들어보는 것이다. 만약 조용하게 본인만 운전하는 차 안이라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5번 4악장이나 6번 3악장처럼 서

정적이고 느린 악장을 듣는 것도 좋고, 3번 5악장이나 4번 1악장처럼 경쾌하고 발랄한 악장을 듣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부터 제 1주제니, 여기서부터 제 2주제니' 하는 식의 고전적 음악 분석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저 순간순간의 음향과 감정에 자신을 몰입해보라. 그렇게 한 악장씩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교향곡 전체가 자신의 마음에 크게 와 닿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말러 애호가들은 그 때를 초기 중독증상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주위에 말러 공연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쯤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악단이 수준 이하의 최악의 연주를 펼치지 않는 한 말러의 경우는 실연의 감동이 음반의 감동보다 극히 우월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러 음반만 1,000장 넘는다', '말러 1번 공연만 10회 이상 보았다', '말러 교향곡 8번을 판소리로 완창할 수 있다'는 식의 중증환자(?)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말러 음악은 결코 난해하지 않다. 단지 진입장벽이 높을 뿐. 생각해보면 인간사회에서 손쉽고 가볍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큰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들게 자기 것으로 만든 음악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법이다. 그리고 말러를 듣는 데 있어 생각만큼 많은 힘이 들지도 않는다.



21세기 문화의 세기, 부산의 문화 르네상스를 꿈꾼다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저명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큼니다.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부산시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늘원문화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김형양 국장은 2010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2년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재임하며 부산문화에 대한 애착이 더욱 깊어졌다는 김국장은 21세기는 문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새해에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자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산시 문화 체육 관광분야

“부산은 천혜의 자원인 바다와 강, 산과 온천이 어우러진 사포지향(四抱之鄉)의 도시로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있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시민 정서 등의 장점이 많아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전반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21세기는 문화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에 사람과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문화 비즈니스의 시대라고 강조하는 김국장은 세계 유명도시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며 기품 있는 문화도시 부산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다.

“오늘의 뉴욕이 돈이 많아서 세계 제1의 도시로 올라선 것은 분명 아닙니다. 뉴욕의 문화가 뉴욕의 경제를 만들었고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한 해 4백만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탄광과 테러도시로 유명했던 스페인의 빌바오市가 구겐하임미술관 유치로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김형양 국장은 어느 지역이나 고유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지만 문화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도시의 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시의 성공 사례처럼 문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도시경제를 살찌우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문화행정의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문화환경과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금정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금정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고민을 하기도 한 김국장은 앞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고유 문화자산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 새로운 것에 대해 항상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갖는 것과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향유자들과의 소통자로서의 역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부산은 천혜의 자원인 바다와 강, 산과 온천이 어우러진 사포

지향(四抱之鄉)의 도시로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있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시민 정서 등의 장점이 많아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김 국장은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강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기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해에는 우선 문화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바로 부산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1988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로 인해 대형 작품 공연이 어려웠던 부산문화회관이 22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화제의 공연을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올릴 수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0월이면 새롭게 변모할 부산문화회관을 상상하며 김국장은 부산문화회관 새 단장 사업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2010년은 지방 문화원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은 물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등을 담당해온 지역 문화원을 연내에 전 구·군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권 대표 비엔날레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부산비엔날레는 안정적 개최를 위하여 제2시립미술관 기능을 수행하는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조선통신사 사업을 역사, 문화, 관광 상품으로 키우기 위하여 범일동 자성대공원 내에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 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 건립되고 있는 두레타운은 지난해까지



30%의 공정을 보였는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산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품 문화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시에서 연극인 이윤택 씨와 작은 규모의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하철역에 1,000여 권의 책을 비치한 북 카페를 열었는데, 역시 인근 주민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가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눌원문화상 행정상 시상금으로 받은 1,000만원 전액을 부산 원도심 지역의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쾌적, 화제를 모으기도 한 김국장은 시청내 공무원 독서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10년 처음으로 예산 1억원을 별도 편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2010년엔 해운대 신시가지, 다대, 화명도서관을 민자 사업(BTL방식)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골목길, 빈 주택, 유희 상가 건물 등 도시의 일상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형 문화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 10월 시작된 동구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월까지 산복도로 일대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조형물 제작, 전망대 설치, 벽화작업,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부평동에 들어설 창작지원센터는 1월 중 전시 및 창작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동광동 40계단 일원에 조성될 원도심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른 시도에서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가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부산에 살다보면 정작 우리 부산의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북쪽 산정으로부터 남쪽으로 ㄷ자형을 이루는 금정산성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물길과 오밀조밀한 부산의 도심 풍경은 언제 봐도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부산에는 천년고찰인 범어사를 비롯해 시민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국장은 이러한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맞이축제(1월), 조선통신사 문화행사(5월), 강 스포츠축제(6월), 바다축제와 부산국제록페스티벌(8월),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10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4~10월) 등 부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사계절 축제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부산이 독창성을 가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는 새해에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이 보다 좋은 창작여건에서 부산의 역사성, 역동성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한다. 부산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러한 문화 사업에 지역의 기업인들이 함께 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형양 국장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부산시민의 기질들을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되게 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예총 등 문화관련 단체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부산다운 매력이 살아있는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김형양 국장. 부산의 맛과 멋을 아는 진정한 부산 사나이의 열정이 있어 2010년 새해 부산 문화계는 희망이 넘친다.

고대 켈트족의 신비, 켈트 음악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켈트 음악은 고대 켈트족의 전통을 지켜온 문화권의 음악이다. 휘슬, 피들, 백파이프와 같은 독특한 전통 악기들의 소리와 청아한 목소리의 여성 보컬,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고대의 신비로움 등은 켈트 음악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이다. 가장 주목 받는 지역으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영국섬 지역이다. 또한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과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지방이 이 문화권에 속한다. 한편 잉글랜드의 핍박을 받던 영국 지방 켈트의 후손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해 그곳에서 그들만의 전통이 담긴 문화를 이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정착해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사람들 역시 가난과 기근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으로 많은 수가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켈트족은 인도·유럽어족의 일파로 B.C. 2000년경부터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던 민족으로 전해진다. 그리스인들이 켈토이(Kelttoi)라고 부르던 민족이 이들이라는 설을 비롯해 켈트족에 대한 많은 추측과 학설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된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한 때 흑해에서부터 아일랜드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켈트족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아직 청동을 이용하고 있을 때 이미 철을 구사한 강력한 민족이었다. 하지만 로마와 게르만의 침입으로 영토를 잃고, 프랑크족과 앵글로 색슨족에게도 침공을 당하면서 유럽의 서쪽 끝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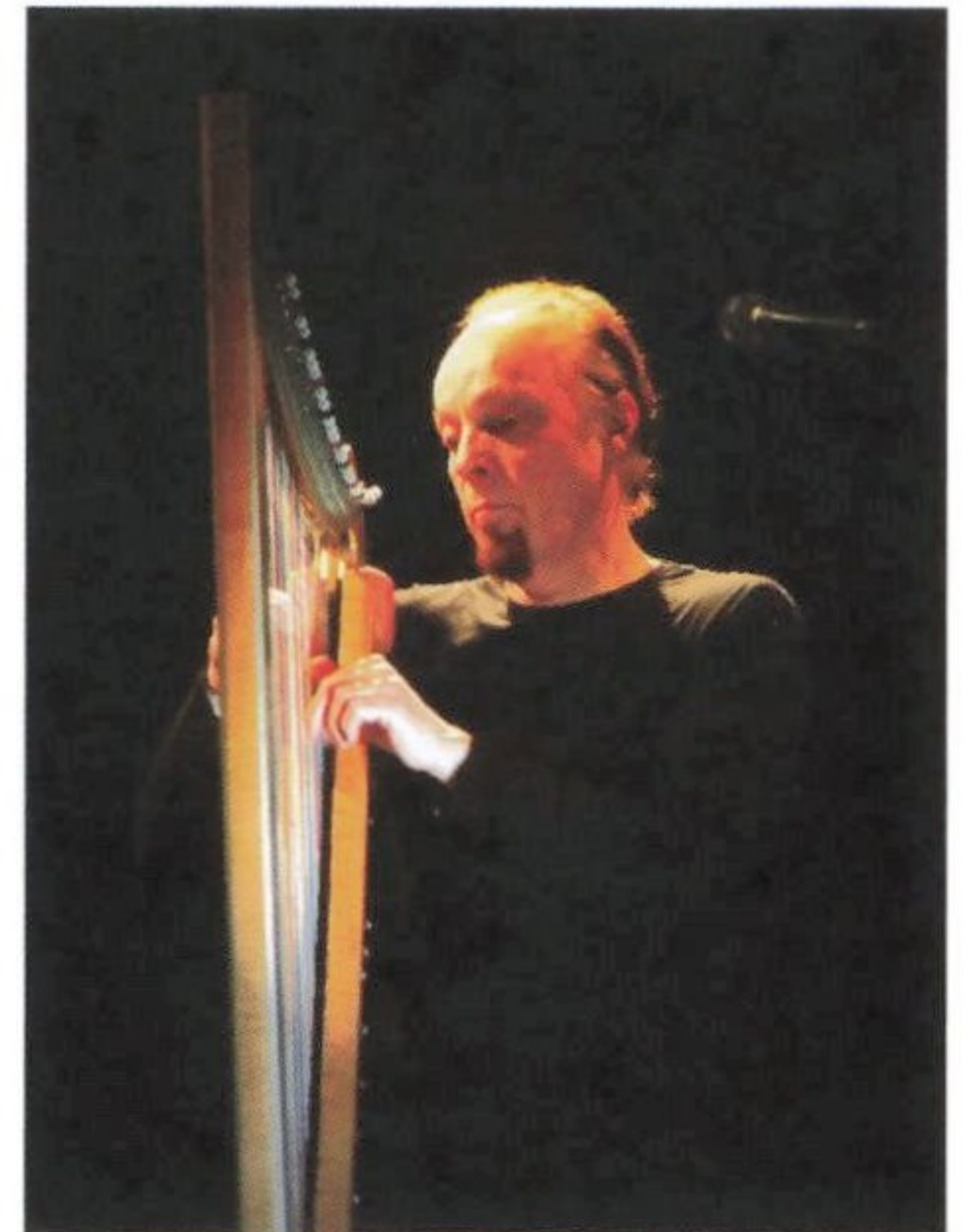
고대 켈트 족은 풍요롭고 예술적인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었다. 호전적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신성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이 공존했다고 한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요정들도 이들의 문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켈트 문화의 신비로움은 음악 외에도 문학과 미술 등 여러 분야를 통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카멜롯의 전설'을 비롯해 켈트의 문화는 영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기도 했다. 잉글랜드의 지배에 항쟁하던 스코

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그린 '브레이브 하트'가 그랬고, 소설 '반지의 제왕'이 영화로 제작되어 대단한 히트를 기록하며 켈트 문화의 단면으로 추측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켈트 음악은 고대 켈트족이 이루었던 문화 속의 신비

로운 아름다움을 담은 음악이며, 켈트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각 지역의 역사와 정서가 반영된 음악이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아일랜드의 음악일 것이다. 그저 켈트 음악의 한 부분으로 쉽게 분류해 버릴 수 없는 아일랜드의 음악은 그들만의 아픈 역사가 반영되어 있어 더욱 각별하다. 켈트 문화의 신비로움과 함께 역사 속에서 지니게 된 한의 정서가 소박하면서도 애상적인 감성으로 다가 온다. 피들, 휘슬, 아코디언 등으로 표현되는 아일랜드의 음악은 민요와 춤곡을 비롯한 방대한 음악 유산이 밑바탕이 되어 인간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특별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켈트 음악은 켈트 문화의 복원과 재발견 속에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월드 뮤직을 이야기 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알랑 스티벨(Alan Stivell)이나 얀 티에르센(Yann Tiersen)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음악들도 주목받고 있으며, 까를로스 누녜스(Carlos Nuñez)라는 젊은 거장의 활동으로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역시 켈트 음악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켈트 음악 페스티벌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켈트 문화권의 결속을 다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첫눈이 다녀가신 이유

정일근 _ 시인



사진/정일근

은현리에 밤새 첫눈이 조용조용 다녀가셨습니다. 하늘이 발꿈치를 들고 제 적빈한 마당에도 다녀가셨나 봅니다. 목련나무 우듬지의 꽃눈마다 하얀 미사보를 쓰고 첫눈에 대한 감사의 새벽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 꽃눈 속에는 겨울 속에서 봄을 밝히는 목련꽃이 숨어 있습니다. 목련꽃 그 순결한 잠으로도 첫눈의 은총이 스며들어 꽃눈은 밤새 가슴 두근거리며 깨어있었을 것입니다.

눈이, 첫눈이 오시는지 모르고 잠들어 있었던 저는 사실 시인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꽃이, 나무가, 새가, 작은 벌레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경건한 자세에 비하면 흔히 사람을 자연의 일부라 하는 비유는 저와는 아직 먼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새해 첫날의 일출이 우리에게 언제나 붉고 감동적이듯 첫눈도 그 '첫'이란 접두사의 힘이 서정과 시를 만듭니다. 더욱이나 눈이 귀한 북위 35도선 아래 따뜻한 주소를 가진 사람들에게겐 첫눈에는 첫 만남, 첫 사랑, 첫 키스와 같은 가슴 설렘이 또 다른 선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첫눈을 선물 받는 날, 저는 그 순백의 은현리 들판 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고 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것도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백지를 받는다고 해도 장강처럼 멀리멀리 굽이쳐 흘러가는 제 마음 다 읽어주실 것입니다.

눈 위에 길을 내는 일만큼 가슴 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첫눈 위의 첫길이며 첫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설원의 들판 위에서 길이란 다음 사람을 위한 뜨거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수돗물 생활을 청산하고 은현리에서 10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3~4도의 기온차이가 나는 시골생활이지만 추워야 맛 볼 수 있는 '겨울의 맛'을 즐겁게 알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의 겨울은 춥기만 할 뿐이지 자연의 겨울은 맛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겨울바람이 불면 모두 웅크리고 종종걸음을 치며 따뜻한 곳을 찾아들지만 은현리에 겨울바람이 불면 아이들이 그 바람을 맞으며 연을 날립니다. 하늘 끝까지 자신의 꿈을 날립니다.

얼음이 얼면 얼음썰매를 타기도 하고 얼음에 갇힌 물속 어린 물고기들을 위해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성자 같은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목련나무만 해도 겨울을 통해 목련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리밭에는 보리가 북풍한설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은 봄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죽었거나 잠든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꿈의 시간입니다. 그런 꿈들을 위해 오늘, 은현리에 첫눈이 다녀가셨습니다.



정 일 근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가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경주 남산> <마당으로 출근하는 시인> <착하게 낡은 것의 영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등의 시집과 연작그림동화 <하나 동생 두나> <내가 꽃을 피웠어요> <우리 친구야 모두 친구야>를 썼습니다.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지훈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울산 시 울주군 웅촌면의 '은현리'란 시골마을에서 꽃을 키우며 시와 동화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상젤리제 거리에 매년 열리는 전통 시장. 말을 탄 경찰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관광객 되기

이 재 걸 _ 프랑스 소르본대학 박사과정

찬바람이 분다 싶더니 어느덧 파리는 한 겨울이다.
선물 보따리를 든 파리지앵들의 발걸음은 분주하고 초콜릿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지루해 보이지만은 않다.

다시 한 번 계절의 옷을 갈아입은 파리는 어린아이 마냥 새해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있다. 상젤리제 거리는 두 달 전부터 이미
수십만 개의 작은 전구들로 수 놓였고 새해를 맞이할 에펠탑은 화
려한 불꽃놀이 준비로 잔뜩 긴장해있다.

젓빛 하늘의 우울함을 달래기라도 하듯 겨울파리의 풍경은 그래
서 유난히 반짝거린다.



샤이오 궁에서 바라본 에펠탑. 전형적인 파리의 겨울하늘이 느껴진다.

그러나 내겐 그저 타국에서의 일상의 한 단편일 뿐 이 모든 변화들에 무감각해진지 이미 오래이다. 아름다운 파리를 정작 나 자신은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관광객들이 가지는 설렘이 다시금 부러워진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나도 관광객이 되어 볼까 한다. 내 '일상 안에서의 여행'이라는 거창한 테마를 연상하며...

나의 관광객 놀이는 하지만 또 매일 타는 파리의 낡은 지하철로 시작된다.

괜찮다. 지하철이 오래되고 작아서 늘 불편했지만 여유를 갖고 보니 정겹기까지 하다. 오랫동안 가난한 유학생의 충실한 발노릇을 해준 나의 소중한 애마가 아니겠는가. 처음으로 고마운 생각이

든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으리.

이런저런 유치한 감상도 잠깐, 어느덧 에펠탑이 있는 역에 도착했다.

서울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63빌딩에 가 본적이 별로 없듯이, 나도 에펠탑에는 딱 한번 올랐을 뿐 이다. 거의 매일 보는 이곳까지의 지하철 몇 정거장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져서였을까? 그저 내 게으름을 탓 할 수밖에...

어쨌든 파리보다도 더 유명한 에펠탑은 1889년¹⁾ 국제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당시 복잡한 철골 구조 만으로 지어진 이 탑은 머지않은 첨단 20세기를 위풍당당히 예고하고



조르주 폼피두 예술센터.



추위로 얼어붙은 콩코드(concorde) 광장의 분수대.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많은 파리지앵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흥족스러운 철근 덩어리로 보여 지기도 했다. 언제나처럼 하나의 혁신은 모든 이의 동의를 구할 수 없나 보다. 박람회 후 철거예정이었던 이 탑은 그 후에도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Icon)이 되었다.

그런 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조르주 폼피두 예술센터이다. 특히 이곳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프랑스 현대미술관은 유럽 최고의 컬렉션

으로 유명한데,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이 박물관 다음의 시대적 계보를 잇는다.

1977년 당시의 공화국 수장이었던 조르주 폼피두 대통령의 명으로 완공된 이 괴상한(?)건축물은 모든 건축적 요소들이 -파이프 관,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장치 등등- 숨겨지지 않고 건물 전반에 드러나 있다. 거기에 더해진 파랗고 빨간 원색들의 조합은 일반인들의 건축 상식을 여지없이 깨어놓는다. 30년 전에는 더욱 그러 했으리라.

이 곳 이층에 자리 잡은 예술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항상 오는 곳이지만 여전히 이 건축물은 나로 하여금 한참을 응시하게끔 한다. 정의 내리기 힘든 낯설음이다.

모더니즘(Modernism)의 열풍을 뒤로 한 채 우연적이고 직설적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시대를 화려하게 상징하고 있는 폼피두 센터. 이 건축물을 지독히 싫어했을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곳에서 책을 고르고, 마티스를 감상하고, 학기말 고사를 준비하고 또한 커피 한잔을 나누며 친구들과 담소도 나눈다. 미술관이 도서관과 서점, 예술 영화관, 카페테리어와 참여 놀이공간 등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지금은 이곳이 예술과 일반 시민들과의 거리를 줄여준 성공적인 예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19세기의 건물들 사이에 뜬금없이 서있는 조르주 폼피두 예술센터는 그래서 사고방식의 전환과 그것을 실제화 할 수 있는 높은 예술적 안목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나에게 프랑스는 이런 곳이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Fromage(치즈)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주 빅뱅 실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운용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환경 보호론자들



1889년 국제만국박람회의 핵심이었던 그랑 팔레의 전경. 2차대전 영웅인 드골 장군의 동상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묘한 이질감을 연출한다.

의 데모도 있고, 첨단 인터넷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동네의 작은 연극 공연장은 만원을 이루고, 본인들은 프랑스가 싫다며 자국에 대한 비판을 강하다 못해 신랄하게 까지 하면서도 그런 의식 있는 프랑스인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이러한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가끔은 꺾꺾하지만 지금의 프랑스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이다.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겨우 몇 군데를 사진에 담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내 게으름이 여전함을 다시 확인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로 향한다.

어머니가 끓여주실 뜨거운 곰국은 없더라고 파리의 내 집은 나를 포근히 맞이해 줄 것이다.

삶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만 있다면 누구라도 관광객들이 가진 '미지에 대한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삶을 누릴 권리는 부나 명예를 가진 자들의 것 만은 아닐 것이다.

모두에게 뜻 깊은 2010년이 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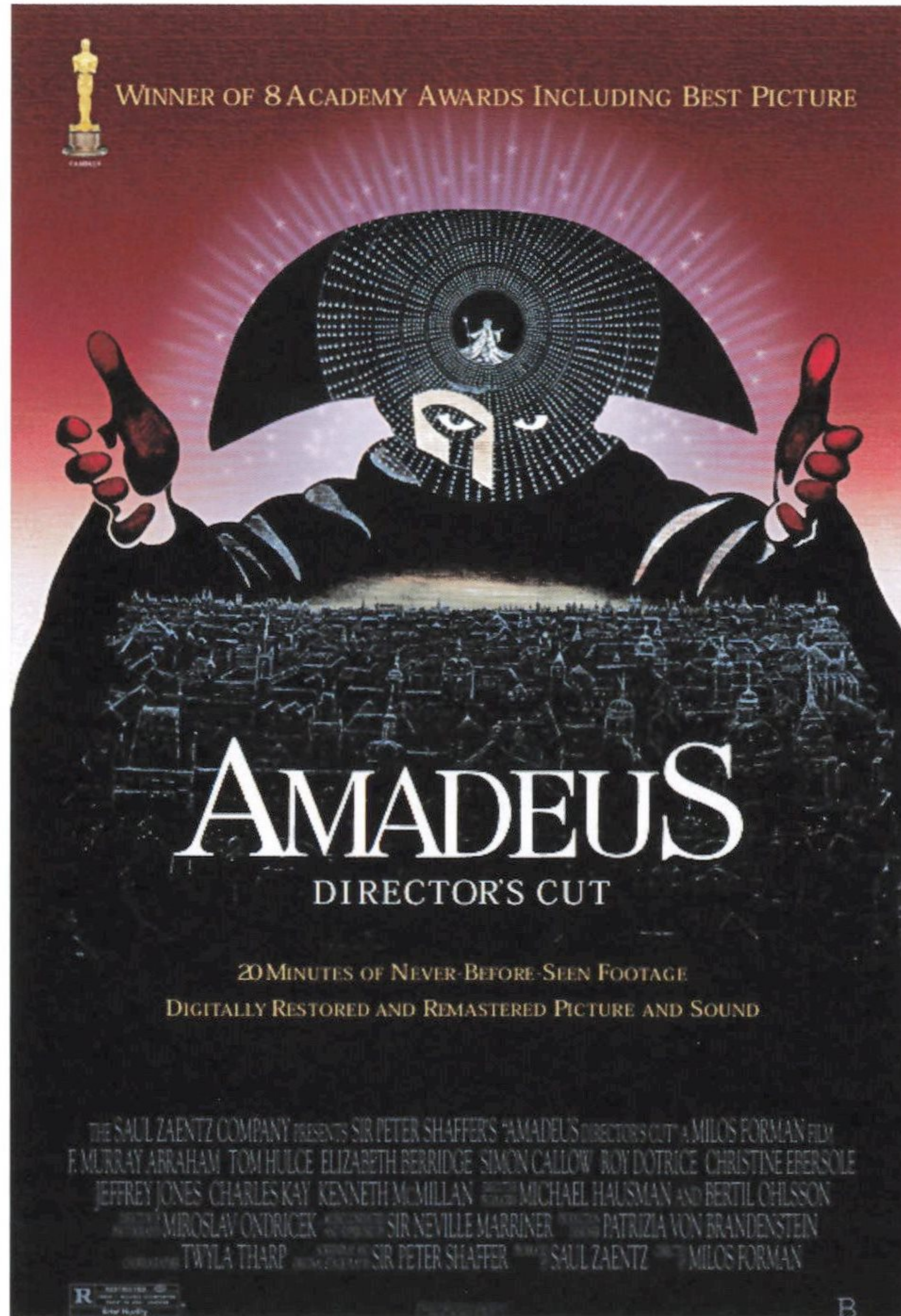
BONNE ANNEE! 좋은 한 해 되시고

BONNE SANTE!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1) 300M 높이의 탑으로써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과 같은 해에 건립되었다.

아마데우스 AMADEUS

이 동 신 _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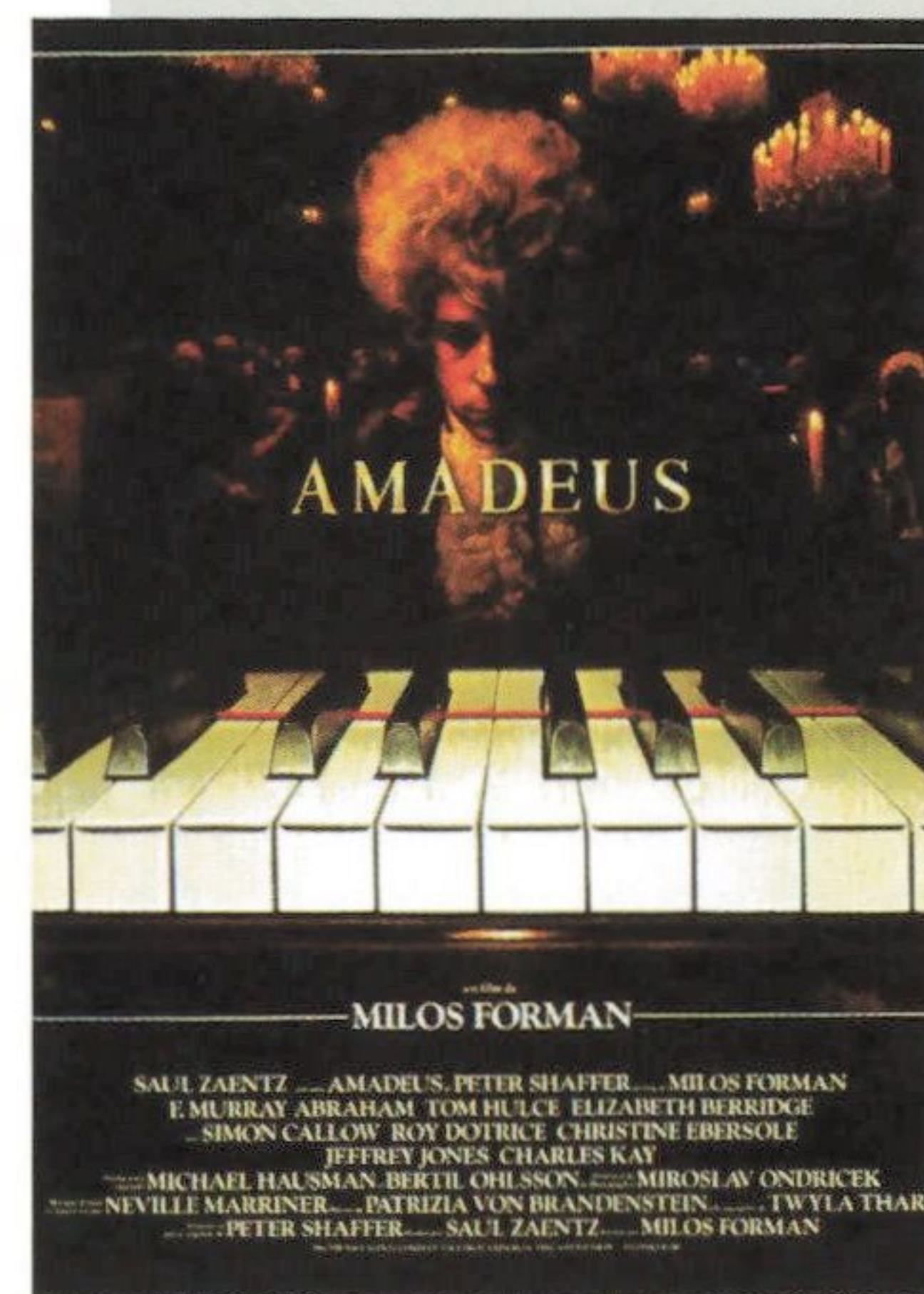
예술가의 생애나 그에 얽힌 일화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는 바로 '천재성'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는 경이롭고 극적인 사실로 다가오거나 경외감 혹은 동경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동은 아마 모차르트일 것이다. 흔히 모차르트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연주와 작곡을 하는 신기한 재주를 부린 신동 정도로만 생각한다. 사실 모차르트보다 재주가 더 많았던 신동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차르트를 음악의 신동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기 때문이다.

1984년에 나온 <아마데우스>는 체코 출신의 거장 감독 밀로스 포먼에게 <뺨꾸기 등지위로 날아간 새>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 작품상을 안겨준 영화이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주인공 모차르트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 살리에리를 등장시킨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했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픽션에 가깝다. 모차르트의 타고난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보다 평범한 인물인 살리에리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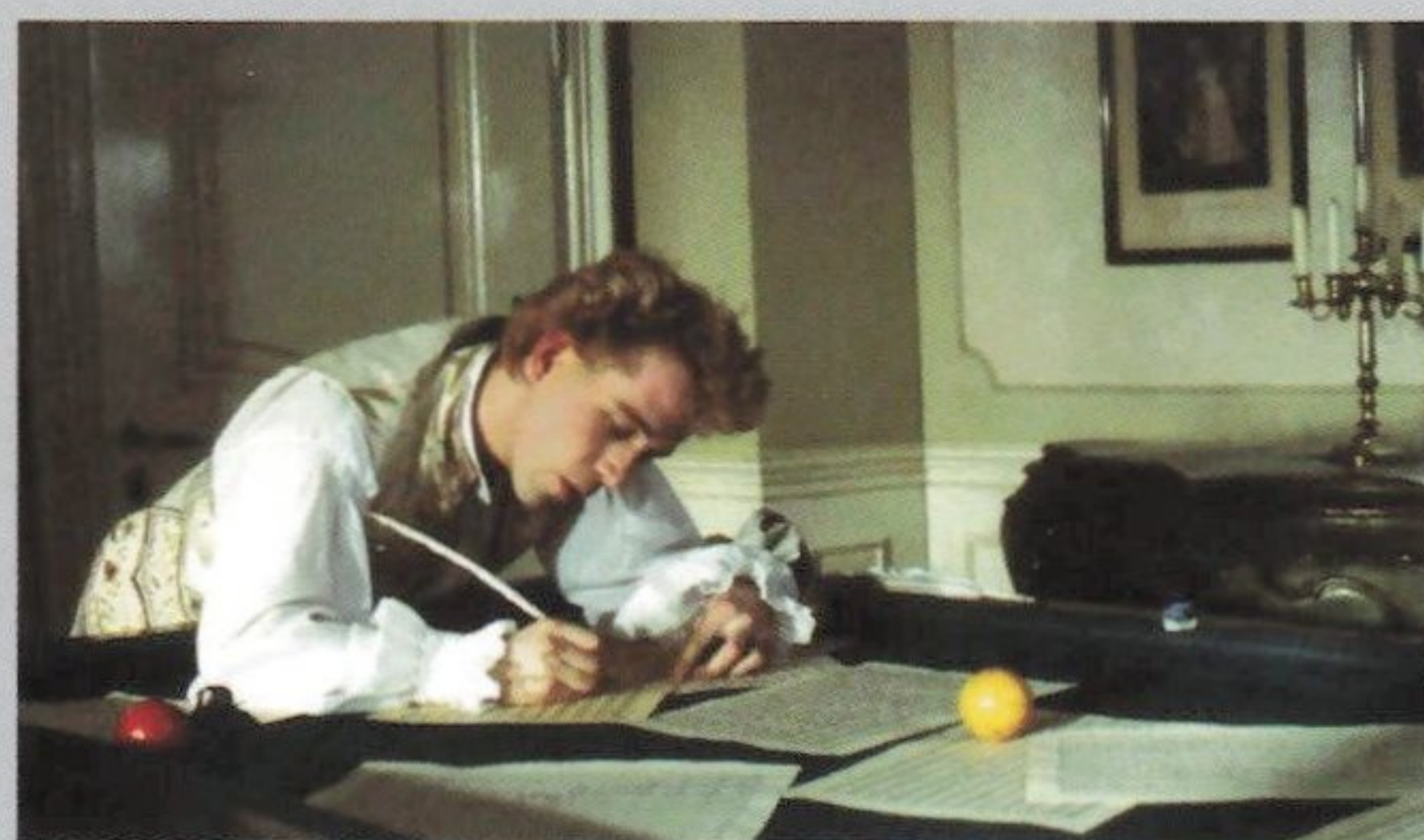
살리에리라는 인물은 그토록 열망하지만 재능을 부여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자이다. 사실 예술 분야만큼 천부적인 재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살리에리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지만 신으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지 못한 불행한 음악가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차르트를 결코 따라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깊은 신앙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건만 신은 그에게 재능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시시껄렁하고 출랑대는 날건달에게 위대한 재능을 허락한 것에 분노하고 절규한다. 위대한 음악가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살리에리는 서서히 미쳐가고 급기야는 모차르트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 영화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살리에리의 처참한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클래식 음악들이 나온다.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답게 곳곳에 그의 음악들을 배치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단순히 가볍고 아름답다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그의 음악에 귀 기울여 보시라. 시작과 함께 들리는 교향곡 25번의 강렬함과 극적인 에너지, 살리에리가 처음 모차르트를 만날 때 나오는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 3악장의 꿈꾸는 듯한 낭만성,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힘차고 화려한 합창,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의 광기, 레퀴엠의 '콘푸타티스'를 작곡할 때 들려오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분노의 소리 등 수많은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이 영화를 빛나게 한다.

<아마데우스>에서 밀로스 포만 감독은 인물에 대한 놀라운 관찰력으로 살리에리의 신에 대한 질투를 밀도 있고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감독의 훌륭한 음악 감각은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감정의 흐름과 정서의 교류에 걸맞은 훌륭한 작품을 완성한다. 밀로스 포만 감독은 모차르트를 현대의 록스타처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돈나의 공연을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영화에 화려한 가발과 의상, 화장 등의 색채를 화려하게 연출한다. 시대적인 배경 덕분에 그 색감이 아주 강하게 와 닿는다. 모차르트 역의 '톰 헐츠'는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출랑대면서도 진지한 연기를 선보여 이 영화를 빛나게 한다. 살리에리 역의 '머레이 에이브러햄'은 분노와 질투를 감추고 다정하면서도 냉정한 모습으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 역할을 소화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영예를 얻는다.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와 잘 짜인 연출과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영화음악을 썼으니 더 이상의 멋진 조합은 없을 것이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8개 부문에서 수상한 영화 <아마데우스>는 음악가를 다룬 전기 영화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작으로 지금도 모차르트의 위대한 음악과 함께 찬란히 빛나고 있다.



아카데미상 8개부문을 수상한 영화 '아마데우스'는 수많은 모차르트 음악들이 빛을 발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송년음악회

베토벤 제 9번 교향곡

신 설 령 _ 음악평론가



베토벤 제 9번 교향곡을 연주한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년 송년음악회.

한 해가 저무는 이맘때면 세계 곳곳에서 베토벤의 제 9번 교향곡을 연주한다. 이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4악장 '환희의 송가'는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어야 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기원을 담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 자신의 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실러가 쓴 대본 중 절반만을 사용했고 그것도 자신의 시적인 관점에 알맞게 재배치했던 것이다. <합창 교향곡>은 음악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곡이다. 베토벤은 음악적 상상력과 유목민적 사고로 막혀 있던 소통의 벽을 깨트리고, 고착된 틀을 깨트렸다. 그는 교향곡에서 성악과 기악이 소통하게 하고, 청중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며, 흠이 패인 익숙한 길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던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리 신차오 지휘자는 이번 연주를 위해 주자들의 위치에 변화를 주었다. 더블베이스가 무대 왼편으로, 그리고 첼로는 무대 중앙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대 왼편 방향으로 옮긴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 1악장 연주를 들으며 현악 저음이 좀 두터워진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배치는 제 4악장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 신차오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지휘로 음악을 이끌었다. 특히 제 2악장에서 빠른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를 일사불

란하게 이끌어 음악의 집중도를 높여 청중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했다. 이 악장에서 매끄럽게 이루어진 관·현의 대화가 인상 깊었다. 필자는 제 3악장을 참 좋아한다. 제 4악장의 폭발적인 전개에 앞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다. 예술이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그것은 병든 현재에 대한 불안과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일 것이다. 베토벤이 제 4악장에 '환희'를 담았다면 제 3악장에서는 어두운 현실, 그리고 그것과의 투쟁, 그 후 힘들게 얻은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평온함을 담지 않았을까? 기대에 부응하듯 이 악장에서 현 파트 앙상블은 아주 좋았다. 음색도 유려했으며 풍부한 정서를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대체로 포르테보다 피아노로 연주할 때 어려움이 있다. 매끄럽지 못한 악기 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악장에서 현악기 앙상블의 유려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휘자의 팔이 가끔씩 무거워 보일 때가 있었다.

제 4악장에서는 저음 현악기가 첫 선율을 이끄는 데 새로운 자리배치가 한 역할을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도입부 주선율이 현 파트를 바꿔가며 연주할 때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악도 제대로 한 몫을 담당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합창 시작 전 관악은 귀빈의 입장이나 연극,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음악이었던 인트라다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맞춰 독창자가 입장하는 연출이 돋보였다.

대체로 청중은 합창 교향곡을 들으며 제 4악장에 모든 기대를 걸고 기다린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지휘자는 집중도 높은, 그리고 강렬한 음향과 잠시도 늦추지 않는 긴장감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청중을 사로잡았다. 독창자들은 짧지만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켰고, 합창을 맡은 부산시립합창단과 포항시립합창단은 정제된 소리로 '환희'를 선물하였다. 베토벤이 그랬던가. "오로지 예술과 과학만이 우리에게 더 좋은 수준의 삶에 대한 암시와 희망을 준다"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러하기를 희망한다.

형식 속에서 내용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김 문 홍 _ 연극평론가



전주시립극단 '춘향은 울지 않는다'

어떻게 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연극은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출자의 관념 속에는 분명 존재하는데 객석 허공에서만 맴돌아서도 안 되지만, 무대 표현의 형식에만 치중하여 내용(메시지)을 간과해 버리는 것도 곤란하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으로 초청된 전주시립극단의 '춘향은 울지 않는다' (곽병창 작, 조민철 연출, 1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의 공연은 무대 표현형식에 치중하다 보니 내용을 놓쳐버린 격이 되어 버렸다.

오토바이와 롤러스케이트가 등장하고 카바레에서 과거에 급제 한 이몽룡이 묘령의 여인을 만나 탕고를 추는 것도, 연출의 변처럼 '춘향전을 오늘의 시각으로 틀고 다시 엮어보는' 실험적 파격성도 좋지만, 최소한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인지를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국적불명의 표현 형식에만 치중하다 보니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모티브가 결여되고, 그러한 개연성을 잃어버리니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모호성에 빠져 버리고 만 것이다.

행위의 모티브가 개연성을 상실하니 춘향이 '월매 극단'을 조직한 근원적인 동기가 없어지고, 방자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몸짓이 도로에 그쳐 버리고, 춘향이 이몽룡을 향해 등을 돌리는 심리적 풍

경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마지막 부분인 어사출두 장면에서 춘향이 이몽룡에게 내적인 의지를 결연하게 표명하며 사랑을 버리는 결정적인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객들은 그 몇 분 안 되는 한 장면만을 보기 위해 그 앞의 쓸데없는 장면을 억지로 보아야 하는 고역을 감내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환상에 참여하여 월매 극단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관객 한 사람 역시 시종일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모호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800석 규모의 중극장에서 배우들의 대사가 객석까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내용의 모호함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배우들의 화술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와 모색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했다. 이번 공연의 근원적인 책임은 연출에게 있다. 무대 표현에 있어서의 '생략과 압축'의 미덕을 무시하고, 시각적 볼거리라는 형식적인 잔재주에만 매달린 결과이다. 무대 표현의 새로움을 위한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에만 치중하다 '무엇'을 놓쳐버린 결정적인 실수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작가의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형식 속에서 길을 잃어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함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공연예술의 상설전용관 시대 열리다

MBC롯데아트홀, 점프부산전용극장, BB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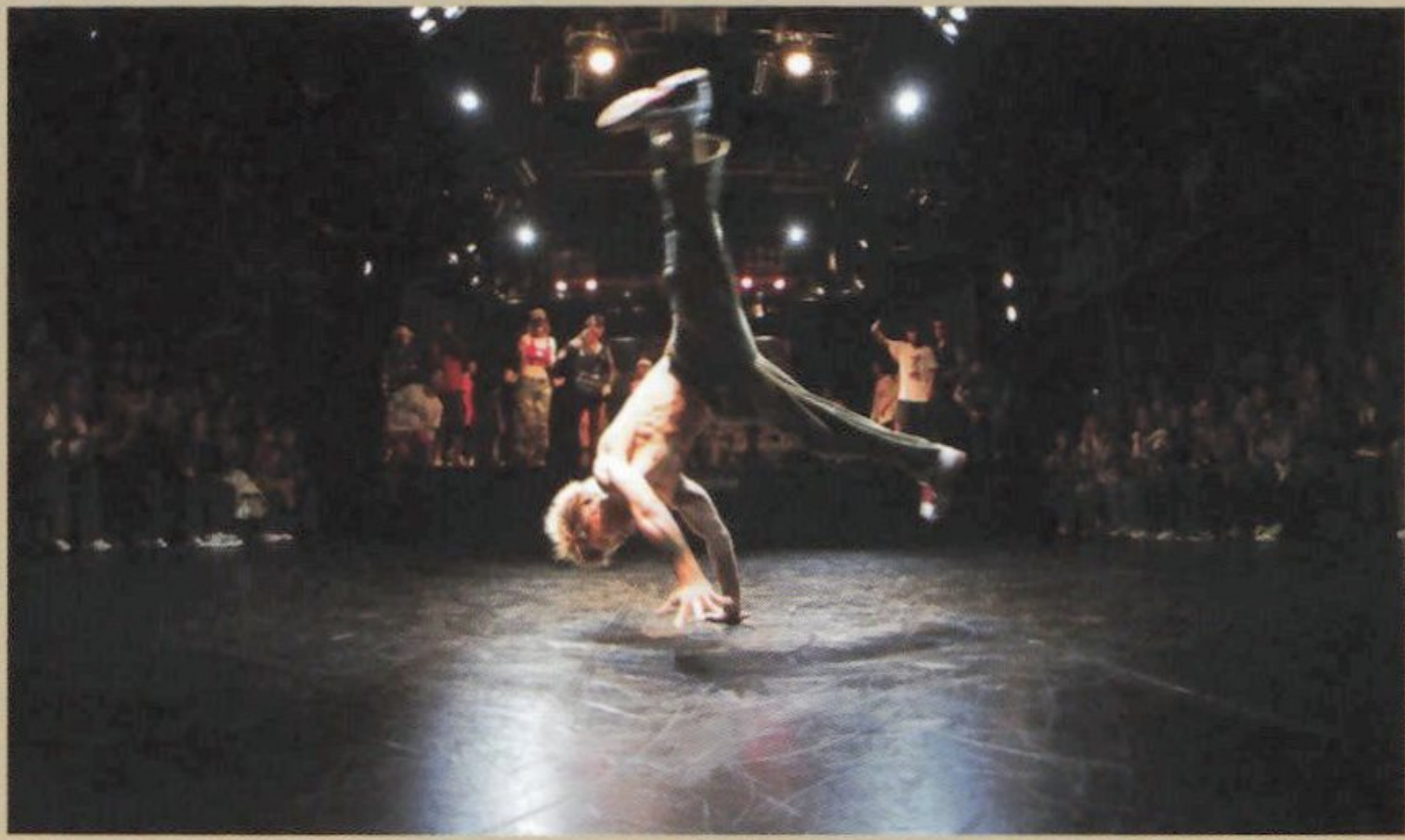
점프 부산전용극장

부산에도 공연예술의 상설전용관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08년 부산 최초의 공연 상설전용관으로 화제를 모았던 '점프 부산전용극장'에 이어 지역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MBC롯데아트홀'과 비보이 전용극장 'BB씨어터'가 2009년 문을 열면서 부산 공연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선, 유흥과 소비의 중심지였던 서면에 두 곳의 전용극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문화특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문을 연 비보이 전용극장 'BB씨어터'와 서면으로 장소를 이전한 '점프 부산전용극장'이 바로 그 곳. 특히 '비보이'와 '넌버벌퍼포먼스'는 젊

은층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서면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리면서 관객들의 발길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옛 은아극장 지하 2층에 문을 연 'BB씨어터'는 270석 규모의 비보이 전용극장으로, 현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공연기간을 정하지 않는 오픈런으로 공연되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비보이를 사랑하게 된 발레리나가 비보이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2005년 초연 당시 국내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작품이다. 2007년에는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BB씨어터



작품으로 선정됐으며, 이어 2008년에는 뉴욕 브로드웨이 장기공연을 통해 큰 화제를 모으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개관과 함께 보다 많은 관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인 BB씨어터는 그 첫 시도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을 관광상품인 '정동진으로 떠나는 새해맞이 기차여행'을 결합시킨 이색상품을 준비해 화제를 모았다. 12월 31일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연 관람 후 극장과 가까운 부전역을 출발, 동해남부선을 타고 여행한 후 다음날 돌아오는 관광상품으로, 2009년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는 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해운대 그랜드호텔 내에 문을 연 '점프 부산전용극장'은 지난 9월 장소를 서면으로 옮겨 롯데호텔부산 아트홀에 새로운 둠지를 틀었다. '점프 부산전용극장'은 그동안 코믹 너버벌 퍼포먼스 '점프'로 지금까지 관객 13만명, 평균 객석 점유율 85%를 기록하면서 부산에서도 상설전용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첫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관람객 중 3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관광상품으로서도 큰 인기를 모았는데, 이번에 이전한 롯데호텔부산 역시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면세점과 카지노가 들어서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10일부터 새롭게 무대에 올리고 있는 '점프'는 무술가족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내용을 소재로,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5년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무대에서도 그 이름을 알린 '점프'는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와 서울, 부산에 전용극장을 갖추고 세계인 모두가 즐기는 문화상품으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부산에 새로운 문화바람을 일으킨 전용극장 마지막 공연장은 지난 5월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탄생



MBC롯데아트홀

한 MBC롯데아트홀. 수영구 민락동 부산MBC 사옥 내에 자리한 MBC롯데아트홀은 뮤지컬 전용극장에 어울리는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작품성과 함께 재미와 감동을 놓치지 않는 수작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905석 규모의 아트홀은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액자 모양의 건축구조로, 천장이 높고 올림이 커 뮤지컬의 감동을 전하는데 적합하다. 또, 컴퓨터로 조정되는 첨단 디지털 입체음향과 특수조명장치 등 모든 시설이 뮤지컬 공연에 맞춰 설계되었다.

극장명인 MBC롯데아트홀은 롯데백화점과 '네이밍(naming)' 협약을 맺어 부쳐진 이름으로, 지역의 네이밍 극장으로서 부산은행과 네이밍 협약을 맺었던 BS부산은행조은극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MBC롯데아트홀은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내마음의 풍경'을 시작으로 그동안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젊음의 행진',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영어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을 비롯해 연극 '웃음의 대학', 언버벌 퍼포먼스 '팬양의 화이트 버블쇼' '핑퐁' 등을 선보였다. 특히 MBC롯데아트홀은 개관 이후 '객석후원제'와 '행복좌석나눔', (주)아이피케이, 한국투자증권이 후원한 '문화사랑티켓' 제도를 도입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개관 후 지난 7개월 동안 유료관객 60%를 기록하면서 2009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MBC롯데아트홀은 앞으로 서울 및 해외 우수작품을 초청하는 것을 물론 지역 제작시스템을 구축, 지역 뮤지컬 발전에도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MBC롯데아트홀은 2010년 첫 작품으로 부산에서 제작되어 서울에서도 호평받았던 가족뮤지컬 '구름뽕'을 선보인다. 하늘을 나는 귀여운 홍비, 홍시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구름뽕'은 실제 하늘을 나는 듯한 최고의 플라잉 액션으로 관객들을 신기한 모험의 세계로 이끈다. (글/정복엽)

■ 문의/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BB씨어터(804-2252), MBC롯데아트홀(760-1357)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음악봉사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음악세상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나 피약별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거리 한켠에서는 이들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꺼져가는 어

린 생명에게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음악봉사단 '음악세상', 오늘도 거리 한켠에서 묵묵히 따뜻한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음악세상은 이재용 회장을 주축으로 무대에 직접 서는 10여명의 회원과 70여명의 후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노래를 부르는 전업가수에서부터 직장인과 학생, 주부 등 다양하다.

음악세상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재용 회장은 음악세상 회원들을 봉사병에 걸린 '불치병 환자'라 부른다. 추우나 더우나 한주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주말공연을 비롯해 한달에 10회가 넘는 공연, 게다가 공연을 시작하면 장장 여덟 시간 무대에 서야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힘든 기색없이 묵묵히 해내는 회원들을 보면 이재용 회장의 말에 공감이 간다. 물론 불치병 환자로 치자면 이재용 회장을 따라올 수 없다. 과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자선공연을 펼치던 가수 '수와 진' 공연을 우연히 보게된 후 운영하던 카페에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라이브무대를 마련하면서 시작된 그의 불치병은 결국 잘 나가던 사업까지 접게 만들었다.

처음 이런 활동을 이해못했던 그의 부인 설라경 씨는 지금은 이재용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음반까지 발매한 음악세상의 간판급 가수이다. 또 다른 전업가수인 양선호 씨와 한영석 씨는 늦게 끝나는 공연스케줄에도 언제나 무대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회원들이다.

중국어 강사가 본업인 유지현 씨는 올해 초 음악세상과 인연을 맺었다. '한무대에서 여덟 시간 이상을 무대에 서기란 책임감이 없고서는 힘든 일'이라 하는 유지현씨의 2010년 바람은 노래도 잘 부르면서 봉사정신도 투철한 신입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처음 불우이웃돕기로 시작한 음악세상은 이재용 회장의 이웃에 살던 백혈병에 걸린 초등학생을 돕기 시작하면서 백혈병, 소아암을 돕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초등학생 4학년이던 그 소녀는 완치되어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매주 주말 갖는 거리공연은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열린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남해고속도로 남강휴게소에서 공연을 갖고 있다. 남강휴게소와는 지금 휴게소 소장으로 있는 류환문 씨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는데, 10여년 전 통도환타지아에서 열린 음악세상 공연을 우연히 보게된 류환문 씨가 남강휴게소 공연을 요청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매주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겨울을 제외한 일요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종대에서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8년 2월 1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세상이 지금까지 가진 거리공연만 1,284회(2009년 12월 20일 현재), 그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 4억 1천만원은 총 128명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달되었다.

음악세상은 2010년부터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 무대에 매월 정기적으로 선다. 이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 역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거리공연 외에도 결성 13주년을 자축하는 기념무대 '그후, 13년' (2~3월)과 거리공연 1,300회를 기념하는 특별무대(8월 초)도 가질 계획이다. (글/정복엽)

■문의/음악세상(333-9945, <http://www.mworld.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6회 정기연주회 2010 신년음악회

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10년 신년을 맞은 기쁨과 환희를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6회 정기연주회.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광승이 객원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Lyon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Perpignan 국립음악원 만장일치 수석 졸업 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강은정, 이탈리아 벨리니 성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입상, 일본-이탈리아 성악콩쿠르 요미우리 신문사상, 이탈리아 음악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이윤경,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전문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후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콩쿠르 1위, 파리 국제콩쿠르 2위,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테너 김성진, 발레리나 김희정, 김태윤, 오정은이 출연, 새해의 기쁨을 담은 흥겨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플루트, 성악, 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 2번 라장조 작품 314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아르디테/입맞춤

도니체티/‘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슈트라우스/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

비제/‘진주조개잡이’ 중 ‘귀에 남은 그대 음성’
레하르/‘메리 위도우’ 중 ‘입술은 침묵하고’

슈트라우스/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작품 314

· 지휘/광승

· 협연/강은정(플루티스트), 이윤경(소프라노,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김성진(테너, 인제대학교 교수)

· 발레/김희정, 김태윤, 오정은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예술홍보단 마케팅부(607-3100)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 5 킹스톤 루디스카

1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국내 최초로 결성된 9인조 정통 브라스 스카이밴드 킹스톤 루디스카 부산공연.

2004년 흥대 클럽 드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킹스톤 루디스카는 오센틱 스카, 록 서티디, 레게 등 다양한 자메이카 음악을 연주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장르를 열었다. 킹스톤 루디스카의 스카 자작곡들은 꾸밈없이 흥겨운 비트와 촌티날 정도로 따뜻한 멜로디 라인, 경쾌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아 한국인의 정서에도 잘 들어 맞는다.

2006년 싱글 앨범 ‘Kingston Rudieska’를 발표한 킹스톤 루디스카는 부산락페스티벌, 하이서울 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콘서트, 미국대표 스카 밴드 슬랙커스 내한공연 합동무대 등에 서왔다.

연주

이석울(보컬, 퍼커션), 최철욱(리더, 트럼본, 보컬), 오정석, 김정근(트럼펫), 정재현(색소폰), 서재하(기타), 박상흠(베이스), 김광현(키보드), 석지완(드럼)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0년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의 명성을 이어가는 빈소년합창단이 들려주는 2010 신년음악회.

1978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빈소년합창단은 중세 교회음악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민요, 최신 팝을 비롯하여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 가곡, 민요, 가요 등을 준비하여 매년 팬들을 만나고 있다.

10살에서부터 14살 사이의 백여 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빈소년합창단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등 총 4개의 합창단으로 나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연간 300여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쿠프랭/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라

갈루스/세상의 왕국

퍼셀/오라 그대 예술의 아들이여 바이올린을 켜라

멘델스존/눈을 들어라(엘리아 중에서)

미국민요/체로키족 알라바마 존

한국민요/아리랑 등 수곡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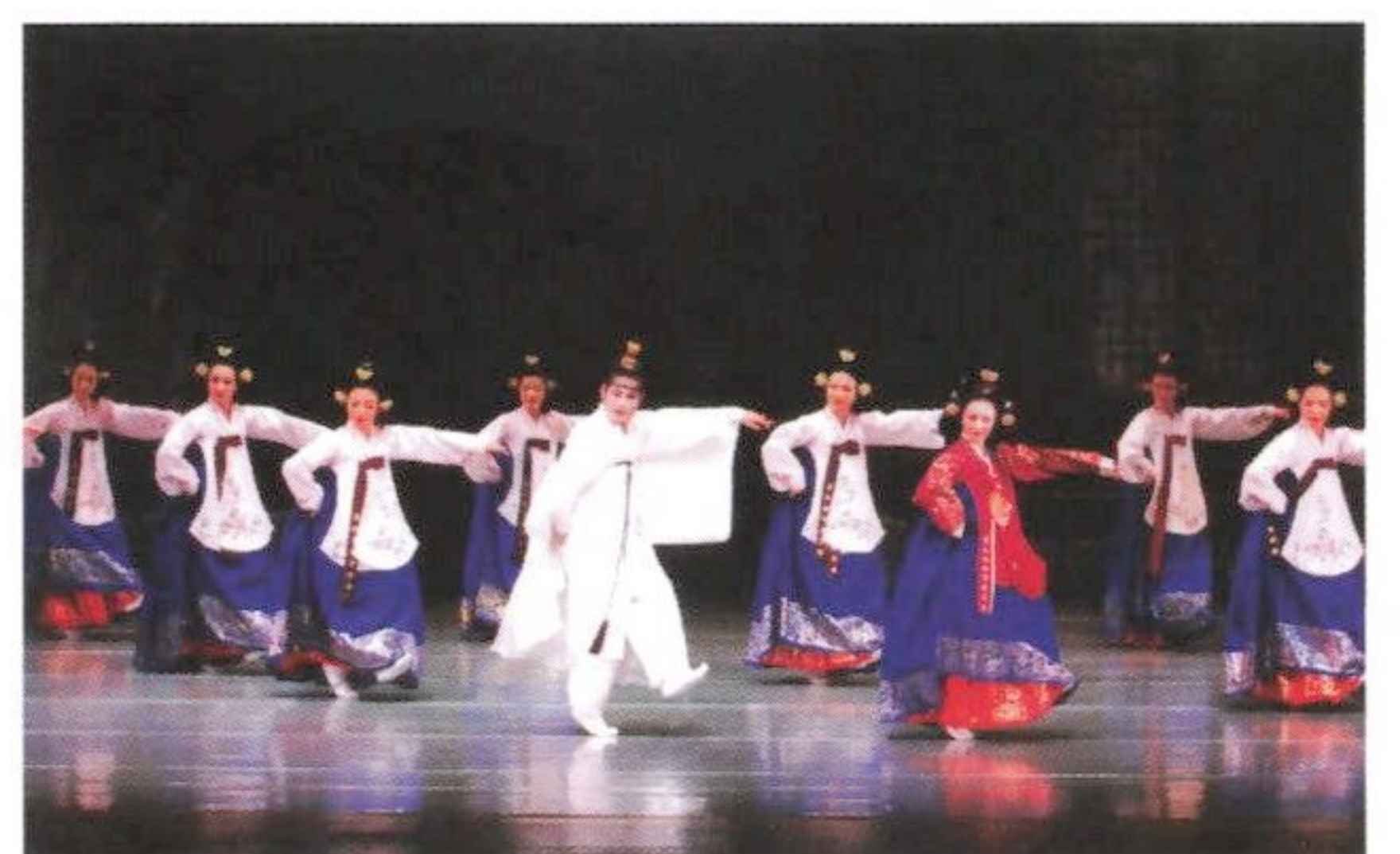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무용단 2010 우리 춤 산책

1월 20일-22일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평소 우리춤 전수 교육을 틈틈이 받아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와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0 우리 춤 산책.

2010년 무대에서는 이현숙 단원의 해설로 승무, 살풀이춤 등 중요무형문화재 춤 뿐 아니라 산조춤, 설장고춤, 장고춤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20일 첫째 마당

지전춤(춤/김동숙)

이척류 산조춤(춤/장래훈)

- 장고춤(춤/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입춤(춤/서정숙)
 김숙자류 도살풀이(춤/이화성)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문동북춤(춤/허태성, 강모세 · 특별출연/윤현호, 김동수, 안대천, 최영호, 허창렬)
- 21일 둘째 마당
 한영숙류 승무(춤/윤은하 · 특별출연/장래훈)
 동래학춤(춤/황대현)
 대감놀이(춤/김진영)
 진도북춤(춤/권봉정, 오수연 · 특별출연/이현숙, 허태성, 황대현, 성현우, 장영진)
 산조춤(춤/오숙례)
 이매방류 살풀이춤(춤/김주연)
 김병섭류 설장고(춤/김공주, 김윤호)
- 22일 셋째 마당
 이매방류 승무(춤/서현미 · 특별출연/장래훈)
 최종실류 소고춤(춤/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산조춤(춤/정진희)
 진도북춤(춤/류권홍, 조은미 · 특별출연/허태성, 장영진, 풍물패 쟁이-박준식, 이호진, 정호선)
 한량무(춤/이성원)
 설장고춤(춤/박창희 · 특별출연/해미르예술단)
 · 무용감독/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작품해설/이현숙(단원)
-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제 1105회 MBC목요일음악회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난해 클래식을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2010년 신년음악회.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는 기존의 오케스트라가 정통적인 클래식만을 연주하는 것과는 다르게 클래식을 넘어서 영화음악, 재즈, 팝,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왔다.

이번 무대는 오케스트라와 Jazz Quintet의 만남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즉흥 에드립을 넣어서 클래식과 재즈의 접목을 시도한다.

프로그램

- 하차투리안/칼의 춤(with Electric Guitar solo)
- 롯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with Drum solo)
- 데즈먼드/Take Five(with Jazz Quintet)
- 모리꼬네/새치모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10-3881-375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1월 21일(목)-22일(금), 1월 29일(금)-2월 5일(금) 12(금), 18(금), 25(목)-26(금)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북구 빙상문화센터,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미취학 어린이들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이야기.

연주를 곁들인 동화구연과 악기 설명,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명곡 연주, 악기체험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공연일정

1월 21일(목) 10:30 북구빙상문화센터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연주/배영주, 이영심, 이성호, 양욱진, 이명호, 이은정)

- 1월 2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연주/배영주, 이영심, 이성호, 양욱진, 이명호, 이은정)
- 1월 29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연주/김동욱, 김영희, 박영주, 정현숙, 정명호, 이은정)
- 2월 5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나팔 가족 이야기' (연주/안명기, 박종원, 박의근, 정우철, 송인봉, 이은정)
- 2월 1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나팔 가족 이야기' (연주/안명기, 박종원, 박의근, 정우철, 송인봉, 이은정)
- 2월 18일(목)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타악기 가족 이야기' (연주/김영립, 이은정, 전영수, 조용길, 박용갑, 김왕진)
- 2월 25일(목)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연주/김동욱, 김영희, 박영주, 정현숙, 정명호, 이은정)
- 2월 26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타악기 가족 이야기' (연주/김영립, 이은정, 전영수, 조용길, 박용갑, 김왕진)
- 동화구연/이소영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김언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관현악과, Performance Diploma, Orchestra Scholarship 을 취득하고 귀국한 부산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언정 독주회.

유학 중 미국 인디애나 콘서트 오케스트라, 인디애나 까메와타 앙상블 연주활동을 펼쳐온 김언정은 현재 베네치안 앙상블, MPO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18번 사장조
-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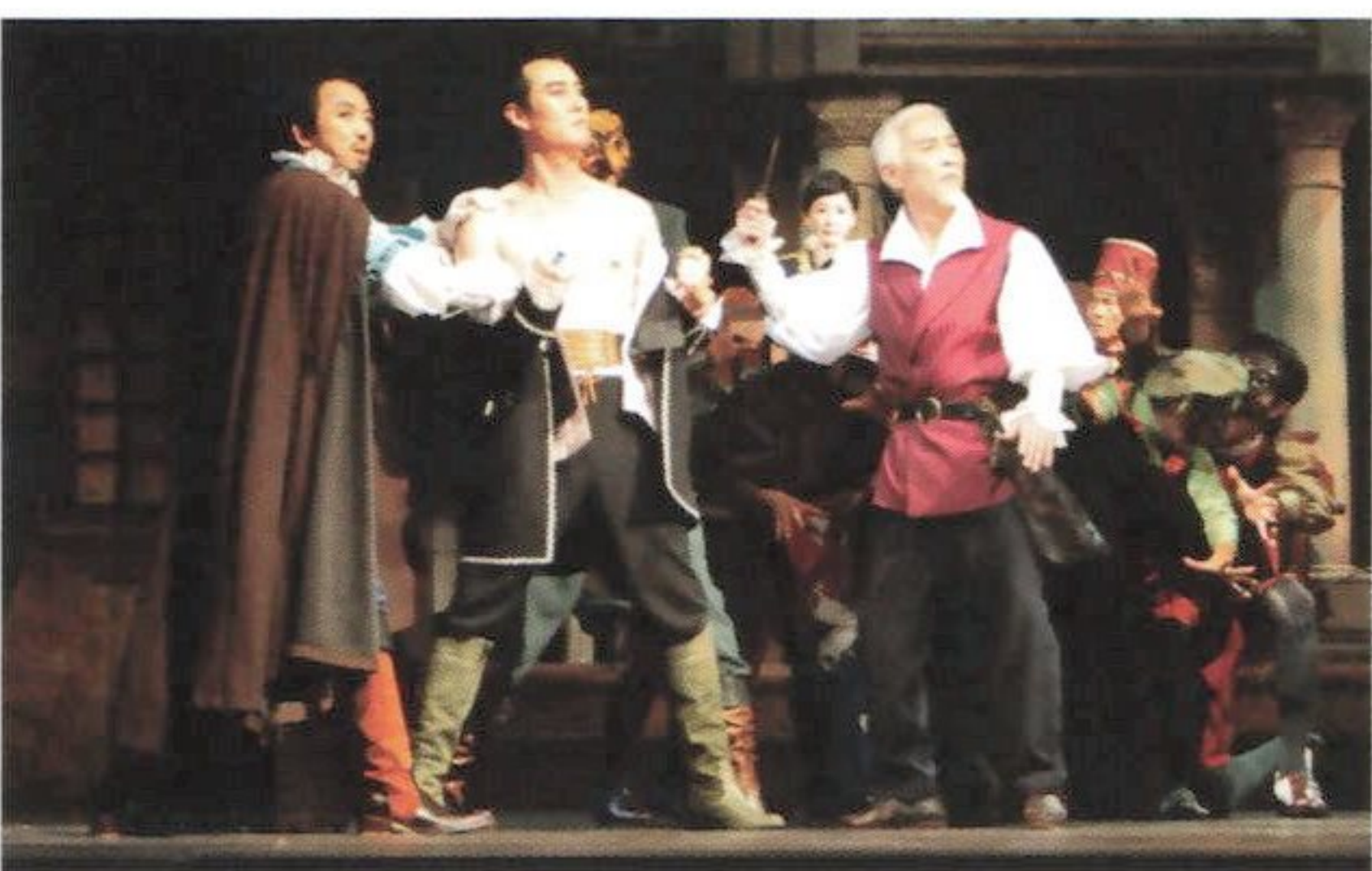
· 반주/김윤정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627-2572, 010-3556-6943)

영산아트컴퍼니 창립기념초청 베니스의 상인

1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명동예술극장 개관기념 작품으로 호평받은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부산무대.

2010년부터 문화사업을 시작하는 영산대학교 영산아트컴퍼니 창립기념 무대로 선보이는 '베니스의 상인'은 오현경, 윤석화, 정호빈, 한명구 등 명배우들이 풀어내는 셰익스피어 희극의 정수, 연출가 이윤택의 카리스마로 뽑아내는 극적 재미, 영산대학교 조명레교수가 디자인한 16세기 르네상스시대 의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 작/셰익스피어
- 역/신정옥
- 연출/이윤택

출연

오현경(사일록), 윤석화(포사), 정호빈(안토니오), 한명구(박사니오), 김미숙, 이승현, 유병훈, 한상민, 염순식, 지현준, 주인영, 이정옥, 윤종식, 서승현, 추은경, 박수은

· 특별출연/김길호

■ 관람료 VIP석 60,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가마골소극장(016-886-1986, 1588-9155)

장플루트아카데미클래스 겨울연주회

1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 부산목관 5중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장극태 제자들이 들려주는 제 8회 클래스연주회.

프로그래

R.무진스키/소나타 작품 14
단짜/콘체르트
메르카단테/콘체르트 3악장
도니제티/소나타 등 수곡

출연

장정림(부산예고 3년), 정유진(동성초 6년), 강주희(동성초 6년), 김다오미(광남초 6년), 이채윤(동성초 5년), 김정민(동성초 3년), 노권예(동성초 3년), 손안지(동성초 3년), 윤지원(동성초 3년), 이금정(동성초 2년), 이세현(동성초 2년), 구용준 타악기양상블, 이주현(반주)

■ 문의 장극태(011-582-5189)

정신혜 무용단 홀춤

1월 26일-27일 화-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1997년 창단 이래 창작 작품과 전통춤 레퍼토리 개발을 통하여 무용계 젊은 세대를 선두하는 단체로 평가받아온 정신혜무용단이 펼치는 홀춤 무대.

정신혜무용단은 제 10회 부산무용제 대상, 제 10회 전국무용제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춤의 전승보급에 열정을 쏟아온 단원들이 우리 춤의 진수를 선보인다.

프로그래

제 1일 26일(화)
태평무, 즉흥무, 검무, 살풀이, 진도북춤
제 2일 27일(수)
승무, 즉흥무, 장고춤, 살풀이, 소고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구성심(010-2572-9102)

부산광역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1월 27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남구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새롭게 창단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남구 소재 초등학교 3~6학년생으로 구성된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남구 축제, 행사 초청공연, 자매결연 도시 문화교류 공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연주 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신대학교 대학원과 이탈리아 A.R.A.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곤이 지휘한다.

프로그래

아름다운 노래/아리랑, 도라지꽃, 사랑은 영원하리
신나는 노래/동요메들리 '구슬비' '아빠 힘내세요'
'고기잡이',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최진사댁 셋째 딸'

즐거움 노래/거위의 꿈, 비행기, 오늘같이 기쁜 날

- 지휘/김주곤
- 특별출연/정화음, Bellissimo 남성중창단

■ 문의 부산광역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607-437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실내악단 신년음악회

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실내악단 이 무지치 실내악단이 들려주는 2010 신년음악회.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음악인들로 창단된 '이 무지치'는 1952년 베니스 음악제, 영국의 에딘버러 음악제 등 유럽의 저명한 음악제에 참가하여 그 연주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추앙받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로부터 '세계 최고의 실내합주단'이라는 격찬을, 미국 음악비평의 태두로 불리는 버질 톰슨으로부터 '세계가 지금까지 들어온 연주 중에서 가장 최고이며, 완벽이라는 두 글자로 밖에 표현 수 없다'는 극찬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6명, 비올리스트 2명, 첼리스트 2명, 더블베이스와 첼발로 주자 각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 무지치는 이탈리아 사람다운 밝고 쾌활한 기질과 유려한 선율미로 창단 이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전세계 음악팬들의 신에 가까운 숭배와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퍼셀/ '요정여왕' 중 '사콘느' '중국 남녀를 위한 무곡'
헨델-요한 할보르센/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피아졸라/항구의 여름
마르탱/피치카토를 위하여
윤극영/까치까치 설날은
비발디/사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2010 신년맞이 부산성악가페스티벌 우리가곡의 밤 '사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공정배 김유섬 이철성

부산을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 25인이 펼치는 신년맞이 부산성악가페스티벌.

2010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며 멋진 신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우리가곡과 웅장한 합창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봄(春)/강 건너 봄이 오듯, 님이 오시는지, 사공의 노래, 봄처녀, 청산에 살리라
여름(夏)/사랑, 뱃노래, 명태, 수선화
가을(秋)/동심초, 별, 아 가을인가, 고향생각, 산촌
겨울(冬)/눈, 고향의 노래, 비목, 가고파, 옛날은 가고
없어도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학교 교수), 김미성(신라대학교 교수), 서경숙, 김경희, 배수진(부산콘서바토리 교수), 신정순, 이윤정, 윤지영,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박소연, 강희영, 테너 강학운, 김지호, 이철성, 김화정, 바리톤 박대용, 조현수, 고영호, 공정배(솔로페라단 음악감독), 베이스 유희광, 정용욱, 권영기
· 피아노/파울로 타리초티

- 관람료 VIP석 8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의 솔로페라단(1544-9373, 740-5750)

신년맞이 공재민 가야금병창 이야기

1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동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신라전국국악대전 우수상, 전주대사습 학생전국대회 가야금 병창 차하, 순창 전국 전통 및 창작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부산국악경연대회 문화관 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공재민이 들려주는 가야금 병창이야기.

프로그램

단가, 심청가 중 방아타령(합창), 철현금 산조합주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살풀이
수궁가 중 고고천변(합창)
춘향가 중 사랑가
적벽가 중 화룡도, 사물놀이

- 문의 허봉수(010-4911-3715)

예병현 타악기 독주회

1월 31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 팝스엔퍼커스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악기 주자 예병현 타악기 독주회
현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예병현은 부산음고 콩쿠르 입상, 부산음협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Liber Tango, Ney Rosauo 2번 전악장, Transformation 등 수곡

- 문의 예병현(011-9505-0663)

제 21주년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박지나 감경주 정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부산 출신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귀향연주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등예능실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4학년 박지나, 서울플루트 콩쿠르 입상, 성정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3학년 감경주, 코리아 가야금병창대축제 문화관광부장관상,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가야금병창부문 차하, 춘향국악대전 가야금병창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2학년 정주연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가야금병창/죽장망혜, 춘향가 중 '사랑가'
포레/시실리안느
윤이상/고풍의상
벨리니/나는 귀여운 처녀 등 수곡

- 문의 황경자(017-541-3445)

음악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2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태평무, 거문고산조, 단가 '사철가', 풍류 장구춤, 25현금 2중주 '도라지', 대금중주 '달무리', 설장구가락

■ 9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흥보가', 피리독주 '염양춘', 살풀이, 현악중주 '침향무', 실내악 '코사무이', 승전무 '검무', 사물놀이와 북모듬

■ 16일 프로그램

수제천, 통영교방진춤, 대금산조, 한량무, 피리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해금중주 '도라지 타령에 의한 흰꽃', 부채춤, 사물놀이와 호적시나위

■ 23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해금산조, 진주교방굿거리춤, 입체창 '사랑가', 산조병주, 동래학춤, 단막 창극 '놀부와 마당쇠'

■ 30일 프로그램

웃도드리, 향발무, 단소독주 '청성곡', 25현금 '한오백년', 실내악 '방황', 산조, 태평소협주곡 '방아타령', 밀양백중놀이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청소년 문화의 밤

1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로, 열정적인 난타공연과 CCM, 세미뮤지컬 '기다리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 문 의 김충(508-8522, 010-6757-9172)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온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

■ 12일 신년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초청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초청독주회.

조현미는 현재 아르스 콰르텟 리더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마스네/타이스의 명상곡

푸홀/부에노스 아이레스 모음곡

드보르작/유모레스크 등 수곡

· 찬조출연/고충진(클래식기타) · 해설/장진규

■ 19일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신라대학교와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토스카니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박현정은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한국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이흥렬/바위고개

멘델스존/노래의 날개 위에

리스트/사랑의 꿈 등 수곡

· 찬조출연/홍광현(클래식기타) · 해설/장진규

■ 26일 음악세상 희망, 사랑, 나눔콘서트



거리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고있는 음악세상의 나눔콘서트.

프로그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꼬마인형, 그대 그리고 나, 애인있어요, 천상재희, 하나의 사랑, 만남, 백년의 약속, 내 사랑 내 곁에, 고해 등 수곡

· 출연/설라경, 한영석, 양선호, 성유림, 유지현,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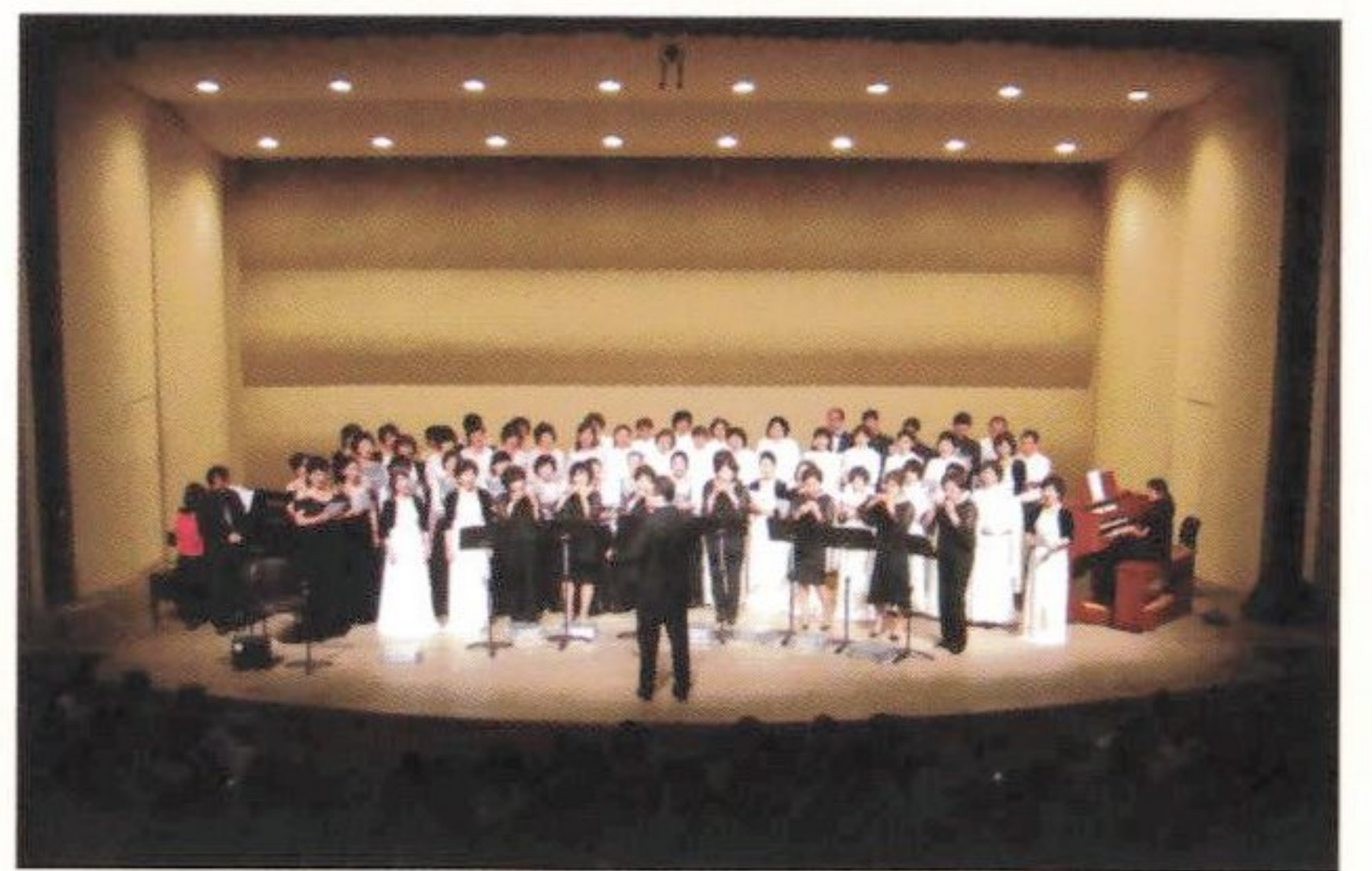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 19회 정기연주회

1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정규과정 19기 학생들이 마련하는 정기무대.

오르간 연주와 성악, 그레고리오성가, 폴리포니,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 문 의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517-8241)

제 3회 어울향 정기공연

1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경남지역 오카리나 동호회 연합공연으로, 부산오카리나클럽, 부산오카리나마을, 김해흠빛소리 등 3개 단체가 출연,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준다.

■ 문 의 이창희(010-2546-3995)

첼로의 향연

1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글로벌아트홀



첼리스트 하내희가 이끄는 차세대 첼리스트들의 앙상블 무대.

■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한낮의 유U; 콘서트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서면롯데호텔 아트홀



뮤지컬배우 김소현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온 한낮의 유U; 콘서트 2010년 신년무대.

'오페라의 유령' 히로인 뮤지컬배우 김소현과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노운

병,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수석 막심 멜니코프, 오르프 챔버콰이어가 출연,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가마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슈트라우스 폴카와 왈츠, 칼 오르프 '까르미나 부라나' 등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새우리음악회 8주년 400회 기념콘서트

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새우리병원이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새우리음악회 400회 기념콘서트.

2002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음악회를 열어온 새우리음악회는 이번 무대에서 소프라노 박현정, 포크 락밴드 해조음, 부산남성합창단 등이 출연,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 문의 새우리병원(516-9999)

4크라베이스 창단연주회

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클라리네티스트 황윤원, 송성인, 한상헌, 황수빈, 콘트라베이스 주자 황성준으로 결성된 4크라베이스 창단연주회.

4크라베이스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무대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드브르작/아메리카
비발디/사계 중 '겨울'
플로르드 볼링/재즈 앤 블루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황성준(010-3556-7308)

이서림 타악독주회

1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예고 2학년으로,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림 타악독주회.

이서림은 2009 동의대학교 콩쿠르에서 1등한 바 있다.

프로그램

Iannis Xenakis/Rebong-B
바흐/바흐 모음곡 등 수곡

- 문의 이서림(010-8505-4891)

피아니스트 오윤복 피아노 리사이틀

1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연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움대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오윤복 독주회.

시카고 St. Charles 국제콩쿠르 1위, 신시내티 월드 피아노 국제콩쿠르 4위

에 입상한 바 있는 오윤복은 예음문화재단 주최 슈베르트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에 출연했다.

프로그램

Joan Guinjoan/Tempo Breve
모차르트/환타지 라단조 K.397
쇼팽/발라드 내림가장조 작품 47
쇼팽/소나타 제 3번 나단조 작품 58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안준희(010-4151-3667)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나인희 첼로연주회

1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쾰른국립음대 석사과정, 베를린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첼리스트 나인희 연주회.

나인희는 귀국 후 KBS 교향악단, 한국예술종합학

개점55주년기념행사
기념행사는 2010년 1월 1일 ~ 3월 까지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
세계지도를
구매고객님께 선착순 증정!
2010년 캘린더는
12월 1일 ~ 3월까지!
※ 행사끝난 후 지도 판매가격 ₩7,000

전국최고의 종합지도센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1955



문우당서점
대표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955-1 (02-555-5555)
부산점: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716-1 (051-241-5555)
문의: 051-241-5555(내선)
팩스: 051-245-1187, 051-243-2330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남포동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각종일부안내
3층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경교과서, 경제경영일반, 5층 서고, 컴퓨터 관리실, 2층(1층)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각종일부안내
2층 각종지도, 각종외국어사전, 각종사전, 국산자구본, 수입자구본 소·중·대형, 1층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교 오케스트라, 서울심포니, 수원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Jeunesse World Orchestra 한국대표
로 베를린필하모닉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무언가 작품 109
단치/돈지오반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포퍼/요정의 춤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D.821 등
· 피아노/민경식

- 관람료 사전예약 필수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이남경 클래스 피아노 연주회

1월 30일 토요일 오후 4:30 글로벌아트홀



피아니스트 이남경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25회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1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독주, 합주,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무대를 상
세한 해설과 만날 수 있다.

-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연극

연극 그남자 그여자

2009년 3월 6일(금) --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2/31일 오후
8:00, 11:00, 1/1일 오후 3:00, 6:00) 초콜릿 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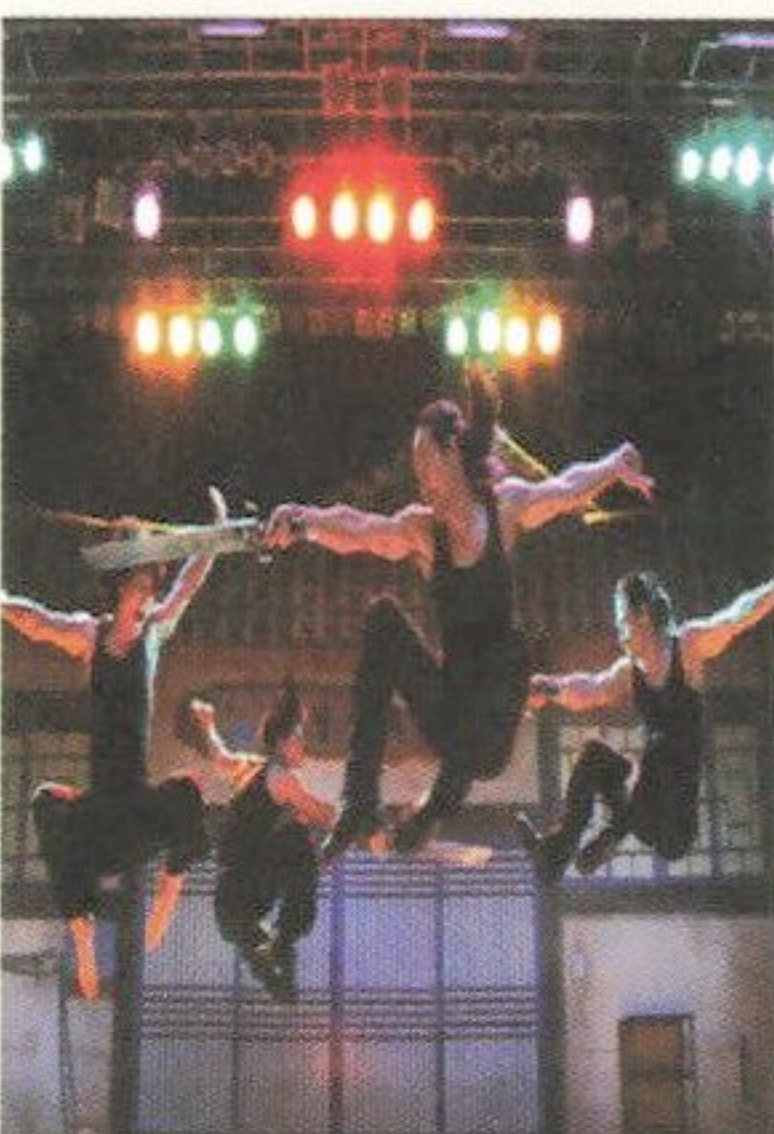
운명적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과 쓰라린 이별, 그리
고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
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남자 그여자'.

· 작/이미나
· 연출/추상욱, 이주영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
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
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
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2009년 11월 20일(금)-2010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12/31일 오후 9:00, 11:50, 1/1일 오후 5:00)

사랑과혁명 소극장

몸으로 만들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외로운 남
자의 사랑찾기를 그린 독특한 발상의 카툰뮤지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2009년 12월 2일(수)-2010년 1월 8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12/30일 오후 7:00, 10:00, 12/31일 오후 9:00, 11:50)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극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를 소재
로, 자살마저도 하나의 흥밋거리가 되고마는 현대사
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블랙코미디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코믹뮤지컬 사랑할까요?

2009년 12월 3일(목)-2010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코믹
한 터치와 경쾌한 음악으로 풀어낸 코믹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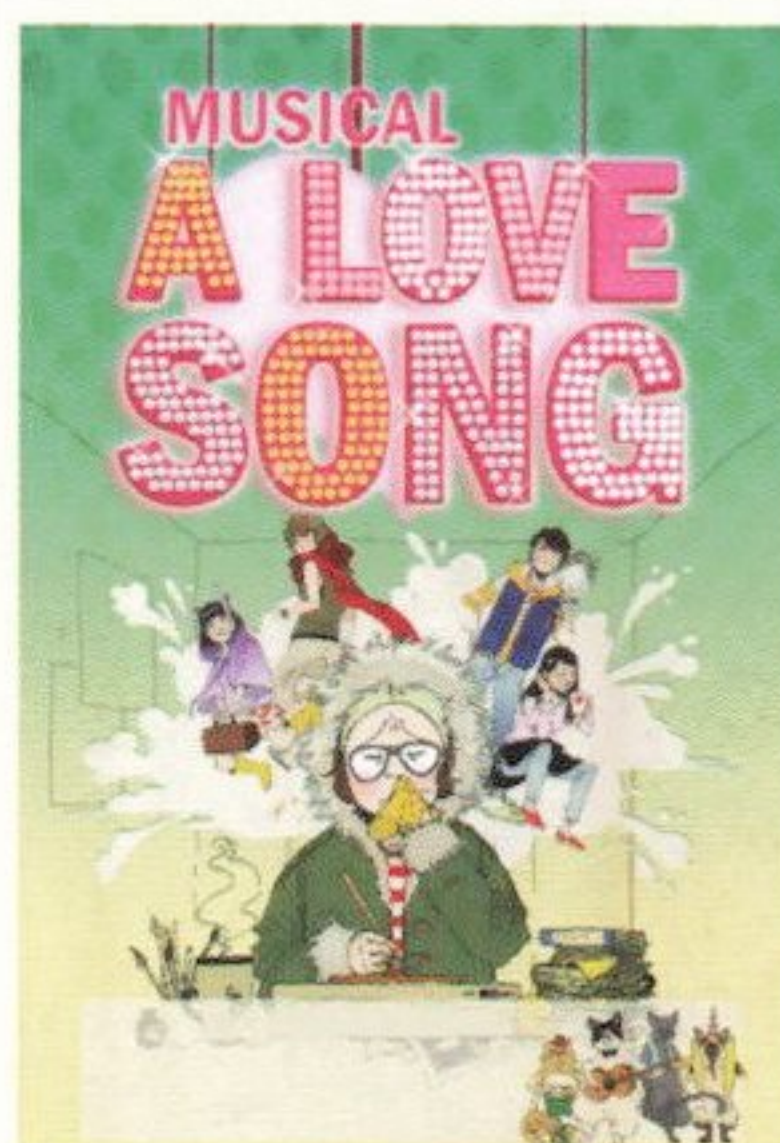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김수경, 우혜언, 김정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창작뮤지컬 A Love Song

2009년 12월 17일(목)-2010년 1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2/31일 오후 5:00, 8:00
1/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 소극장



사랑 한번 못해본 호러
만화가 주인공이 순정만화
를 그리게 되면서 펼쳐지
는 좌충우돌 사랑이야기
뮤지컬 'A Love Song'.

톡톡 튀는 만화적 상상
력으로 극적 재미를 더하
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삽

입, 화제가 되고 있다.

· 작, 연출/김민지 · 음악/누드 사운드 유닛
· 출연/최윤선, 이용탁, 박인화, 박다미, 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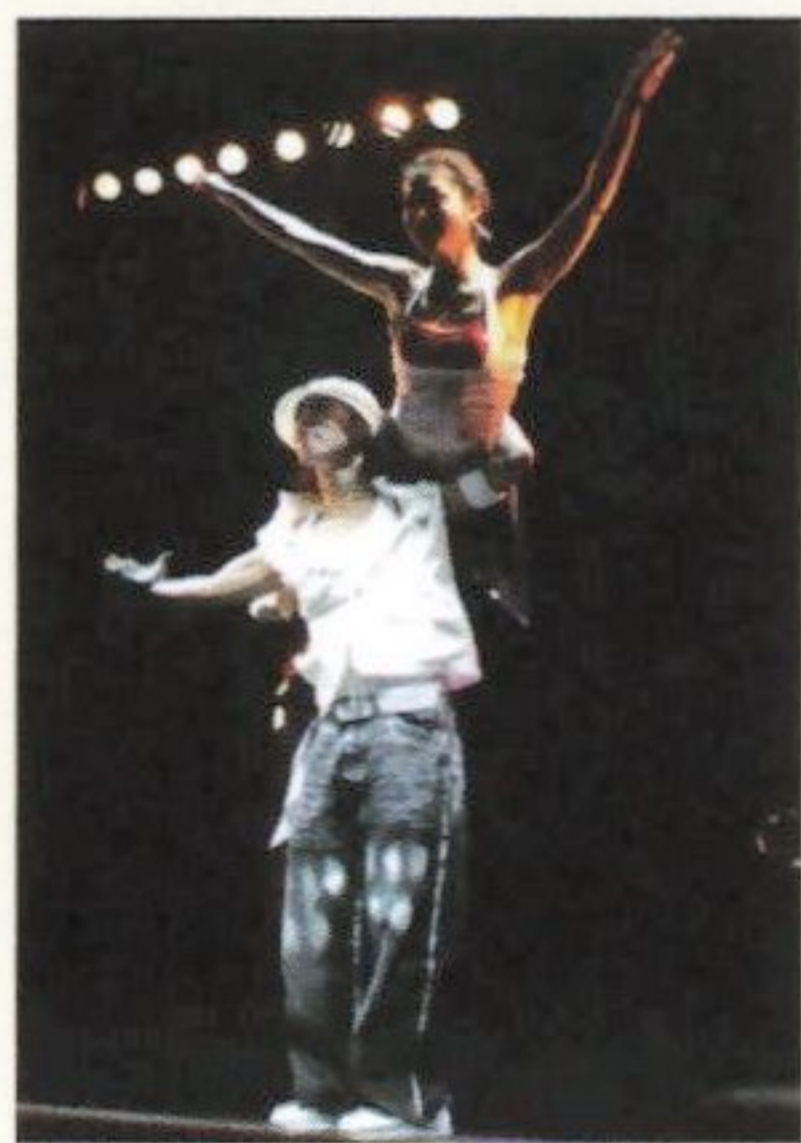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626-370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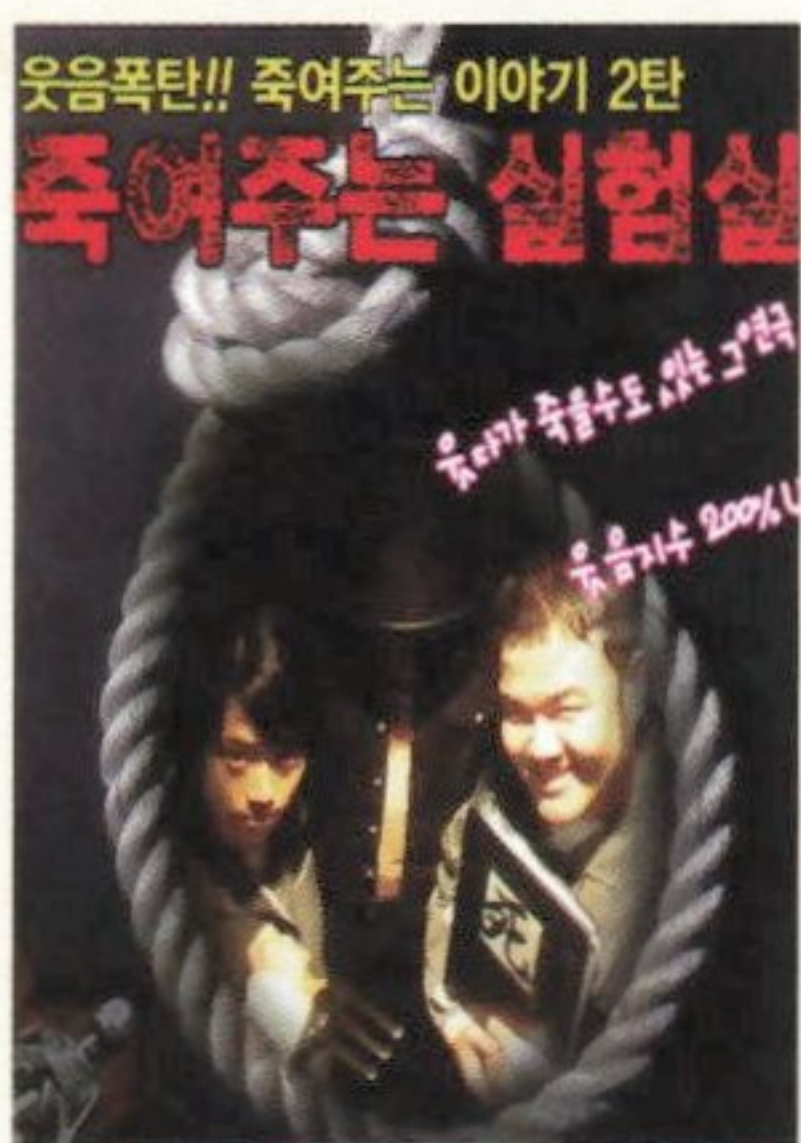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우리나라에서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작품으로, 2005년 초연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아왔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문의 BB씨어터(804-2252)

죽여주는 실험실

2009년 12월 21일(월)-2010년 1월 8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12/30일 오후 7:00, 10:00, 12/31일 오후 9:00, 11:5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자살을 연구하는 황당한 연구소를 소재로, 생명연장의 꿈을 향한 인류의 연구와 노력속에서도 그와는 대조적으로 늘고있는 '자살'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코믹하게 그린 코미디극 '죽여주는 실험실'.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코믹 오페라플레이 테너를 빌려줘

2009년 12월 23일(수)-2010년 1월 3일(일) 12월 29일-30일 오후 8:00, 31일 오후 6:00, 9:00, 1월 1일 오후 5:00, 2일 오후 3:00, 7:00, 3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고품격 코미디로,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 관람료 균일 4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1월 7일(목)-3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난중일기에서 사라진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행적을 소재로, 영웅 속에 숨어있음직한 소박한 인간 이순신을 풍자와 해학, 번뜩이는 재치로 새롭게 해석한 코믹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 예술감독/이현규
- 연출/황두수
- 작곡/장소영
- 안무/서정선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락시(樂時)터-즐거운 시절

1월 8일(금)-3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마음만은 청춘인 60대 남자와 세상의 짐으로 어깨가 무거운 30대 남자가 낯시터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군상들과 부딪히며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위성진
- 작사, 작곡/강민호
- 출연/오종훈, 이봉련, 오익식, 박태성, 김국희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라이브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캣츠

1월 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세계적인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 연출, 작/송현창
- 작곡, 음악/김용규
- 출연/김성숙, 박미선, 김택수, 전동민, 권오석 외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4,000원 할인)
-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낭만뮤지컬 한 여름 밤의 꿈

1월 15일(금)-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을 동시대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환타지 뮤지컬 '한 여름 밤의 꿈'.

불안한 청춘과 배고픈 예술가, 우주인을 등장시켜 꿈도 사랑도 부질없어진 21세기 인간들의 꿈과 사랑을 그려낸다.

- 작/셰익스피어
- 각색/이채경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The early years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영화 >> 행사 >> 전시 >>

- 연출/남미정
- 출연/변진호, 홍선주, 배보람, 이종민, 정영미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족뮤지컬 헬로, 모차르트

- 1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천재작곡가 모차르트로부터의 초대장을 받은 누리, 마리, 보리 세 친구의 음악여행을 통해 클래식과 친해지는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하늘극단(1588-3828)

주크박스 플라이 뮤지컬 구름빵

- 1월 22일(금)-31일(일) 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금요일 오후 4:00, 8: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2009년 부산에서 초연된 후 서울 무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창작 가족뮤지컬 '구름빵'. 두둥실 떠오르는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나는 귀여운 흥비, 흥시남매의 대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1/3일까지 조기예매시 4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60)

교수와 여제자 in Busan

- 1월 22일(금)-2월 7일(일) 평일 ·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4:00, 7:00
- 전라 성(性)묘사로 외설논란에 휩싸였던 연극 '교수와 여제자' 부산무대.
- 관람료 균일 40,000원(만 19세이상 관람가)
 - 문 의 예술집단 참(02-2275-7104)

Love is 2

- 1월 23일(토)-2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물고 물리는 숨가쁜 상황 속에서 사랑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감미로우면서도 경쾌한 선율 속에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박현민, 박유진, 박지훈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1월 3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3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오게된 도로시와 친구 허수아비, 사자, 양철나무꾼과 떠나는 환상과 모험의 세계를 그린 가족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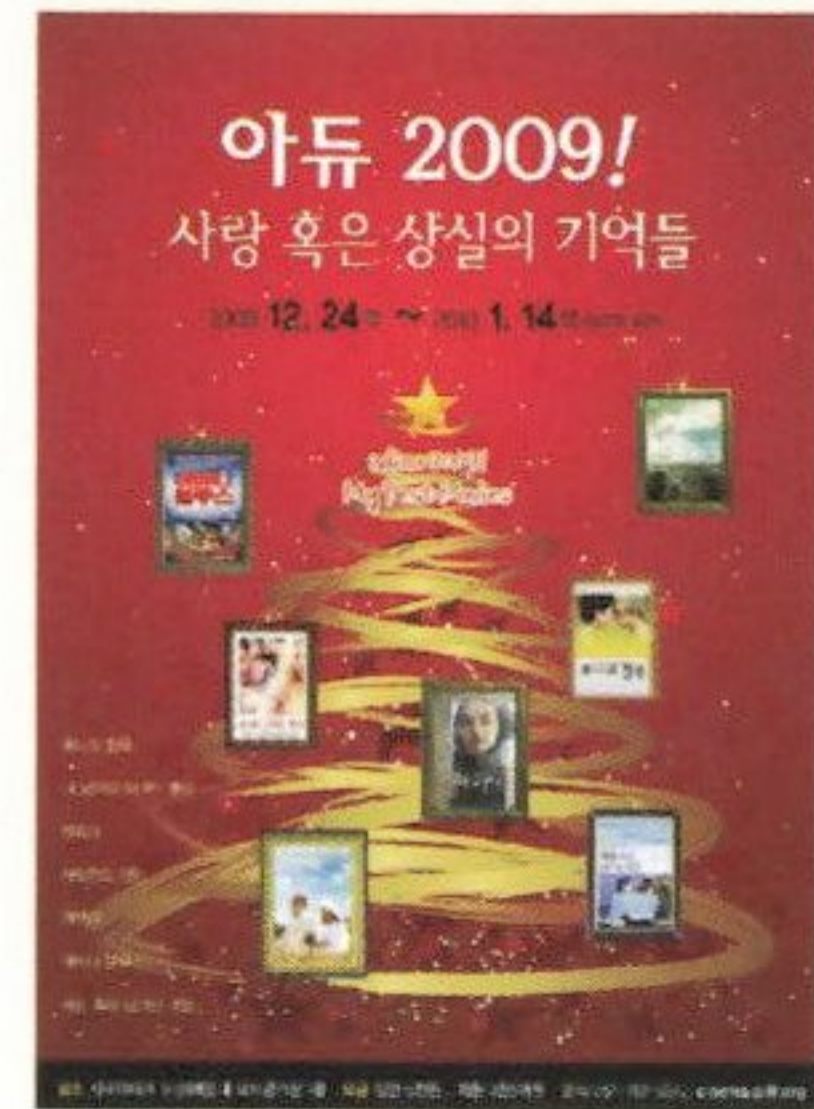
- 출연/최윤주, 안정민, 김은주, 전민규, 장기엽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영화

시네마테크 부산 아듀 2009!

- 2009년 12월 24일(목)-2010년 1월 14일(목)
오전 11:00, 오후 1:00, 13:10, 5:20, 7:30
(12/29일~1/3일은 11시 상영 없음, 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연말연시를 맞아 시네마테크 부산이 선사하는 영화종합선물세트 '아듀 2009!'.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다르덴 형제의 신작 '로나의 침묵'을 비롯 7편의 예술영화를 상영한다.

상영작품

로나의 침묵(감독/다르덴 형제),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감독/우디 앨런), 원위크(감독/마이클 맥고완), 사일런트 웨딩(감독/호라티우 마라엘레), 여행자(감독/우니르콩트), 하바나 블루스(감독/베니토 잠브라노),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감독/도리스 되리)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행사

부산시올림 제 90회 시낭송회

- 1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근희, 김중미, 박시향, 서화성, 손순미, 윤혁, 정빈, 조말선, 조범산
 - 찬조출연/바리톤 이창용(동아대학교 교수)
 - 사회/한창욱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전시

신옥진 기증작품전

- 2009년 9월 5일(토)-2010년 2월 15일(월)
부산시립미술관 기증전시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박영숙 사진전

- 2009년 11월 7일(토)-2010년 1월 10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전시 >>

2009년 부산근대역사관 특별교류전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전의 기억

2009년 12월 1일(화)-2010년 1월 31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과 함께 조선의 3대 풍속 화가인 기산(箕山) 김준근의 풍속도 30여점을 선보이는 특별교류전.

■ 문 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6)

김창열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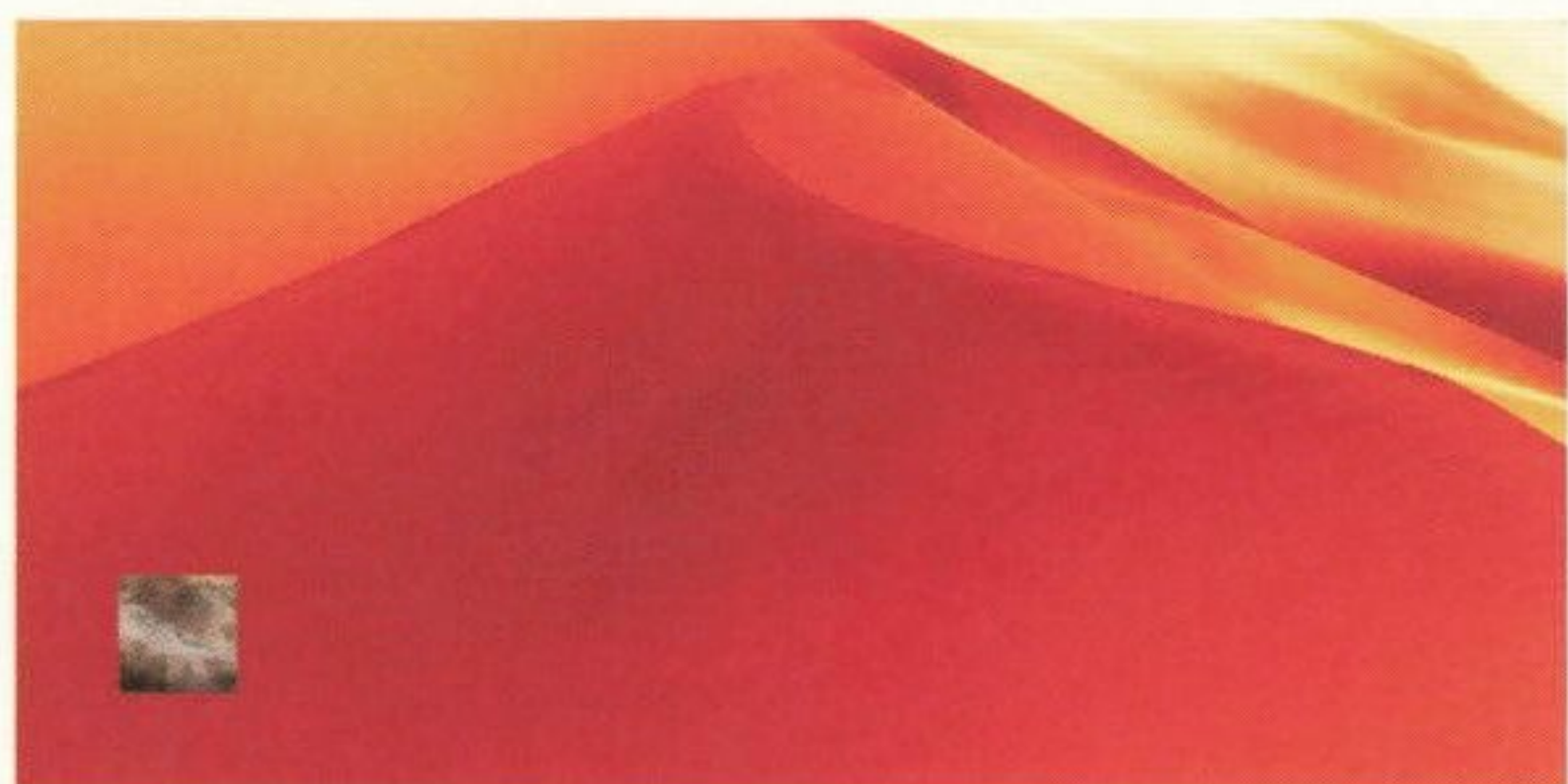
2009년 12월 5일(토)-2010년 2월 2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물방울'이라는 대상을 통해 동양 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열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최근작까지 60여점의 작품전시.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김홍희 사진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비편

2009년 12월 10일(목)- 2010년 1월 10일(일)
코리아아트센터



시간과 공간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상해내는, 철학이 깃든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작가 김홍희가 몽골의 광활한 대지를 걸으며 만난 사람과 자연을 담은 사진 15여점이 전시된다.

■ 문 의 코리아아트센터(742-7799)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김대홍, 김지운, 박성란-

2009년 12월 12일(토)-2010년 2월 15일(월)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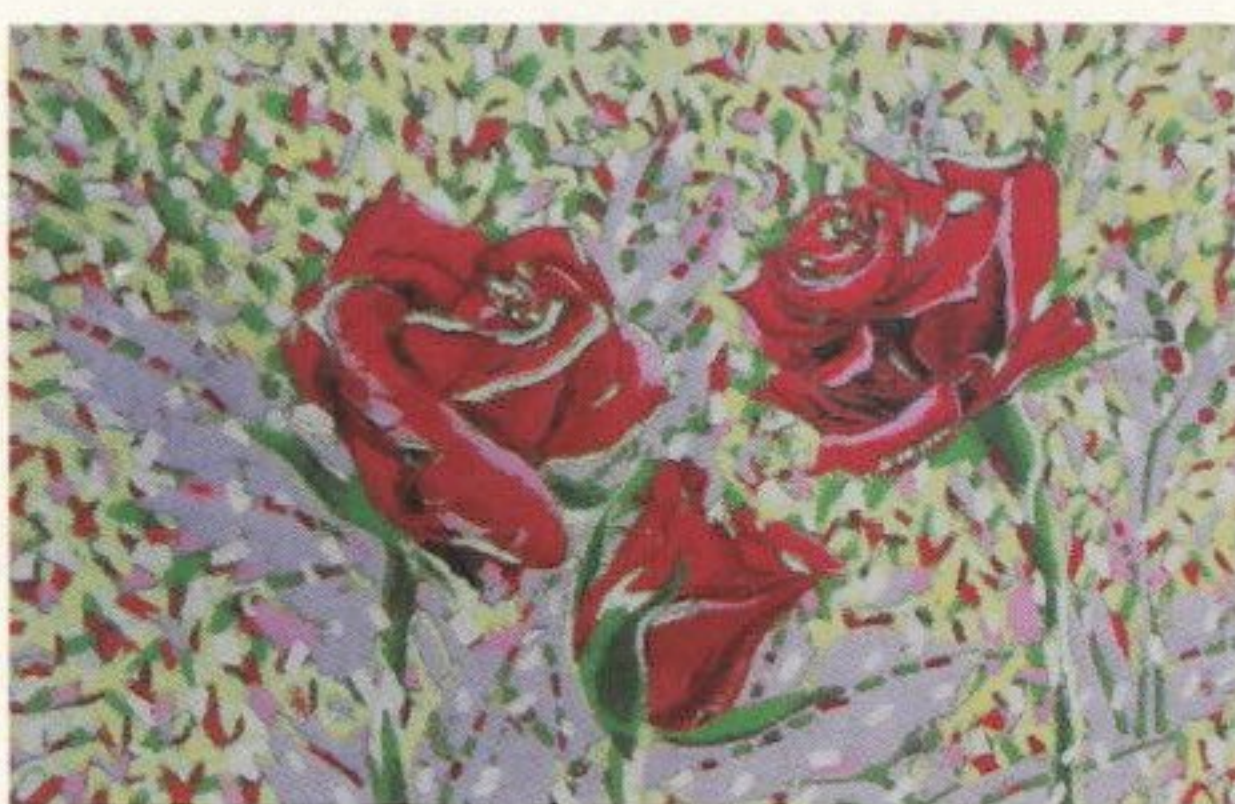
빛-Space

2009년 12월 12일(토)-2010년 1월 11일(월)
두산위브더제니스갤러리

■ 문 의 두산위브더제니스갤러리(731-9943)

사랑을 담은 판화전

2009년 12월 15일(화)-2010년 1월 17일(일)
갤러리 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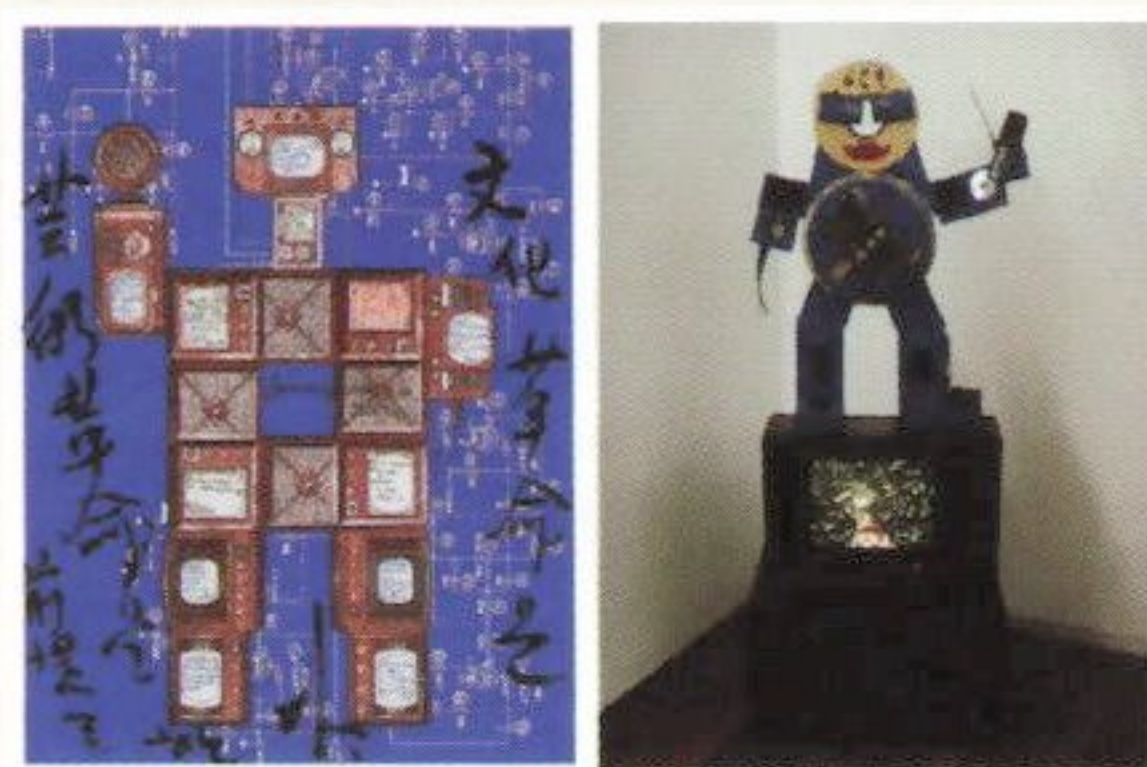
강동석 작
'장미'

· 초대작가/채경혜, 강동석, 곽태임, 신상용

■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비디오&팝아트展

2009년 12월 18일(금)-2010년 1월 21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백남준 작

현대미술을 이끄는 비디오아트와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비디오&팝아트展.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Incubating Baby, 두드리다- 공간과 장소, 틈과 흔적

12월 19일(토)-1월 17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 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박자용, 류덕인 2인전

1월 5일(화)-1월 25일(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박자용 작

재불청년작가협회 소속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자용, 류덕인 2인전.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존 발데사리&수잔 더저스

1월 8일(금)-1월 31일(일) 조현화랑 부산

■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박인관 초대전 이미지 시공유영09-시원(始原)

1월 9일(토)-1월 23일(토) 몽마르트르 갤러리



■ 문 의 몽마르트르 갤러리(746-4202)

노순택 사진전

1월 16일(토)-3월 2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국내 최고 전문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가야금녹음

유학오디션용

오케스트라녹음

녹음엔지니어팀

중창녹음

피아노녹음

| 녹음사례 | 피아노 송정민 : 아스트만음대 수석합격 4년 전액 장학생, 바이올린 이슬기 : 피바디음대 합격, 성악 김혜원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합격 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녹음 및 대관 문의 : 051-505-599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KBS-FM 한국의 전통음악 명반 시리즈

이 정 필 _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2010년 庚寅年 새해에도 힘찬 호랑이의 기상처럼 <예술에의 초대> 모든 독자들이 세상을 품에 안아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역동의 한해가 되시길 먼저 기원 드리며 평소에 즐겨 듣는 나의 애청음반을 소개 하고자 한다.

전통공연예술을 전문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항상 일상이 공연준비와 무대인생의 연속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무대의 막이 내려간 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다시올 수 없는 그 순간을 아쉬워하며 동료끼리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밤이 깊을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발걸음과 처진 어깨에서 우리는 예술인의 고독감을 본다. 이럴 때 필자는 귀가 후 언제나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한다. 그 음반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전통음악 명반 시리즈' 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한국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으면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는 짜임새가 돋보이는 음반이다.

먼저 젊은 풍류에서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영산회상, 수요남극을 비롯한 전통음악과 생소 병주, 가곡 편수대업을 담고 있어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여유와 느낌의 미학을 음악을 통해 삶의 교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KBS국악관현악단 협주곡 편에서는 한국음악의 전통적 리듬과 멜로디를 소재로 한 가야금 협주곡 '새야 새야' 소금과 방향을 위한 협주곡, 대금과 거문고 협주곡 '사모곡', 피리협주곡 '보리피리' 등 요즈음 국악계에 퓨전이 도를 넘어 지나친 현실에서 악기의 특징과 연주자의 기교와 표현력이 돋보이는 곡을 수록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하다.

세 번째 음반은 거문고 앙상블 연주집으로 거문고악회인 금울악회의 거문고와 양금 병주 취타를 비롯해 거문고 제주로 '침향무' '출강' '첫봉화' 를 담았으며 임전금희가 연주한 거문고 중주곡

'소리의 탄생' '도가 2000' 그리고 현악풍류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하현도드리를 거문고 삼중주로 실었다. 때론 거문고의 부드러움과 장중함을 때론 역동적이면서 민족의 진취적 기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백악지장 거문고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에 취해 숨이불처럼 포근한 밤의 꿈나라 여행을 떠나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향수가 담긴 서도소리 편에서는 인간의 삶의 희노애락이 CD 한 장에 모두 스며있는 듯 하다. 편안한 선율과 소리창법에 때료되면 우리조상들의 생활모습이 소리의 선율을 타고 눈앞에 파노라마 영상으로 펼쳐져 어느듯 백의적삼에 두건을 두르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를 저어보는 착각에 빠져봄도 좋을 듯하다.

마지막장은 작고 명인들의 연주곡집으로 남도민요 '농부가',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등과 경기민요 '노래 가락', '태평가', '구 아리랑' 그리고 경상도 민요의 '쾌지나칭칭', '밀양아리랑' 에 이르기까지 신쾌동, 지영희, 이충선, 성금련, 한범수, 서공철 등 민속분야 최고의 명인들이 연주한 곡들로 그 소리의 깊이에 가히 명반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전통음악 명반 시리즈' 는 국악애호가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다양성을 통해 그 깊이를 느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음반이다. 누구나 일상생활에 지쳐 쉽게 잠들지 못할 때 이 음반으로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내일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보시길 기대해 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미취학아동들을 위한 눈높이 음악회 악기가족이야기 개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0년 미취학 아동들의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악기가족이야기' 를 새롭게 연다.

악기가족 이야기는 지난해 7월 동화 구연으로 풀어낸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와 어린이들의 귀에 익은 레퍼토리로 구성된 쇼케이스 공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에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올해는 쇼케이스 공연에서 선보인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외에 '나팔 가족이야기' '타악기가족 이야기' 로 확대해 연주를 곁들인 동화구연과 악기 설명,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명곡 연주, 악기체험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악기가족이야기' 쇼케이스 공연

공연일정



1월 21일(목)	10:30	북구문화빙상센터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1월 2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1월 29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2월 5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8일(목)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타악기 가족 이야기'
2월 25일(목)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2월 26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타악기 가족 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동화구연/이소영

부산시립무용단 제 33기 시민무용교실, 제 22기 어린이 한국춤교실 개최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두차례 우리 전통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 33기 시민무용교실, 제 22기 어린이 한국춤교실이 1월 11일부터 5일간 열린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무용교실에서는 검무, 아리랑춤 등 두 개 과목으로 나눠 강습하며, 겨울방학을 맞은 유아·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한국춤교실에서는 전통 춤사위를 응용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아빠 힘내세요', '엄마돼지 아기 돼지' 등 두 개 반이 운영된다. 강습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어린이 한국춤교실은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시민무용교실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각 과목당 30명씩 선착순으로 전화 접수를 받는다.



어린이 한국춤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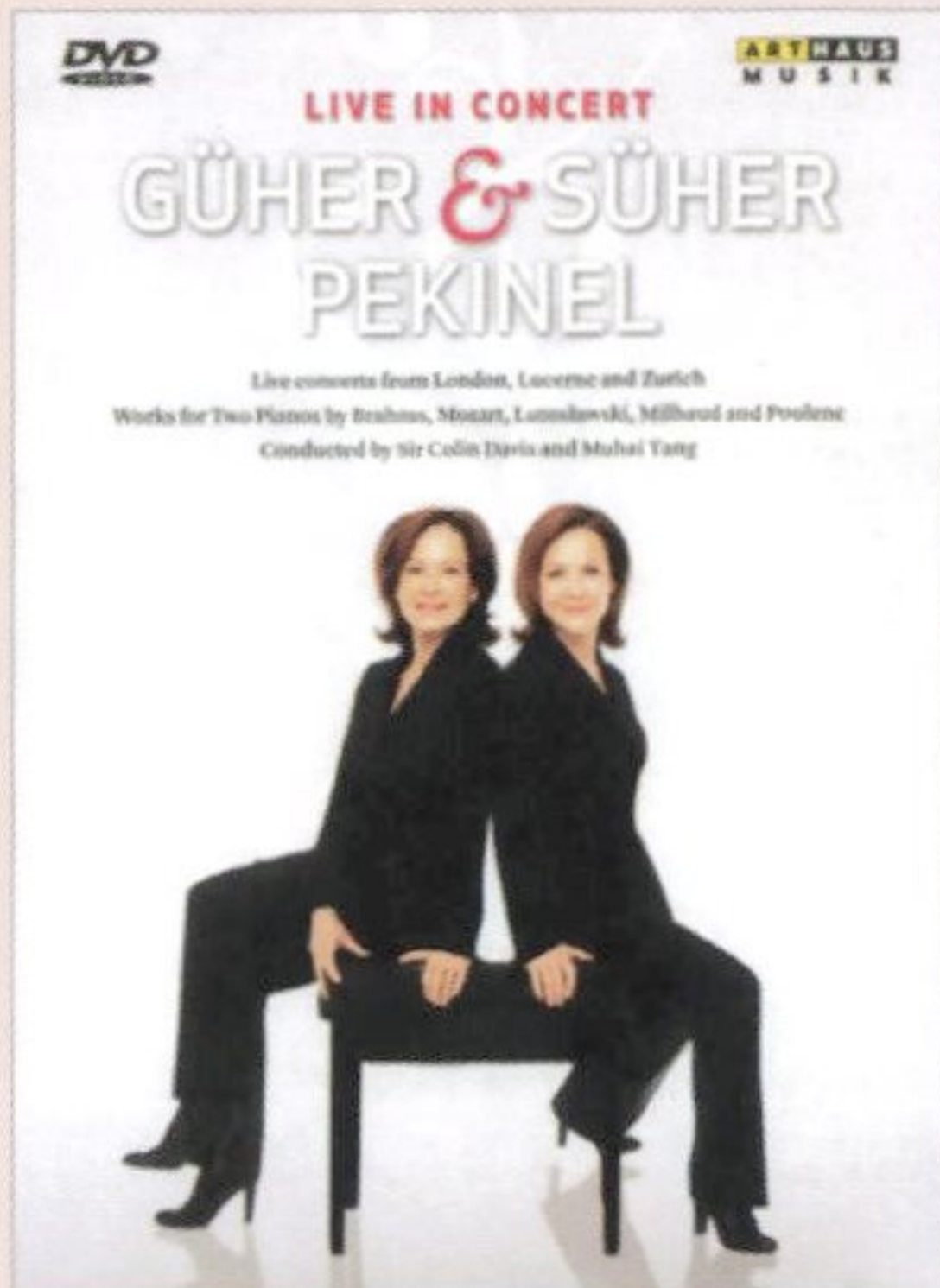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010년부터 확대 운영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국제회의장을 2010년부터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확대 운영한다.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은 최근 들어 벅스코, 누리마루, 시청 국제회의실 등의 국제회의장이 건립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어 문화예술 및 공익 관련 시상식과 강좌,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위주로 대관신청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술·학예(어린이)발표회, 세미나, 워크샵 등의 일반 대관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지난 1993년 4월 부산문화회관 전관 개관과 함께 문을 연 국제회의장은 384㎡ 규모에 객석 133석, 방청석 75석을 갖추고 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2)



Guher & Suher Pekinel

▶ 페키넬 자매가 들려주는 피아노듀오를 위한 대표 레퍼토리들

터키 출신의 일란성 쌍둥이 페키넬 자매는 비슷한 연배의 라이벌인 라베코 자매와 더불어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2006년과 2007년, 이들이 런던, 취리히, 루체른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황들을 함께 묶은 이 DVD는 피아노 듀오를 위한 대표 레퍼토리들을 망라하고 있다. 거장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는 이들이 9세의 나이에 가졌던 첫 공개연주회 당시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취리히에서는 풀랑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과 삼바 리듬으로 채워진 미요의 작품 '스카라무슈'를 연주하였고, 루체른에서는 루토스와프스키의 '파가니니 변주곡'과 브람스의 '피아노5중주 작품 34'를 작곡가 자신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편곡한 버전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이 DVD는 푸짐한 보너스가 함께 한다. 라흐마니노프 '모음곡 5번' 2악장과 바흐의 '협주곡 BWV1062'의 1악장 외에도, 자크 루시에 트리오와 협연한 '바흐&재즈'의 트레일러와 이들이 함께 연주한 바흐의 '삼중협주곡'과 비발디 '사계' 중 '봄'의 연주영상 등이 함께 제공된다.



슈베르트 3대 연가곡 The Schubert Song Cycles: Hermann Prey

▶ '갓 찢낸 찐빵' 처럼 친근한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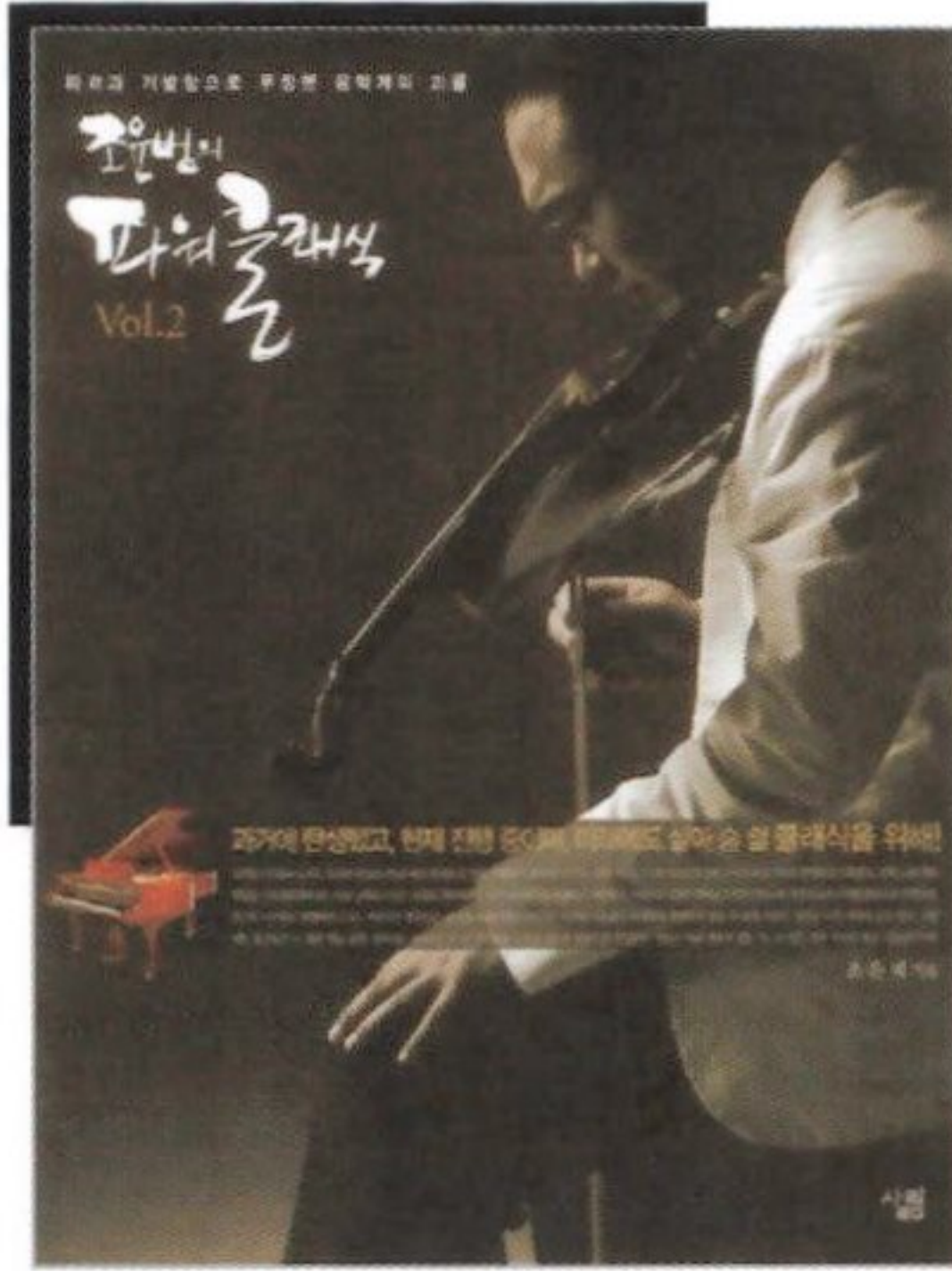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1929~1998)는 20세기 후반의 리트 연주사에 있어서 4년 선배인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와 쌍벽을 이룬다. 다만 피셔-디스카우가 지극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독일 음악의 정통성을 리트에 부여했다면 프라이는 그와 대비되는 서민적인 수수함과 따스한 음색으로 색다른 뉘앙스를 입혔다. 그래서 음악평론가故 한상우 선생은 클래식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 프라이의 음성을 '갓 찢낸 찐빵'으로 비유한 바 있다. 실로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그리고 <백조의 노래>가 모조리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 자신에 의한 간단한 안내가 붙어있다. 게다가 프라이에 대한 38분짜리 다큐멘타리가 보너스로 제공되는 등 무려 4시간이 넘는 성찬이다. 촬영된 시점은 1980년대 중후반이고 헬무트 도이치와 레너드 호칸슨이 피아노를 맡았다. 아무리 슬픈 가락이라도 희망을 담아 노래하는 프라이의 음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백조의 노래>는 어떤 성악가의 노래도 지금까지 DVD로 발매된 적이 없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라모 '르 보레아드' 발레 모음곡

▶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의 돈독한 동반자관계를 예고하는 특별한 콘서트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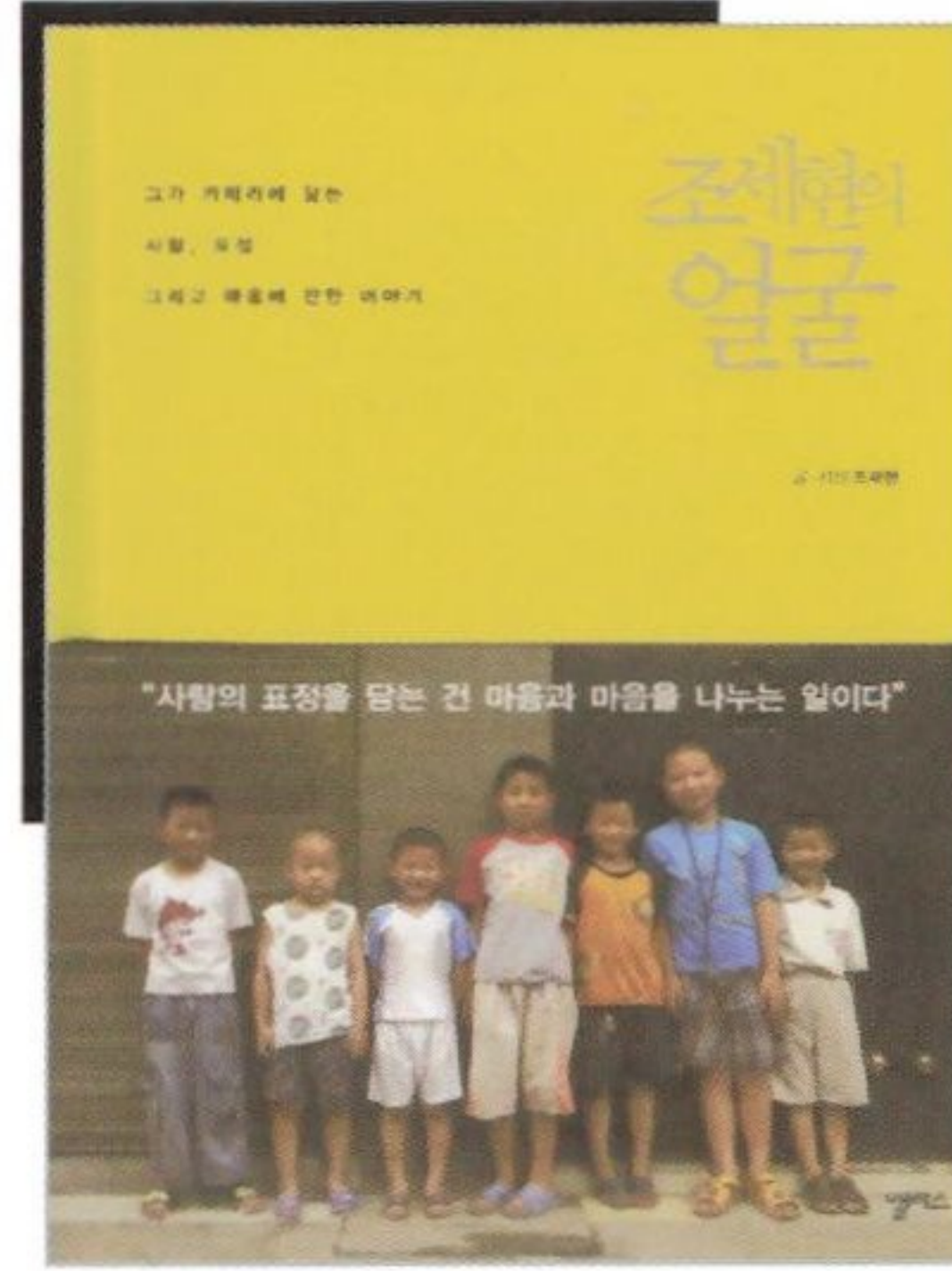
1987년 말러 6번을 지휘하면서 베를린 필과 첫 만남을 가졌던 사이먼 래틀은 이후 수차례의 객원지휘를 통해 이 악단과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1999년 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아바도의 후임자로서 낙점을 받게 되었다. 이번 DVD는 아직 음악감독으로 결정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베를린 필을 지휘하는 래틀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서는 가장 시기가 앞선 기록이다. 프로그램도 독특하다. 각각 바로크와 낭만시대에 오케스트레이션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들인 라모와 베를리오즈의 대표 관현악곡을 짝지었다. 라모의 마지막 무대음악 걸작인 '르 보레아드'(북풍신의 아들)에서 발췌한 관현악모음곡에서는 굳이 시대악기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바로크음악의 산뜻한 풍미가 멋지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와 일사불란한 합주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환상 교향곡 역시 나무랄 데 없다. 풍부한 표정과 큰 액션으로 세계 최고의 악단을 당당하게 이끌어아가는 래틀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엠마뉘엘 파위, 알브레흐트 마이어, 슈테판 도어의 미청년시절의 풋풋한 얼굴들도 신선하다.



조운범의 파워클래식 Vol. 2

조운범 지음
살림 / 359p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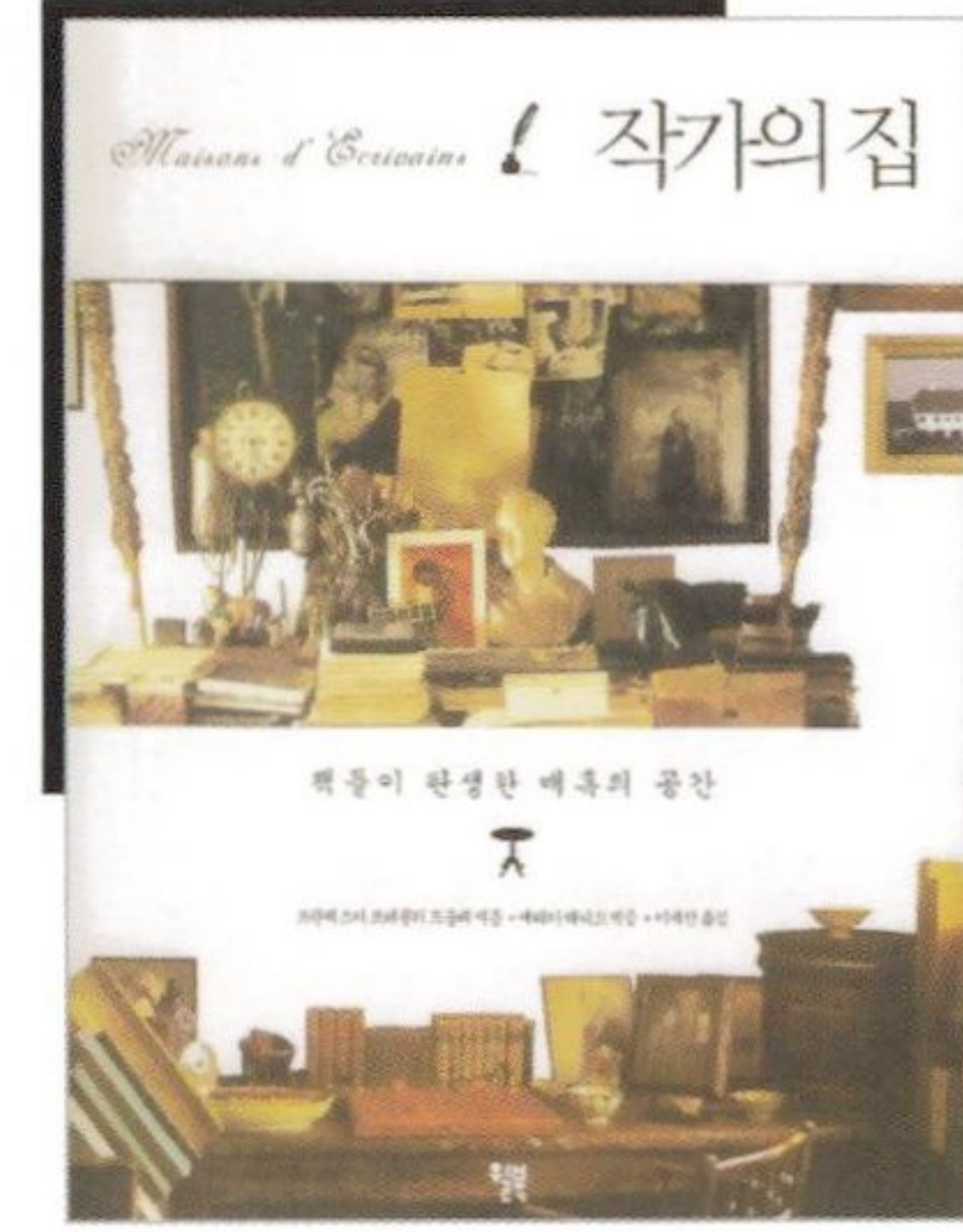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칼럼니스트, 예당아트TV 프로그램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의 진행자인 조운범 씨를 일러 사람들은 '음악계의 괴물'이라고 부른 그는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한 현악사중주단'이라 평가받는 <콰르텟엑스>의 리더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강렬한 연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또한 기존의 차분하고 정적인 클래식 프로그램과 달리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유쾌한 언변과 열정적인 연주가 함께하는. 클래식 애호가나 전공자들은 물론, 클래식 음악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흥분과 중독의 상태로 몰아넣어 버렸고, 방송사 게시판엔 인터넷으로 다시 보려는 사람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책에서도 그의 열정은 빛난다. 연전 퍼낸 1권에서 클래식은 우리가 멀게만 느낄 음악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면, 이번에 펴낸 책에서는 한 발짝 나아가, '클래식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 중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예술'임을 강조한다. <스타워즈>나 <선들러 리스트> 등의 영화나 게임 등 다른 예술 장르와 어우러지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현의 얼굴

조세현 지음
글·사진 / 엘리스 / 243p / 14,000원

배우들의 내면 초상을 담아내기로 유명한, 한국의 리처드 아베돈이라 불리는 조세현이 중국 시안에서 셔터를 눌렀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오면서 쌓아온 조세현의 20년 포토 라이프(Photo Life)의 감정이 중국 시안 사람들의 얼굴에 응축되어 우리 앞에 섰다. 유명 배우도, 익숙한 한국인의 모습도, 또한 많은 사진작가들이 담아내는 휴머니티 가득한 오지의 사람들이 아닌,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철저한 익명의 사람들'을 담았다. 포토그래퍼 조세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그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닌 '완벽한 타인'을 카메라에 담아냈지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찍은 사진에도 조세현만의 따뜻한 감수성이 살아 있다. 작가는 사람의 표정을 담는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한다. 셔터를 누르기 전, 사람과 눈을 맞추며 다른 언어지만 같은 사람이기에 전해지는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전해 받은 피사체는 자신만의 표정을 조세현에게 전달한다. 그 마음에 깊은 인연을 예감하고, 조세현 역시 마음을 고스란히 셔터에 전하며 찰칵! 자신의 마음과 피사체의 마음을 담는다. 조세현이 자신의 사진에 어떻게 마음을 담아내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작가의 집

프란체스카 프레몰리 드롤레 지음,
에리카 레너드 찍음, 이세진 옮김
월북 / 382p / 14,8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살고 사랑한 집을 찾아간다. 헤르만 헤세부터 헤밍웨이, 마크 트웨인, 버지니아 울프까지. 위대한 작품을 남긴 20명 작가들의 집을 여행하며 그들의 작품세계와 내밀한 삶을 되짚어 간다. 벽의 한 면을 가득 채운 장서들, 온갖 메모와 원고들이 뒤섞여 있는 집필실, 작가들의 예술적 취향을 드러내는 오브제들. 이 책은 작가의 집 주변의 자연환경부터 건축구조, 집필용 책상과 아끼던 소품들까지 220컷이 넘는 사진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각자의 집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간 그들의 삶과 내면의 소소한 흐름까지를 문학적인 언어로 들려준다. 마크 트웨인의 소년시절 신나는 모험을 담은 하트포드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툼 소녀의 모험>으로 되살아났고, 카렌 블릭센이 아프리카에서 나눈 황홀하고 잔혹한 사랑의 추억은 울적한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덴마크의 단출한 집필실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다시 태어났다. 집은 작가들의 추억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주며 사유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지 같은 공간이다. 이 책은 작가들이 남긴 작품을 생각하며, 작가들의 흔적을 뒤따라 가보는 특별한 감흥을 준다.

첼리스트 장한나 초청독주회

장한나 첼로 독주회는 한마디로 '역시 장한나' 였다. 연주는 그녀의 명성에 걸맞게 열정적이고 격정적이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첼로 선율을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으며, 연주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긴긴 시간 마음을 울렸다.

- 허 수 희(연제구 연산9동)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청소년을 위한 시네마 클래식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답게 이해하기 쉬운 영화, 드라마 주제곡을 골라 연주했지요. 그동안 입시준비에 지치고 찌든 청소년의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연주였습니다. 이날 연주회를 가장 빛낸 얼굴은 단연 데이비드 맨시니의 '독주 세트드럼을 위한 모음곡'을 협연한 박철우님이 아닌가 합니다. 세트드럼이 지닌 참맛을 남김없이 드러낸 걸출한 연주솜씨로 청중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지요. 대학입시로 향하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리라 믿습니다.

- 강 희 범(부산진구 범천4동)

이루마 부산연주회

퇴근길 감미로운 목소리로 일상에 지친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던 이루마를 만나러 가던 날, 겨울의 세찬 바람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일었다. 이루마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나는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을 되돌아보며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넓은 초원을, 대지를 자유롭게 거닐었다.

- 이 윤 정(수영구 남천동)

정선희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완창발표회

내 공연인생 17년-락, 콘서트,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부를 모두 걸어 최고의 공연이었다. 심청가가 얼마나 스펙터클하고 방대하며 환상적인 판타지인지...4시간 반이란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내내 아쉽고 애석할 따름이다. 본디 국악에 크게 아는게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잠잘 요량치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웬걸 말 그대로 상상초월, 뜻밖대박, 심금천둥, 감동폭풍이로구나~

- p스피(바다무대 회원)

경성대학교 워크샵 뮤지컬 'I-DO(맘마미아)'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아버지로 추정되는 샘, 빌, 해리를 자신의 결혼식이 열리는 그리스의 섬으로 초대한 소피. '아버지' 라는 사람을 통해 '나' 라는 존재를 알고 싶었다는 딸과 세 사람의 등장으로 묻어두었던 20년 전의 추억으로 혼란스러운 엄마인 도나. 전설적인 아버지의 잊지 못할 곡들과 춤, 공연을 더욱 완성시키는 의상과 소품들. 오랫동안 맘껏 소리 높여 호응하고 더없이 신나게 즐겼습니다. 또 보고 싶네요.

- 이 미 경(동래구 온천 2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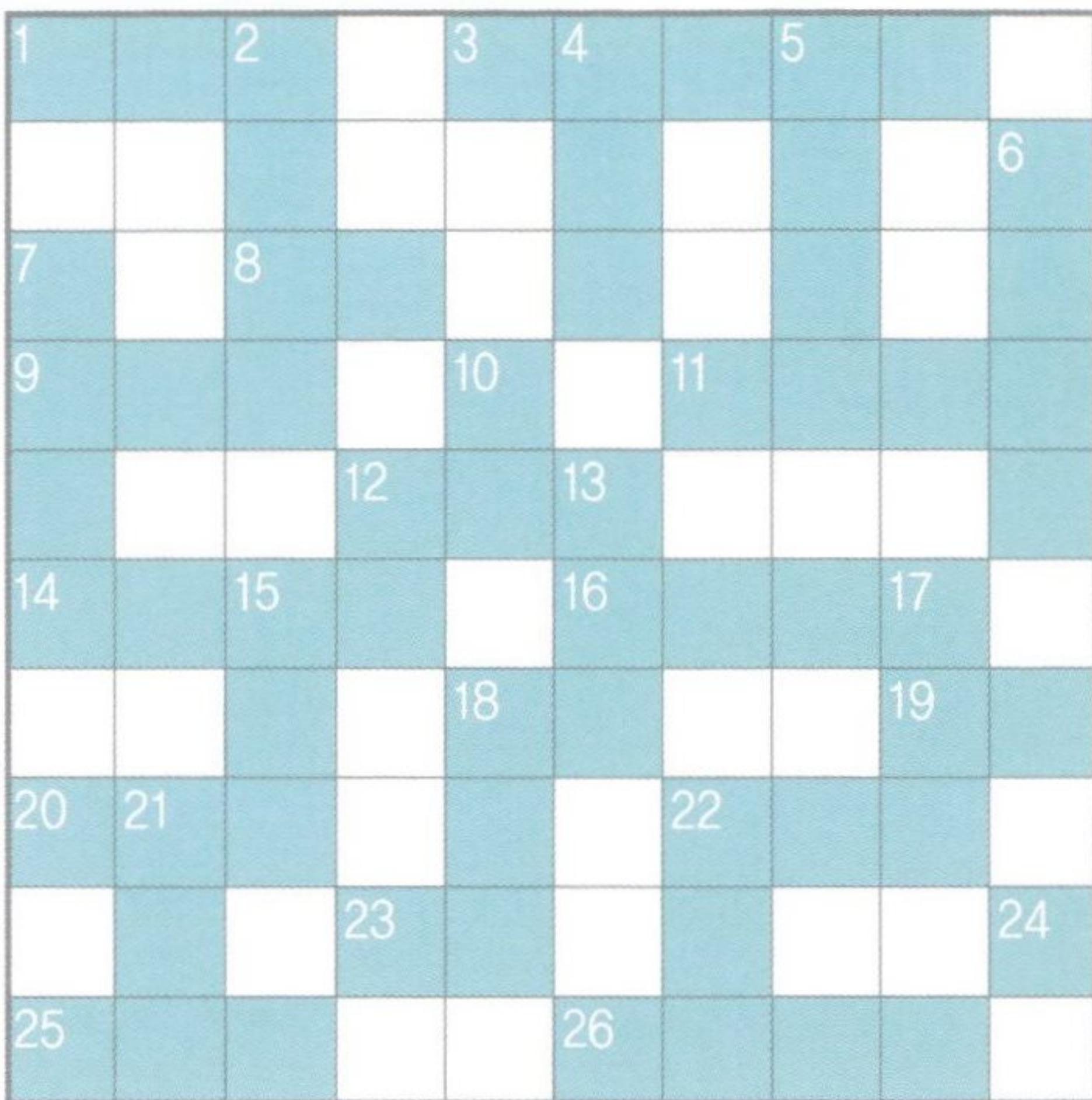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2009년 기축년은 '소'의 해, 2010년 경인년은 '오'의 해.
-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가문. 춤곡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작품은 매년 1월 1일 빈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이다.
-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伯牙)와 그의 친구 종자기(鍾子期)와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 최동훈 감독, 강동원, 임수정 주연의 영화, 고전소설 '오오전'에서 캐릭터 모티프를 따와 현대를 배경으로 재창조한 한국형 '히어로 무비'.
- '빛의 천사'라 불리며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미국의 맹농아(盲聾啞) 저술가이자 사회사업가.
- 1897년 독립협회가 우리나라의 영구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국민의 헌금으로 세운 문.

세로

- 영국의 인기 오디션 TV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면서 '제 2의 폴 포츠'라는 닉 네임을 얻은 가수. 그녀의 데뷔음반은 발매 1주일 만에 전 세계 판매량 300만 장을 넘어서며 각종 음반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작곡가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의 비극을 바탕으로 하여 작곡한 3막의 오페라. 3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여자의 마음'이 유명하다.
- 독일의 작곡가. 민화와 전설에서 취재한 국민 가극을 많이 작곡하여 독일 낭만파의 시조라고 불린다. 작품으로 오페라 '마탄의 사수', 피아노곡 '무도회의 권유' 등이 있다.
- 실존철학의 선구자라 불리는 독일의 철학자. 대표적인 저서로 '비극의 탄생'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이 있다.
- 한국의 서양화가. 구체적인 이미지 대신 연속적인 사각 공간 속에 점묘(點描)를 배열해 한국 근대화화의 추상적 방향을 여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론도' '해와 달' 등이 있다.
- 시조시인. 호는 노산(鷲山).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가고파' '성불사' '고향 생각' '봄치녀' 등이 있다.
- 비폭력 저항으로 유명한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
- 음력 정월 초하룻날.
- 판소리의 창법. 귀신이나 낼 수 있는 어려운 소리, 또는 귀신이 곡할 때 내는 소리라는 의미로 인간이 흉내내기 힘든 뛰어난 성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신재효가 개작한 판소리 6마당 중 하나로 변강쇠 타령이라고도 한다.
- 1952년 결성된 이탈리아의 저명한 실내합주단. 비발디 '사계' 연주로 유명하며, 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신년음악회를 갖는다.
- 두 개의 'U' 자 모양 관을 맞추어 만든 금관악기. 관을 뽑거나 당기는 슬라이드 장치로 음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나 현재의 괴로움, 자신의 열등감 따위를 중요한 코믹요소로 승화시켜 웃음 뒤에 페이스스를 느끼게 하는 미국의 영화감독. 대표작으로 '애니홀', '한나와 그 자매들' 등이 있다.
-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의미로 하는 말. 스스로는 무식한 체하면서 사람들의 아는 체하는 가면을 문답법으로 폭로한 소크라테스의 '에이로네이아(짓궂음, 아유)'에서 유래했다.
-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나이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한 데서 유래한다.
- 제 1, 2차 세계대전 패배로 1949년에 동서로 분단되었다가 1990년 10월 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된 국가. EU(유럽연합)의 창설국으로, 수도는 베를린.
- 1961년 개봉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곡으로, 주연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이 불러 이 해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한 헨리 맨시니의 곡.
- 김치나 깍두기 등을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상(賞). 1947년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여배우 앙트와네트 페리를 기념하기 위해 창설된 상으로, 'A. 페리상'이라고도 한다. 2009년에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1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10개 부문을 휩쓸었다.
- 이탈리아의 작곡가. 대표작으로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이 있다.
-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고 몽상적인 기분이나 로맨틱한 환상을 표현한 소품곡.
- 에스키모의 집. 얼음과 눈덩이로 둥글게 만든다.

지 난 호 정 답

장	한	나	시	베	토	벤
헤	카	르	멘	스		
남	석	빙	고	델	카	약
한	크	마	스	카	니	
산	타	클	로	스	존	니
성	스	이	르	턴		
비	비	안	리	클	림	트
길	올	데	밀	레	맨	
소	크	라	테	스	지	
뜸	너	라	디	오	스	타

퍼즐당첨자 명단

■ 큰집

- 권민화(사하구 대대동)
- 김아름(서구 부민동3가)
- 소은선(동래구 온천3동)
- 윤지현(서구 초장동)
-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류달용(동구 초량1동)
- 이신혜(수영구 남천동)
- 이혜리(연제구 연산6동)
- 정미란(금정구 장전동)
- 최미정(연제구 연산동)

■ 공간 소극장

- 성유리(기장군 기장읍)
- 이현주(동래구 안락동)
- 우미옥(수영구 남천동)
- 정성식(남구 대연4동)
- 황정애(수영구 광안동)

■ 나랏소

- 김홍조(남구 대연5동)
- 우향화(북구 화명동)
- 이은정(북구 덕천1동)
- 이준호(해운대구 재송1동)
- 최태민(남구 대연4동)

그림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민속 요리명인

나랏소

만우 숫불구이 금방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

2009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놓은 12월은 지나간 한 해의 아쉬움과 새롭게 다가올 신년의 희망이 교차하는 달이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분주함 속에서 지난 12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2009년 테마여행 마지막 여행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 2006년 테마여행을 시작하고 경상지역을 벗어나 여행하기는 처음이라 여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정기회원들의 참가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당첨의 행운을 안은 43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은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서정숙, 김동숙 씨가 함께 동행했다.

세시간 넘게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낙안읍성 민속마을. 드넓은 평야지에 축조된 성곽 내에 200여 채의 초가가 돌담과 싸리문에 가려 웅기종기 자리

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옛 마을 정경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도착하자 문화유산해설사 김데레사 씨가 정기회원 가족을 반갑게 맞는다.

“이곳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타지역의 민속마을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장이자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또한 국창 송만갑 선생과 가야금병창의 오태석 명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고향으로, 그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데레사 씨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동문에서 남문까지 복원된 성곽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았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는 판소리, 가야금병창을 비롯해 도자기, 한지공예, 짚물,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교실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남문 입구에 자리한 판소리 교실을 찾아간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침 그 곳을 지키고 있던 김양남 명창으로부터 판소리 한자락을 들을 수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적벽가’ 이수자이기도 한





낙안읍성 판소리학교에서 김양남 명창이 부르는 진도아리랑을 감상했다.



순천만 에코피아호에 탑승, S자형 수로를 따라가며 순천만의 생태와 역사를 배웠다.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한 우리춤 체조

김양남 명창은 멀리서 찾아준 정기회원 가족들을 위해 흥겨운 '진도아리랑' 과 단가 '사철가' 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짧은 시간내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정기회원 가족들은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른 아침 출발로 허기졌던 배를 채웠다.

오후 여행지는 황금빛 물결의 갈대숲으로 유명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과 뾰뾰한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순천만은 흑두루미와 노랑부리저어새, 고니, 재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 국제적인 희귀종이 찾아오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이다. 2006년 1월 연안습지로는 전국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으며, 아름다운 S자형 수로에 떨어지는 낙조는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먼저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생태학습장인 '순천만 자연생태관' 에 들렀다. 순천만을 상징하는 커다란 흑두루미 가족 조형물이 인상적인 순천만 자연생태관은 갯벌의 생성과 진화과정, 순천만의 조류와 철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물과 함께 실시간 CCTV를 통해 순천만을 직접 관찰해볼 수도 있다. 이밖에 천체관측은 물론 순천만에 서식하는 조류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순천만 천문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생태관 관람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순천만 수로를 오가는 '에코피아' 승선 체험에 나섰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에코피아는 순천만을 보다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선으로, 생태해설사가 함께 동승해 순천만의 생태와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36인승이라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에코피아 승선 체험을, 또 나머지 한 팀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황금빛 갈대군락을 거닐며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다.

12월 테마여행 마지막 일정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서정숙, 김동숙씨의 지도로 진행된 '우리춤 체조'. 하루종일 바쁜 일정으로 피곤해진 우리 몸을 전통 춤사위를 이용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시원하게 풀어냈다.

어두워지는 순천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숨가쁘게 달려온 2009년 끝자락에서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여행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2010년 2월에는 **사천**으로 겨울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고원준(동래구 사직2동)
김승겸(금정구 장전동)
김영미(기장군 기장읍)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송말남(연제구 거제동)
양나린(동래구 사직동)
양윤복(양산시 평산동)
이준엽(남구 감만동)
최성지(북구 화명동)
최영민(영도구 청학2동)

신규가입자

김문주(부산진구 양정4동)
엄태응(동구 범일동)
이재훈(서구 서대신동2가)
임종술(부산진구 개금3동)
전수진(연제구 연산동)
정상민(금정구 부곡동)
차욱진(남구 대연1동)
최성화(서구 암남동)
한미영(영도구 동삼동)
황기애(해운대구 중2동)



2010 가족이야기 일정

공연시간 : 매회 10:30

일시	장소	제목	내용
1. 21(목)	북구문화빙상센터	제가 제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현악기
1. 22(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 29(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 25(목)	영도어울림문화공원		
7. 22(목)	해운대문화회관		
2. 5(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금관악기
2. 12(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타악기, 하프, 피아노
2. 18(목)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 26(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7. 15(목)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목관악기
7. 21(수)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8. 17(목)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악기 가족 다 모여라!	종합편

동화구연 이소영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각 앙상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ingston Rudieska

킹스틴루디스카
Kingston Rudieska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5



2010. **1.15** (금) pm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Cin de re la

국립발레단 초청
신데렐라



2.19 (금) 오후 7:30, **2.20** (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최태지 Tae-Ji Choi 안무 장크리스토프 마이요 Jean-Christophe Maillot 음악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Sergei Prokofiev 무대 에른스트 피농-에른스트 Ernest Pignon-Ernest 의상 제롬카플랑 Jérôme Kaplan 조명 도미니크드리요 Dominique Drillot

주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3만원 문의 : 국제신문 500-5222,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8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기분전환 프로젝트

지친학생, 바쁜 직장인, 주부들의 겨울나들이



[러브 패밀리]
상해/주가각/항주 4일
CCP753KEF 399,000원~



[7대 파워특전]
방콕/파타야 5일
AAP701KEA 556,000원~



[디즈니 1일자유]
홍콩 + 디즈니랜드 4일
CHP705 569,000원~

국내 겨울여행

부담없이 저렴한 한국의 겨울여행



[스키 패키지]
성우리조트 VS 오투리조트
AKFK06 55,000원



[눈꽃여행]
최고급 펜션+남이섬+용평
AKFK25 145,000원



[서틀포함]
울릉도/독도 2일 또는 3일
AKFK00 210,000~265,000원

온천여행 일본여행

겨울이 기다려지는 따뜻한 이유



[부관훼리]
선내 2박/규슈 온천여행 4일
JKP559 299,000~379,000원



[카멜리아]
선내 1박/규슈 온천여행 3일
JKP565 249,000~369,000원



[코비]
규슈 온천여행 2박3일
JKP554 469,000~799,000원

겨울 탈출 세부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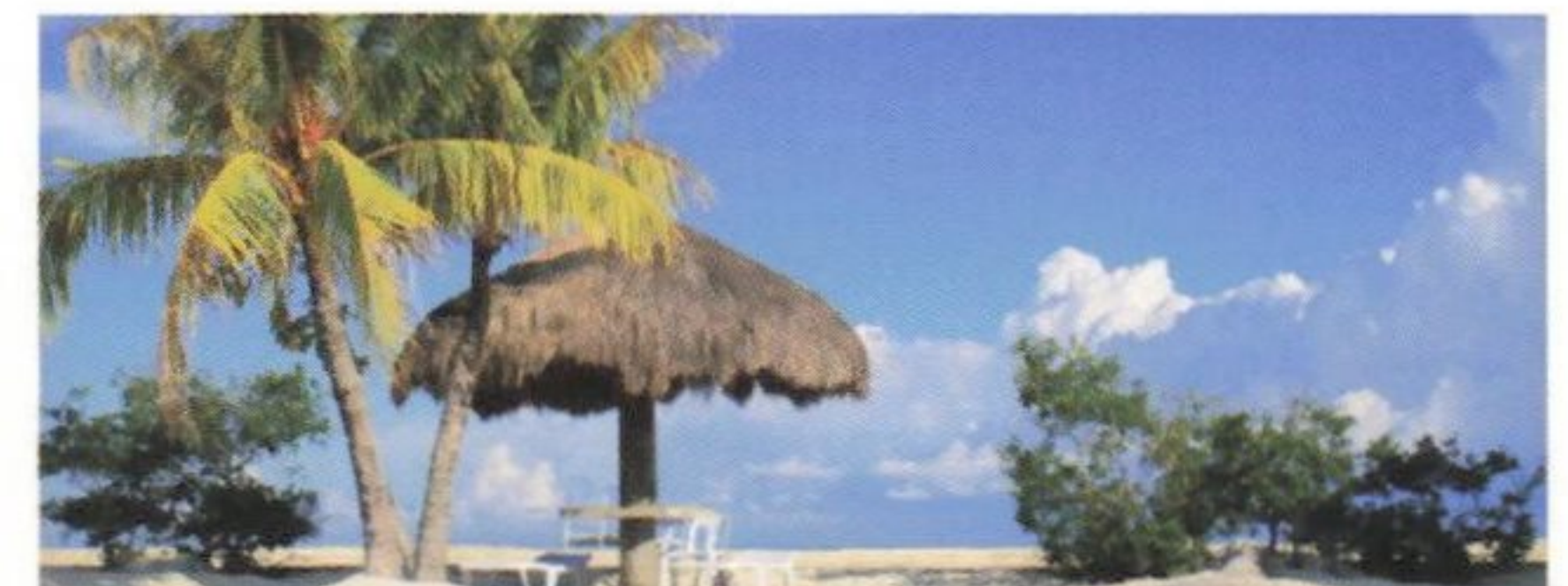
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세부



[초특가 필살기]
세부 아구스 리조트 4일
APP754 499,000원~



[하이하나 자체상품]
세부직항 5일
별도문의 549,000원~



[하이하나 자체상품]
세부직항 6일
별도문의 599,000원~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효원국악연주단 '감미로운 우리음악'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연주단으로,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부산대학교 효원국악연주단'의 '감미로운 우리음악'.

▣ 프로그램

국악관현악/제주의 왕자, 연
국악으로 듣는 '가시나무' '이등병의 편지'
가야금중주/로망스, 엘리제를 위하여, 궁타령의 멋
국악관현악/Power of Love,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ost), 멋으로 사는 세상

연주

임채형(악장), 최주실, 김단비, 김지영(가야금), 김명희 김나영(거문고), 하성진(아쟁), 박모정, 김나영, 강민정(해금), 김범석(소금), 박미정, 이수인(대금), 신선영, 강우석, 임진희(피리), 이진희, 박우정(타악), 이해선(건반)

※ 지휘, 해설/홍희철(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1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페스티벌기타 앙상블 연주회



고전음악로부터 현대 곡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연주회. 기타음악의 보급, 발전에 힘쓰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 앙상블은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으로 침체된 국내 기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프로그램

스페인 민요/에레스 두 비제/아르고네이즈	모차르트/터키 행진곡
로드리케스/라쿰파르시타	타레가/알함브라궁의 회상
바흐/G선상의 아리아	이동준/태극기 휘날리며
	박정식/화성 등 수곡

1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대취타(등채/김수일·태평소/강영현, 진형준·나발/황두호, 최재호·나각/최영훈, 오상훈·용고/최오성, 박일·자바라/이주헌·징/전학수)
대취타는 조선시대의 군대 예식과 왕의 행차 등을 통해 전승된 행진 음악으로 독특한 의상을 갖춘 악사들이 징, 자바라 등의 타악기와 나발, 나각, 태평소 등의 관악기를 연주하고, 별감차림의 집사(執事)가 '징'을 울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아쟁/권혜정·장구/송강수)

산조란 즉흥적인 음악이란 뜻이 담긴 곡으로 허튼 가락이라고도 한다. 아쟁산조 주법은 활대로 문질러 타는데 곡의 흐름이 애절한 듯 강렬하고 굵은 농현법이 특징이다.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옥경화·김지현·25현/이명일, 송영남·장구/이장우)

세마치장단에 실려 있는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18현과 25현 가야금 2중주로 변주한 곡으로 12현 가야금에 의해 표현되는 소박하고 정감있는 연주에 화려한 화성과 풍부한 음향을 더함으로써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 준다.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정선희·대금/한영길·피리/정주아·해금/최윤희·아쟁/최영훈·가야금/정미자·거문고/오상훈·장구/송강수)

민요란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불려지는 소박한 노래로서 민족특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사물놀이(팽과리/이주헌·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신문범)

다양한 장단을 연주하며 긴장과 이완의 주기적인 흐름 속에서 기경결해(시작, 진행, 절정, 마무리)의 전개방식으로 진행된다.

※ 악장/유경조 ※해설/백규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윈드 앙상블

▣ 프로그램

코플랜드/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모차르트/관을 위한 세레나데 제 10번 내림나장조 '그랑 파르티타'
작품 361 중 제 3악장

드보르작/관을 위한 세레나데 라단조 작품 44 중 제 2악장

R.슈트라우스/13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내림나장조 작품 7

풀랑/악, 타악 및 하프시코드를 위한 프랑스 모음곡 작품 80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다솔사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2010년 2월 5일 (금) 사천 다솔사, 비봉내 마을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 대나무 마을 비봉내에서 즐기는 건강체험. 김동리 선생의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다솔사, 별주부전의 무대인 비토섬에서 즐기는 굴 구워 먹기로 건강한 겨울을 보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사천 비봉내 마을 도착, 대나무 숲 산책, 대나무 비누 만들기 체험 등
-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2:00 중식
- ▷ 13:00 다솔사 탐방
- ▷ 14:30 비토섬으로 이동, 굴구워 먹기(우천시 비봉내마을에서 진행)
-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에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 · 시립예술단공연 5~20%/할인횟수 제한없음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탈 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2010 부산세계음악제(가칭) 명칭공모

부산음악협회에서는 2010년 가을, 부산에서 개최될 2010 부산세계음악제(가칭) 명칭을 공모합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세계적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2010 부산세계음악제(가칭) 명칭은 부르기 쉬우면서도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고 영문발음이 용이한 명칭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응모기간 : 2010년 1월 11일(월) ~ 1월 29일(금)(19일간)
- 응모자격 : 전 국민(1인 3작품까지)
- 응모방법 : 우편(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이메일(bmasso@hanmail.net), 직접방문
- 신청서 : 국제음악제 명칭 공모 신청서에 의거 제출
- 문 의 : 부산음악협회(☎051-634-1295)
- 표기형식 : 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혼용 가능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20%** 할인



2010. 1. 7(목)~3. 7(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단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리움)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모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노래>

Richard Yongjae O' Neill <NORE-Songs without words>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들려주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번에는 비올라로 진짜 '노래'를 부른다.
솔로 5집 앨범 <NORE-Songs without words> 발매 기념,
앨범 수록곡
히나스테라의 슬픈 노래, 브람스 네 개의 엄숙한 노래,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선사

2010년 3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천사의 하모니, 새해를 시작하는 최고의 선물!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10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WIENER SÄNGER KNABEN



2010년 1월 19일(화)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CREDIA PRESENTS

티켓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1544-1555 :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20% 할인)